(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664 1981년11월7일(토)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Saturday, November 7, 1981

EAST ASIAN 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TORONTO, CANADA M5S 1A5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식 자 부 장 : 박 부 웅
편집자문위원 : 윤 방 현

정기모임 참가후 귀가중인 한인교수, 의사부인들

집단교통사고

4명사망
4명중상

밴트럭, 트럭과 충돌. 사망자들 박사부인

◇… 오레곤주 코발리스시 인근 99번 하이웨이에서 밴트럭을 타고가던 교포여…◇
◇…인 8명이 교통사고로 4명이 현장에서 즉사하고 2명이 현재 생명이 위독…◇
◇…한 참사가 일어났다. 2일 하오 3시45분께 코발리스 남쪽 8마일 99번도로…◇
◇…의 Airlid Rd Suver Junction입구에서 친목회를 다녀오던 한인여인 8명이…◇
◇…밴트럭으로 집에 돌아오던중 같은 방향으로 달리던 목재트럭과 충돌 8명의…◇
◇…사상자를 냈다. 〈시애틀—조병우기자〉 …◇

코발리스 포크카운티 경찰서 루테넌레이스틸 경찰관에 의하면 이들은 이날 사고현장에서 10여마일 떨어진 같은 한인 페기파우엘여인집에서 점심모임을 가진후 돌아오면 길에 프리웨이 진입로에서 스톱사인을 보지못하고 그대로 진입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것이다.

사고당시 일행은 코발리스시에서 외과의로 개업하고 있는 교포 박정열씨의 부인 박정회씨가 운전하는 79년형 닷지밴트럭에 동승하고 있었으며 달려오던 트럭에 왼쪽옆을 들이받힌 차가 한바퀴 구르며 앞자리에 타고있던 3명이 그자리에서 숨지고 나머지 1명은 병원으로 옮기던 중 절명했다.

루테넌레이·스틸은 사고당시 현장은 왼쪽 절반이 우그러진 차속에 이미 숨진 3명이 한데 서로 뒤엉켜 있었으며 부상당한 5명중 2명은 차밖에 까지 튕겨져 나와있었다고 전했다.

사망자는 ▲박예숙(43·박하성 오레곤주주립대교수부인) ▲박정회(31·박정열 외과의사부인) ▲조영자(36세·김정우 오레곤주립대교수 약혼자·LA가데나거주) ▲박명옥(52·스테빈오레곤대교수부인)등 4명이며 현재 중태는 ▲안문자(42·김원규산부인과의사부인) ▲오용주(35·오석연 오레곤주립대교수부인) ▲김봉수(50·이종선교수부인) ▲김정수씨등으로 경찰당국은 밝혔다.

한편 사고를 당한 일행은 모두 코발리스시 한인사회의 의사및 교수등 박사부인들.

12명의 친목클럽 회원은 매달 1회씩 돌아가며 런치파티를 가져 왔다.

이날 참석치못한 회원은 일행들을 코발리스시의 회원세탁소인 서클라인클리너앞에 모여 모두 각자 차를 세워둔채 밴트럭으로 함께 가기로 하고 떠났는데 이 참변을 믿을수 없다 고 말하며 울먹였다.

또한 숨진 일행중의 36세의 여인은 오는 12월12일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는데 이게 웬 날벼락이냐고 말했으며 평소 가보지못한 길의 지형등에 서툴러서 일어난것 같다고 전했다.

코발리스시는 오레곤주의 대표적인 교육도시로 이시에는 1백여명의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대부분 오레곤주립대학교수및 의사, 대학원생등의 가족들이다.

코발리스 한인회(회장·서내홍)는 이사고에 대한 장례일자·절차등은 현재 유가족측과 협의중이다.

▲오레곤99번 도로의 비극—모임에 참석한후 밴트럭을 타고 돌아오던 여성들이 하이웨이에서 트럭과 충돌해 4명이 현장에서 숨졌다. 사고후 고속순찰대가 한국여성시체4구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 왼편 전복된 닷지밴에 여성들이 승차했고 이차와 충돌한 트럭(오른편)역시 도로밑에 전복됐다. 사고지점은 오레곤 코발리스시 북쪽 15마일지점이며 포트랜드에서는 약1백마일 정도이다

한국일보
533-2361

조총련교포 재입국비자 발급

한국, 일본에 강력항의

(서울4일=연합) 일본정부는 최근 미국에서 의학을 계속하려는 조총련계 교포에게 재입국 비자를 발급했다.

고베대학에서 의과대학을 수료한 오영선씨(30)씨는 미국 테네시대학에서 1년간의 공부를 계속하기 위해 4일 미국으로 떠났다.

오사까 이민국은 오씨에게 인도적인 견지에서 장기 재입국비자를 발급했다. 고베주재 미영사관도 오씨에게 교환학생의 자격으로 입국비자를 발급 선례를 남겼다.

일본정부는 과거 조총련계 재일교포들에게 북한과 공식적인 외교관계가 없는 이유로 장기재입국 비자발급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일본정부방침은 75년이후 다소 완화, 단기해외여행을 하는 조총련계 재일교포들에게 재입국비자발급을 실시해왔다.

이로써 오씨는 처음 일본정부로부터 장기 재입국비자를 받은 조총련계 재일교포가 됐다.

일본주재 한국대사관은 일본의 이와같은처사에 강력한 항의와 함께 이번 비자발급은 북한을 실지로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波勞組委長 바웬사 노조파업 說得종식

〈바르샤바—AP〉 폴랜드의 자유노조 솔리대리티의 위원장 레크·바웬사는 2일 회원 12만명의 타르노브르레그지부를 설득, 2주일동안 계속돼온 파업을 종식시켰다.

그는 또한 다른 지부로 부터도 솔리대리티전국위원회가 소집될때까지 파업을 취소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그러나 솔리대리티에 따르면 아직 3개도시에서 16만명의 노조원들이 계속 임의로 파업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소설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 오늘 쉽니다.

실협회장단 입후보 2호

차선겸씨팀 등록

오는 11일 입후보등록 마감을 앞둔 실협회장단선거는 차선겸, 조기연, 김이열씨등 3명이 5일 등록을 마침으로써 열기를 뿜기시작했다.

회장후보 차씨는 부회장후보 김씨및 조씨와함께이날하오1시 실협사무실에나와 등록을 마쳤다.

지금까지 4년간 이사로 협회와 관계했던 차씨는그동안 협회일을 보면서 생각했던 소신들을 한꺼번에 펼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회장선거전에 뛰어들었다고말했다.

차씨팀은 등록을 마치고 발표한 성명서에서 선거공약으로(1)협회 아이디어 뱅크 역할을 할 기획 조사실을 설치 운영하고, (2)협회재정을 공개, 회원들의 불신감을 해소하며, (3) 회원들의 불만을 제도적으로처리하며, (4)그동안 추진해왔던 협동조합의 실현등을 제시했다.

지난7년간 20여개 상점을 소유, 가게경영의 경험을 충분히 쌓았다고 말하는 차씨는 와이즈맨즈클럽, 양로원건립위원회등한인사회 봉사단체에 크게관여해 왔다.

많은 협회원들은 이번선거의 양상이 현 집행부의 부회장 임철원씨와 총무최복귀씨가 이형인 회장의인맥을 그대로받아 협회를조용히 키워나간다는 소신과, 현집행부에는 과거 비판적이었던 이사회 출신인 차씨가 이슈로 내세운 협회체질개선 주장과의 대결이라고 보고있다.

양쪽진영의 선거전략도 달라 차씨팀은 약2개월 전부터 회장출마를 공공연히 밝히고 구체적 선거공약등을 제시한 반면, 임철원씨팀은 처음부터 조용한 전략을 채택, 출마의사를 표면화하지 않았고 공약의제시를 삼가 현집행부의 후광계승을 노린다고 일부측은 관측했다.

◇ 입후보등록을 하고난 왼쪽로부터 차선겸, 조기연, 김이열후보들

Y성탄파티

경품 프로도 다양

토론토의 한인 와이즈맨즈클럽은 알파클럽(회장차선겸), 베타클럽(회장 이석현)합동 네번째 크리스마스 파티를 아래와같이 연다.

이 크리스마스 파티는일반에게 공개된 교민파티로서 회원아닌 교민들도 부부동반 다수 참가를 바라고 있다.

올해는 11월21일(토) 하오6시(Cash bar 친교)7~12시 본행사가 토론토 다운타운 Holiday Inn 2 층 (커먼웰스 볼룸·이스트 85 Chestnut St. 시청뒤)에서 다양한 프로로 진행된다.

회비는 16일 이전 구입자는 $25, 그 이후 $30이고, 좌석은 200 으로 제한돼 있다.

연락처 한인 Y M C A 536-1166 Mr. Kim

社告

구독료를 인상합니다.

연 10여%의 물가상승률에도 불구, 80년1월부터 월 8달러의 구독료를 고수해온 본보는 더이상 재정적 중압을 견딜 수 없어 오는 12월1일을 기해 월 구독료를 9달러, 연 구독료(선불)를 99달러로 인상합니다.

식품점등 가두판매 가격은 당분간 종전과 같읍니다. 12월1일 이전 구독료 납부자는 종전 구독료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주 5일 토론토에서 발간하는 교민사회 최초의 일간지는 인플레 영향이 아니더라도 과거와는 다른 많은 재정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달에 1달러가 오르는 새 구독료는 경비 인상분 보충에도 미흡하지만 저희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더욱 분발, 진정 "교민의 벗"다운신문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독자들의 큰 이해를 재삼 부탁드립니다.

— 한국일보 —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상점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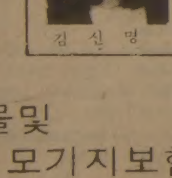
B) 497-3800
R) 284-9052

토론토 쇼핑의 전당
미도파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강학수 종합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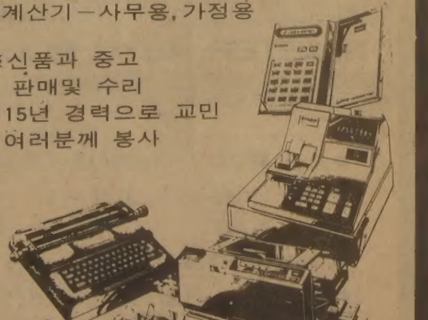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 믿고 살 수 있는
「로렉스지정판매 대리점」
(B) 534-9977, 534-7791
635 BLOOR ST. W. (한국관 앞)

SunLife OF CANADA
취급보험
ㅁ생명보험
ㅁ연금제도
ㅁ교육보험
ㅁ그룹보험
ㅁ주택, 건물및 사업금융 모기지보험
ㅁR. R. S. P

김 신 명
보장된 삶을 가지세요!
주소 TORONTO METRO BRANCH SUN LIFE OF CANADA
22 St. Clair Ave. E. 4th Floor, Toronto, Ont. M4T 2S3
TEL B)922-3111 R)439-8885

●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 수리중 차 대여
○ 완전한 차체수리
○ 사고차량 Towing Service
○ 페인팅(Oven Bake Finishes)

최신의 시설을 갖춘
MISSISSAUGA AUTO COLLISION
69 John Street, Mississauga, ONT.
Bus.: 275•3131, 3133 Res.: 622-1171
정 창 헌

SKY WAY
●각종 복사기
●각종 타자기—사무용, 가정용, 학생용
●캐쉬 레지스터
●계산기—사무용, 가정용
※신품과 중고 판매및 수리
※15년 경력으로 교민 여러분께 봉사

OLIVETTI. SHARP. 3M
MITACOPYSTAR. IBM. SANYO
215 CARLINGVIEW DR.
UNIT 109 REXDALE 김인환
(B)675-1295~6 (R)671-0938

DEAR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2ND CLASS MAIL NO. 5248

EAST ASIAN 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TORONTO, CANADA M5S 1A5

East Asian 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캐나다 경제 침체일로
올겨울 더많은 실직예상
실업율 8.2% 1달간 1.2% 상승

많은 캐네디언들이 실직과 침체된경제활동으로 우울한 겨울을 보내야 된다.

로이드·액쉬디 고용성장관은 캐나다는 여지껏 만성 실업에 대해 잘 대처해 왔으나 이제 통제능력을 상실했다고 시인했다. 캐나다는 지난달 전례없는 1.2%가 늘어난 8.2%의 실업율을 보여 액쉬디 장관의 말을 뒷바침하고 있다.

그러나 액쉬디 장관은 단지 1개월의 통계만으로 모든 것을 속단할 수 없다면서 시민들은 당황하지말것을 부탁했다.

정부의 몇몇자료들은 캐나다 역사상 월간 최고 실업율 상승을 보인 지난달 통계를 통계상의 착오로 말하고 있으나 액쉬디장관은 이들의 말을 부인했다.

그는 비록 여름 내내 스태티스틱스·캐나다(캐나다 통계국)에서는 캐나다 실업율을 7%로 발표하고 있었으나, 지금 취업사정은 점점 악화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9월 처음으로 실업율이 8%선으로 상승되기전 여름내내 실업율은 하강곡선을 그려 6월에 7.3%, 8월에 7%로 내려갔다. 이에 캐나다는 선진공업국중 가장높은 직업창출 기록을 과시했다.

액쉬디 장관이 현재의 상황에 대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캐나다가 소위말하는 격차경제(Split-Level Economy)상태로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라면서 "몇몇 기업들은 왕성히 성장해도 반면 다른 기업들을 점점더 쇠퇴해갈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와같은 딜램마에서 벗어나는 길은 일치된 기술지도계획과 악순환되는 실업해소에 전력투구를 다하는 길 뿐이라고 액쉬디 장관은 강조했다.

신부에 유죄언도
사기횡령 혐의

로마·캐톨릭 신부가 사기횡령죄로 4년징역을받은 사건이 최근 발생했다.

피우스·에마뉴엘·핀넌신부(59)는 아프리카 문둥병자를 도우면서 동시에 쉽게 돈을 불릴수 있다고 온타리오 주민들을 감언이설로 속여 30만달러 상당의 돈을 긁어 냈다.

핀넌신부는 온타리오 전역에 걸쳐 34건의 사기횡령죄로 3일 4년징역형을받은 이외에도 73년 위니펙에서 10만달러 사기횡령으로 지난달 2년 징역형을 받은바 있다. 그는 죄상을 인정했으나 돈의 용도에대해서는 일체 함구했다.

판결을맡은 프레드·화이트 온타리오주 판사는 그는(핀넌신부)이 사회에서 성직자로서의 특별한 역할과 그에대한 신뢰를 신중히 고려했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핀닝신부 에게 사기당한 많은 피해자들은 그가 성직자였기 때문에그의말을 모두 믿었다고 경찰에 증언했다. 피해자들중에는 핀닝신부의 친척, 동료신부들과 그들 교구신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지난주 법원에서의 피해자들 증언에의하면 그들은 75~79년사이에 핀넌 신부와 접촉, 핀넌 신부는 그들에게 자기에게 돈을 투자하면 자기가 추진하는 우라늄 탐사계획 으로부터 2~3배의 투자수익을 올릴수 있으며, 그것은 결국 그가 추진하는 아프리카 문둥병자를 돕는 사업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말해왔다.

핀넌신부는 3일 법정진술에서 자기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에게 폐를끼친 것에대해 매우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진술 마지막 부분에서 그는 절대 고의적으로 행한짓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핀넌신부는 28년전 뉴브룬스윅의 기울어가는 한사업가에게 1만달러의 대부를 주선해준 댓가로 4천에이커의 광산소유권을 획득한 데서부터 이와같은 사업에 손을대기 시작했다.

그는 법정에서 주요투자에 대해 뉴욕의 자본가와 어떻게 협상했으며, 아프리카 문둥병자들을 위한 냉장고 구입에 협력한 일, 백만장자들을 움직여 사스케치완의 재정적으로 곤란을 겪는 교구를 도와준 일등에 대해서도 진술했다.

그는 또 그의 신세를 진 사람들로부터 금은등 많은 선사품을 받은 것을 시인했으나 다른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말했다.

핀넌 신부는 화이트 판사에게 자기가 자주 스탠다드·오일, 쾌벡의 시마드가와 같은 부유한 자본가들과 접촉을 가졌다고 밝혔다.

핀넌 신부는 51년 뉴 브룬스윅 베더스트에서 서품을 받아 신부가 되었으나

야 했다. 사제직을 그만둔 후 그는 미국으로 갔다가 후에 사스케치완으로 와서 교회나 그를 위한 기금을 모금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12년 기한의 임시 본당(소교구)을 맡았다.

70년대 중반 핀넌 신부는 욕 지역으로 이전, 교구신부를 때때로 보좌하며 교구신자들에게서 투자를 위한 기금을 거두어들였다.

서머나감리교회 목사 취임예배

◇박준하 목사

토론토의 서머나감리교회(675 Sheppard Ave E)는 오는8일(일) 하오5시 새로부임한 박준하 목사의취임예배를 드린다.

박목사는 목회경력 21년, 그중 연희,도봉지방의 1~2대의 감리사를 지냈고, 서울 삼양중앙교회에서도 17년간 목회했었다.

에트닉그룹도 정부고위직에
복합문화주의가 주체성 확립

캐나다의 소수민족 들도 정부가 임명하는 연방및주정부의 기관장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복합민족주의에 관한 토론토지역 시장들의 회담에서 논의 되었다.

"정부는 에트닉 대표들을 복합문화자문기구 등에는 임명하나 실지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는 연방, 주, 시의 공직에는 임명하지 않는다"고 밥·래연방국회의원(NDP)은 현행 복합문화정책을 비판했다.

밥·래의원은 현재 유력한 온타리오 신민당 당수후보 이다.

토론토 복합문화 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회의는 온타리오의 정치가, 경찰, 교육자등 사회저명 인사들에게 에트닉 공동체의 성장과 그들의 위치를 환기 시키는데 있다.

래의원은 2일 시내 프린스 호텔에서 열린 개회식에 참석한 200여명의 청중들에게 소수민족 에게도캐나다 사회에서 상당한 자리를 준다는 것은 사회 구조의 변화를 의미한다고말했다.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것은 캐네디안은 영국제국의 연장이라는 개념으로부터 완전 탈피해야하는것"이라고 강조한 래의원은두개의 공용어(영어, 불어)를 가지고 있으면서 수많은다른인종, 언어, 문화를 함께 포용하는 새로운 국가야말로 캐네디안 주체성 확립에 불가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밴텀급챔피언
챔피언 59명중 10명
멕시컨이 支配的
90년사 챔피언 미국이1위로2백41명

□ 프로복싱 세계밴텀급 차기챔피언은 멕시코에서 찾아야한다-국가별 역대세계 챔피언 배출자를 정리하다보면 이같은 결론이 내려질만큼 멕시코는 밴텀급무대를 지배해 왔다.

링지는 1891년부터 1980년까지 90년간 국가별, 체급별 총 배출챔피언을 총정리 그통계를 발표했다.

이에따르면 지금까지 배출된 세계밴텀급 챔피언총수효는 모두59명으로 이중 미국이 22명, 멕시코는 10명으로 집계되어있다. 그러나 경량급에서의 미국의 강세는 20세기초반에 한한것이며 60년대이후 멕시코선수들이 대부분 밴텀급을 지배해왔다.

세계프로복싱 90년사를 통해 탄생된 각급챔피언총수는 모두 4백86명. 이중 절반에 가까운 2백41명이 미국선수들이어서 미국이 프로복싱세계에서 누리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실감케한다.

또한 주니어플라이급에서 헤비급에 이르는 15체급중 미국은 신설체급3개를 제외한 12체급에서 현격한 차이로 1위를 고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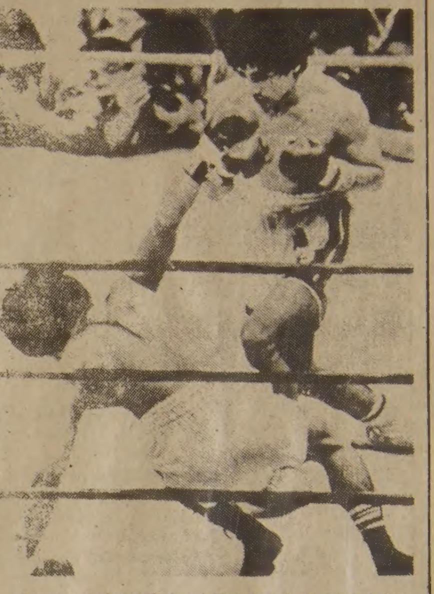
미국다음에 멕시코가 30명을 배출 2위에 올랐고 영국(28명), 일본(19명)등이 그뒤를 따르고 있다. 최근들어 강세를 보이는 한국은 모두9명을 배출 캐나다와 동률9위로 강호의 대열에 끼어있다.

세계챔피언의 지역별분포는 미국을 포함한 북미대륙이 3백9명을 배출해 전체의 64%를 차지하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다음이 90명의 유럽, 44명이 아시아, 최근 호조를 보이고있는 남미세는 23명에 불과한데 이는 프로복싱의 도입이 늦었고 복싱국가수효가 4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두드러진것은 한때 영국이 주름잡던 플라이급이 60년을 기점으로 아시아지역의 전유물처럼 변천됐으며 아사아지역23명의 플라이급챔피언중 16명이 한국, 일본, 필리핀이 차지했다.

챔피언중 챔피언으로 불리우는 헤비급은 미국이 독무대를 차지, 미국선수아닌 챔피언은 6명에 불과하며 50년대말 스웨덴의 잉께마르요한슨 이후론 계속 미국이 챔피언을 배출했다.

한편 아마추어복싱의 최대결전장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에서도 총1백33명중 미국이 33명을 배출 수위를 달리고있으며 영국이 12명으로 2위를 그뒤를 이탈리아, 폴랜드, 헝가리등이 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복싱 경량급의 판도가 60년대 초반 영국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점차 아시아지역이나 중남미의 독무대가 되었다. 사진은 작년 10월 한국의 박찬희(오른쪽)선수와 일본의 오구마·손지와의 WBC플라이급타이틀전.

프린세스 公式데뷰
新婚꿈서 깨어난 다이아나

◇웨일즈지방을 여행중인 찰스황태자와 다이아나황태자비. 이것은 황태자비로서의 첫 공식일정이었다.

「왕자님의 신혼여행」도 언젠가는 끝나야 하는 법.

지난 7월29일 장대한 결혼식을 올리고 3개월간의 긴긴 허니문에 들어갔던 찰스황태자와 다이아나 황태자비가, 지난주 허니문이후 처음으로 황태자와 황태자비로서의 직분을 사작했다.

레이디 다이아나가 프린세스 다이아나로 첫 공식데뷰를 한것은, 지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계속되었던 웨일즈 지방 여행.

그리고 그 3일동안 다이아나 황태자비는 12가지의 공공행사, 7~8차례의 방문, 호화디너에 참석했었다.

버킹엄궁전의 대변인은 『어느정도 그들에 대한 일을 줄여주어, 가을동안에는 그들의 스케쥴이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해주려 하고있다』고 말했지만,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라는 말은 사실 상대적인 문구일 뿐이다.

즉 일년전만해도 무명의 유치원 보조 교사였다가 일약 황태자비로 올라간 다이아나 에게는 지난 3일간의 행사들이 결코 쉽지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뿐이 아니다.

웨일즈 地方여행이 첫業務·각종 리셉션 參席줄이어

버킹엄궁전 대변인에 의하면, 버킹엄궁전 리셉션, 불렌하임 궁전에서의 컨서트, 인디언댄스 이브닝, 메리로즈 전함기금 모금회의, 런던 필름페스티벌과 곤자가 예술전시회의 공식오프닝등이 앞으로 1달간 다이아나 황태자비가 참석해야할 행사들이다.

지난 3달동안 찰스황태자와 다이아나 황태자비의 첫째 공식임무는 일반인들의 눈을 피하는 것이었고, 그면에서는 굉장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들이 왕실요트를 타고 지중해를 항해할때, 신문기자들은 비행기를 전세내고 보트를 빌어서 스페인에서 이태리로 또 그리스로 다니며 소문에 들은 그들의 행방을 추적했으나, 그 소문들은 모두 거짓임이 들어났다.

그들이 엘리자베스 여왕개인영토인 발모랄에 머물렀을 때에는, 그들과 신문기자들 사이에 협상이 이루어 졌었다.

한번 사진을 찍는 댓가로 그 다음에는 프라이버시를 지켜준것.

그후 매주 일요일 그곳 교회를 오고 가는 다이아나 황태자비의 사진이 찍혀졌으며, 언젠가 런던신문들은 그녀가 긴장되어있고 침울해하고 있으며, 왕실 업무와 황태자비로서의 임무를 두려워 하고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물론 그런 추측은 순전히 교회를 오가는 그녀와 표정에 기인한 것이었으나 그같은 추측은 곧 사라졌다.

한편 그들의 허니문 기간내내, 런던에서는 다이아나 황태자비의 웨딩기프트와 웨딩가운을 보고자 하는 관람객들이 4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린끝에 전시장에 들어서곤 했다.

전시마지막 일인 10월4일까지 이 전시장을 찾는 관람객은 18만명.

이들은 찰스황태자가 지정한 자선기관들을 위해 37만달러의 기금을 내놓고 갔다고 한다.

결혼이후 찰스 황태자는수입이 늘어나 1주일에 4천5백달러의 수입이 더 생기게 되었으며 이들 부부는 그들의 시골별장에 요리사를 한명 고용했다고.

"미술3총사" 미 대륙 스케치여행
—신동헌, 장연탁, 구자승씨—

본지에 이색기행문과자필삽화「캐네디안래프소디」를 연재한바있는 화가신동헌씨·토론토의 조각가 장연탁씨·토론토 미술유학중인 서양화가 구자승씨가 토론토를 출발. 미국각지를 여행하며 스케치를 화폭에 담고있다.

이들 일행은 미대륙스케치 여행도중 지난 29일 LA에 들러 약1주일간 머물며 미술계를살펴보고, 교포 미술가들과 만난후 그랜드 캐년으로 떠났다.

작년 4월 한국을 떠나 일본을 거쳐 토론토에서 6개월간 장편만화영화 제작에 종사했으며 뱅쿠버에도 수개월간 머물었던 신씨는

15일 토론토 출발

유람겸 취재여행길에 올랐다.

신씨는 이번 여행목적을 "그동안 신문 잡지의 만화와 만화영화 제작을 해왔지만 이제 후배들에게 넘겨줄 때가 된것같아 원래부터 하고 싶었던 순수회화를 하기 위해 미국 각곳을 돌면서 미국화랑들을 둘러보고, 많은 풍경 스케치를 하고있다."고 말하고, "뜻이 맞는 젊은 미술가 두명과 다니며 견문을 넓히는 좋은 경험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한국에서 만화영화 제작에 맨처음 손댄 이분야의 개척자이며 21년간 이 분야에서 활약했다.

동행한 장연탁씨는 토론토 교민으로 서울미대출신 온타리오미대에 조각과 졸업. 이태리에 유학 미술공부를 했으며, 밀라노와 베니스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장씨는 토론토에서 수차 개인전 또는 합동전을 가졌고, 현재 댄스다운 지하철 뒷편에 미술 연구소를 차리고 있다.

또 한명의 동행 구자승씨는 홍익대 미대출신으로 부인과 함께 토론토의 온타리오미대(OCA)에 유학중이며, 사실화(구상)을 주로 다루고 있다.

캐나다의 전체적 분위기가 보수적인데 비해 미국미술계가 매우 자유로와 보이는 점이 인상적이라고 3씨는 입을 모아 평했다.

▲미대륙횡단여행중 LA에 들른 신동헌화백(가운데)과 장연탁씨(왼쪽), 구자승씨(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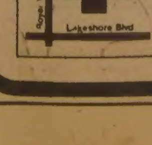
MASTER AUTO BODY

- A급 BODY MAN(16년 경험)
- 사고 보험관계 일체처리
- 무료견적
- 수리중 자동차 대여
- 사고차량 픽업써비스

95 PORTLAND ST. TOR.

(B) 255-2111
255-1000
(R) 828-5001

전 기 덕



알 림

전문직 진출에 뜻을 둔 후배 학생들을 위해 각 분야의 선배들이 그 직종의 실태를 소개하고 구비요건, 교육과정과 제도를 활용하는 요령등 자세한 안내를 하는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마련 했아오니 대학생, 대학 진학을 앞둔 고교생과 학부모, 그리고 이 방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주제 : 대학교육및 전문직종 안내
University Education and Professional Career Guidance
강연 : 온타리오 대학과 장학제도
Mr. Allan Hill(토론토대학 학생처 부처장)
토의 : 사회 : 조성준(사회사업가)
1. 인문분과 사회 : 조성준(사회사업가)
위원 : 강찬영(변호사) 송민자(고교교사) 김지일(심리학자) 심상수(계리사) 김영주(계리사) 조병선(경영관리사) 오준상(경영관리사) 김상용(경제학자) 공영회(상업미술가) 홍순관(목사) 대학생대표
2. 과학기술분과 사회 : 신복균(물리학자)
위원 : 윤광석(콤퓨터 시스템 아날리스트) 이태영(콤퓨터시스템 아날리스트) 김종상(동력공학자) 이창회(금속공학자) 윤승렬(화학공학자) 정대해(원자핵 공학자) 최태호(수학자) 민영서(건축가) 주병돈(보험 계리사) 천명호(토론토대 화공과 학생)
3. 의학분과 사회 : 구상회(소아과 전문의)
위원 : 이은숙(알러지, 소아과 전문의) 이영일(치과의) 한장환(약사) 김동근(병리사) 문가자(간호원) 조한철(수의) 김철(생물학자) 대학생대표
때 : 1981년11월21일(토) 오전10시~오후4시(점심제공)
곳 : 토론토 시 교육위원회 6층 강당
155 College St.(University Ave. 서쪽) 주차는 McCaul St. 주차건물 이용
주최 : 한인교육연구회, 재미한국 과학기술자 협회
협조 : 온타리오주 한인 대학생 협회
후원 : 한인장학재단

1981년11월 2일

한인 교육 연구회 회장 조 성 준
재미 한국 과학기술자 협회 온태리오 지부장 신 복 균

HWANG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도넛샾 :
①주매상 $6,500. 렌트 $3,000. 5년+15년 옵션
가격 : $26만 달러
②주매상 $5,500. 렌트 $2,300. 3년+10년 옵션
가격 : 18만9천
③주매상 $4,500. 렌트 $1,060. 8년+10년 옵션
가격 : 18만5천

주유소및 가게
①½에이커 땅에 가옥포함, 코너땅에 도넛샾 자리로 최적. $8만 다운. 가격 : 30만달러
②년매상100만달러이상. 2½에이커땅에 가옥포함 년수입 : 8만달러. 8만달러 다운. 가격 : 35만달러

버라이어티 스토아 :
주매상 : $5,500. 주매상 : $7,000.
주매상 : $8,000 되는 버라이어티스토아. 기타가게 달린집. MALL안에 있는 가게도 있음.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
TEL. (416) 449-8644, 8645 (B), 286-1548 (R) M3B 1Z3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0. yr. $8. mo. 구독료(선금)연 $90, 월$8, 영구구독 $500, ISSN03192962, 2nd Class Mail 5248.(416) 533-2361~4

실협뉴스

—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제공 —

총회일자 하루 앞당겨

11월26일(목) 하오 6시 같은장소에서

오는 11월27일(금요일) 오후 4시에 할리데이 인 돈벨리에서 개최하려던 81년도 정기 총회 일자가 변경되었다. 즉 하루를 앞당겨 11월26일 오후 6시 같은 장소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원래 총회 출석인원 100명 이내로 예상하고 예약한 장소의 넓이가 너무 협소하여 더 큰 장소를 교섭하던중 연말 크리스마스 파티 장소로 이미 모두 부킹되어 있어 부득이 주말을 피하여 할수밖에 없는 까닭이라고 한다. 이미 정기총회 공고가 되어 있지만 회원들께서는 변경된 일시를 기억하시어 차질이 없기를 바란다 고 관계자들은 부탁하고 있다.

가정의 벗 한국일보

		Silverwood		Sealtest		Neilson	
HOMO	3 Q. Jug	2.53	2.70	2.51	2.66	2.57	2.69
	3 Q.P.P.	2.57	2.70	2.56	2.70	2.58	2.72
	2ℓ	1.63	1.70	1.62	1.70		1.70
	1ℓ	83	86	81.5	85.5		85.5
2%	3 Q. Jug	2.51	2.66	2.47	2.62	2.52	2.65
	3 Q.P.P	2.47	2.62	2.52	2.66	2.52	2.68
	2ℓ	1.61	1.67	1.59	1.67		1.67
	1ℓ	81.5	85	80.5	84.5		84.5
SKIM	3 Q.P.P.	2.49	2.63	2.49	2.63	2.49	2.65
	1ℓ	80.5	84	79.5	83.5		83.5

밀크값 기습인상

11월2일 월요일부터 각 우유회사들이 일제히 밀크값을 기습 인상했다. 이를 알지못하고 있던 회원들은 월요일 아침 딜리버리가 도착된 후에야 알고 부랴부랴 가격조정에 진땀을 흘려야 했다. 본 뉴스란에서는지난주에 리터당 2센트씩 인상될 것이라고 기보했지만, 그 예상을 뒤엎고 리터에 5센트씩 올랐다. 이는 금년들어 세번째의 인상이다. 아래는 각 회사의 종전 가격과 인상된 가격의 중요품목별 비교이다.

실업인협회
20 MOBILE DR.
TOR. ONT.
M4A 1H9
☎: 752-7771
회 장: 이 형 인
부회장: 임 철 원
〃 : 김 명 정
이사장: 김 태 진
부이사장: 전 윤 식

〈질의응답〉

당신은 회원자격을 구비하고 계십니까?

협회의 금년도 정기총회(11월26일 목요일 오후6시)는 Holiday Inn Don Valley에서 개최되는데, 이번 총회에서는 현 집행부 임원들의 임기만료로 인하여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가 있게되어 회원들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회장 출마 예상 자들의 활동 때문인지, 요즈음 협회 사무실에는 자신의 회비 납부 여부에 대한 전화문의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회비와 회원자격에 대한 해설을 질의응답형식으로 풀어서 설명해 본다.

질문1 정회원에게 부여된 투표권은 어떻게 유지됩니까?

답: 회칙2장1항에 규정된대로 협회에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가입시에 회비를 납부하신 분을 말합니다. 회비는 년 $50로 만기제로서 만일 10월1일에 가입하였다면 이듬해 9월30일까지 자격이 유효합니다.

질문2: 두개의 스토어 소유자입니다. 각각 투표권을 행사할수 있는지요?

답: 두개 이상의 스토어를가지고 있어도 한표의 행사를 허용하며, 여러개의 스토어 명의가 각각 다른 이름으로 가입등록되어 있으면 그 이름에 따라 투표권이 부여됩니다.

질문3: 아내 이름으로 입회했는데, 총회장에 대리로 남편되는 제가 참석하려 하는데 가능한지요?

답: 부인의 명의로 가입되어 있으면 부인이 총회장에 나오셔야 합니다. 만일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부인이 나오실 수 없으시면 총회전에 명의변경을 정식으로 신고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질문4: 한 스토어에 세사람이 똑같은 비율로 파트너 쉽이 되어 있읍니다. 세사람이 함께 협회에 가입이 될수 있읍니까?

답: 파트너 쉽이라 해도 그 대표되는 분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한 스토어에 한분의 이름으로만 가입이 허용되고 있음을 참작하십시요.

질문5: 저의 스토어는 아빠의 이름으로 가입되어 있는데, 사실은 아빠는 직장에 다니시고 실제로 제가 경영합니다. 총회장에 아빠가 나가셔야 합니까?

답: 물론입니다. 남편되시는 분이 오셔서 회원의 권리를 행사 하셔야지요.

질문6: 작년 12월에 가게를 사서 협회에 가입했다가 금년 2월에 가게를 팔았읍니다. 제게 회원 자격이 유효한지요?

답: 예 회원자격이 12월까지 유효합니다.

질문7: 지난 9월에 가게를 새로 샀읍니다. 먼저 주인이 K.B.A.회원으로서 만기가 12월20일까지니까 자격을 승계할수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귀하는 그 가게를 인수하실때에 K.B.A의 회원자격도 함께 인수한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귀하는 새로운 가입수속을 완료하시고 새로운 K.B.A회원 넘버를 받으셔야 합니다.

질문8: 협회에 신규가입을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스토어를 가지고 계신 분으로서 가입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가입이 허용됩니다. 사무실에 전화로 연락하시면 즉시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입회원서를 우송해 드리며 그 원서에 기재사항을 적어 넣으시고 싸인을 하신후 회비 년 $50을 동봉해서 보내주시면 회원번호를 부여해서 K.B.A 회원의 혜택을 받게 되십니다.

김 인 규
RIA
ACCOUNTING & TAX
844-0178

〈문예작품공모 입선2등〉

이민, 구멍가게, 그리고 조그만「나」

김 영 희 작

1. 시작하는말

튼튼한 뼈대가 있고 포동포동 살이 찐 예쁜 문장들을 내가 경험한 일들과 연결시킨다는 게 힘든줄 알면서도 대담스럽게 펜을 드는 이유는, 아주 중요할 직책의 여인들이 누군가에게 없어선 안될 참 기막히게 아름다운 애인일게고, 사랑받는 아내일게고, 안보이는 기둥처럼, 그렇지만 그 집안엔 꼭 필요한 어머니일 수도 있겠고, 오손도손 슬픈 얘기, 기쁜 얘기들을 흉금없이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누군가의 다정한 친구일 수도 있는, 그런 여러 종류의 한국 여인들이 이곳 카나다에서 잘살아 보겠다는, 아니면 살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캣쉬 레지스터가 있는 카운터 뒤에서 얼마나 바삐 일하고 일하고 있는가?

오이씨처럼 고운 버선발에 날아갈듯 화사한 한복을 입은 그런 예쁜 한국의 여인상이 문명국가라는 환경 아래 이렇게 변화해 버림은 누구의 탓이랄 수도 없겠다. 그런 어딘가는 좀 안쓰러운, 아니면 아주 용감한 우리 여인들을 대표해서 난 이 글을 써 내려간다. 이 글이 그런 우리네 여인들 사이에 또 넓게는 이곳 한인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아울러 첨부하며 ….

수년전 고국을 떠나올 때 난 사회에 때 묻지않은 않은 순진하고 모든 면에 단순한, 그렇지만 한국을 대표한 하나의 적은 일꾼이었음을 기억한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어떤가? 날 이유없이 바더(Bother)하지 말아요. 나에게 해를 끼치려 하면 난 콱-악 물어버릴 꺼예요 하며 남에게 먹히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한마리의 조그마한 야생동물로 변해 있음을 발견하고는 참 슬퍼진다. 그러면 무엇이, 어떤 악조건들이 날 이런 경지로 만들었나를 생각해 보며 몇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본다.

1969년 살벌한 어느 겨울날, 얼마 안되는 미화($)를 전재산으로 우리 둘은 이곳 캐나다로 이민을 왔다. 고향을 멀리하고, 부모형제를 멀리했다는 감정적인, 어쩌면 사치스럴지도 모르는 그런 외로움을 맛보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빨리 영어를 배워서 이곳 생활에 적응하느냐가 그때 우리가 직면한 큰 문제거리였다. 우리눈에 보이는 건 허술한 노동복 차림의 유럽인 이민자들 뿐이었고, 말끔이 차려입은 좀 부자(?) 같은 사람들은 보기가 참 어려워 이곳은 이렇게 열심히 노동하는 이민자들로 이루어진 나라구나 하는 우리 나름대로의 좁은 선입관을 가진채 영어 배우기에 분주했고, 그런대로 우리가 원하던 취직을 했다. (그도 그럴것이, 처음엔 차(자가용)가 없어서 기껏 왕래하는 곳이 어베스트 블루어 근방이었으니까).

비둘기집 같은 3층 꼭대기 집으로 이사다니길 여러번, 그래도 집없는 설움이라 생각되지 않았고, 우리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 또 좀더 경제적으로 절약하기 위해선 꼭 필요한 이동이라 생각했었다. 그땐 꼭 철따라 이주해 온 철새들처럼 요리조리 함께 몰려다녔고, 지금처럼 이렇게 바쁘지 않아 이웃의 정갈은걸 나눌수 있는 기회도 많았던 것 같다. 지금처럼 우리 교포의 뉴스를 전해주는 신문이 없었어도 누가 어떤 모델의 새 차를 사고, 누가 비둘기 집에서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하고, 누구는 시간당 3불이나 되는 좋은 직장에 다니고 등등 뉴스는 참 빨랐으니까. 얼마정도 자리가 잡히자, 모두들 아들, 딸들을 낳았고, 이번에는 친척초청바람이 일어났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어서 시갓댁 전부가(시어머님, 시누이, 이, 시동생들 모두 6명) 이민을 오셨다. 그래도 집은 크막해서 거처할 곳은 문제되지 않았지만 갑자기 늘어난 인구(?)로 식생활비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가계부의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 마침 또 그때쯤 해서는 한두사람씩 장사에 관심들이 있던 때라, 우리에게도 충분한 인력이 있었기에 장사를 하기로 했다. 아빠의 가정이나 나의 가정에는 상업에 종사해본 사람이 없어 꿈에도 생각지 않았던 직업이지만, 상점을 하면서 우리 아홉 식구의 식비만이라도 도매가격으로 사오면 큰 이익이려 싶어, 한인중개인을 통해 인계받은 상점이 이태리안 동네에 깊숙이 자리잡은 그로서리가게였다. 아주 큰 규모에(약1800 SQ ft. 좀이었으니까) 고기까지 취급하는 일종의 수퍼마켓이었다. 장사에는 경험이 없었기에 깨끗하고 큼지막하면 좋은 줄로 알고, 아빠도 나도, 그리고 온집안이 아주 만족해 했다. 집안살림은 주로 시어머님이 맡아서 해주셨고, 아빠는 계속 직장에 다니며 도와주었고, 상점 경영은 주로 내가 맡아서 하게 되었다. 아침에 가게 문을 열어서 오후쯤 시동생이 학교 끝나고 올때까지는 나혼자서 있게 되었다. 새로 시작한 사업이라 물건 구입에 상점정리에 피곤한줄 모르고 온가족이 협조해 주었다. 인계 받은후 얼마동안은 예상보다 매상이 좀 낮은 편이었으나 전주인이 취급하던 고기를 취급치 않으니 그러리라 생각하고, 좀 있으면 나아지겠지하는 전망으로 운영해 갔다.

(계속)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한국일보 안내광고

꽃 집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 751-5851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875 JANE ST. TOR. GIFT취급
●생화, 조화, PLANTS ●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 주문 배달함.
☎: B) 769-0609
R) 221-0560 여 정 용

꽃 집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85 님따·김

기 타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 촬영
○각종카메라·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증명사진
619 Bloor St.W. Tor. ☎: 534-1085 김 춘 탁

다이아몬드·스타
공장가격으로 특별우대, 주문에 의해서 보증서 책임
신용본위 ☎: 537-0432(B), 534-3346(R) MR. LEE

SUREKILLER
각종벌레, 개미, 바퀴벌레: 100% 효과보장
☎: 368-9018

번역 통역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203 TOR. M4A 2R1 ☎: 759-9505(5시이후)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PICTURE FRAME WAREHOUSE
각 종 액 자
32A REXDALE BLVD., REXDALE ☎: 746-2120 조 혜 숙

새한칼라 현상소
●결혼 ●돌사진 ●각종 증명사진 ●회갑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630 BLOOR ST. W. TOR.
☎: 535-7772

SOME JEWELLERY 소메쎄리
●각종보석주문(공장도가격), ●옛보석을 새보석으로
●데자인, 보석수리(일본말 환영)☎: 225-4641

니폰·비데오 센터: 많은 한국테이프가 새로구입
주6일 오픈. 1993 DANFORTH AVE. TOR.
☎: 698-0633 하마구찌

한국인의 빈대떡, 통닭 전문:
각종 샌드위치 주문환영
☎: 537-0432 미스타 리

Young's JEWELLERY ●보석전문가(보석주문, 감정, 뉴디자인, 개조, 수리일체) ●도매시세로 최고 품질을 최저 시세로 매매(책임보증)☎ B) 284-9325 R) 281-1954 Mrs남

아십니까?
안내광고란의 위력을….

양 장 점

쉘터의 상실
숙녀복, 파티드레스, 웨딩드레스, 단체주문환영
☎: 535-4441 606 BLOOR ST. W. 디자이너 MR. 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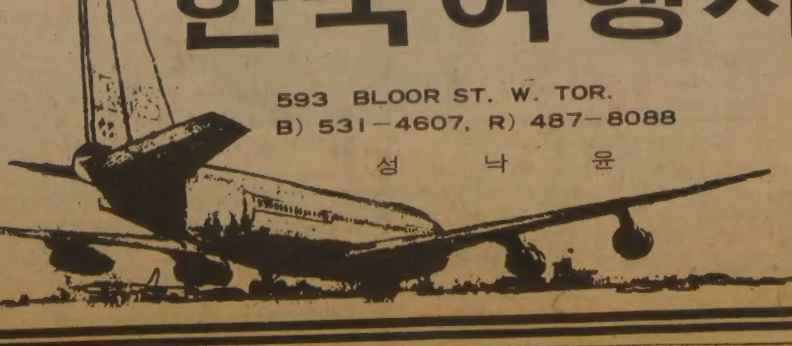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합기도장:
2188 BLOOR ST. W. 사범: 손명수
(AT RUNNYMEDE써브웨이) ☎: 763-1155

IATA

즐거운 서울방문
알찬 여행계획

*저렴한 모국방문 항공표
*특별요금 이민 항공표
*중남미 구라파 여행표



한국여행사

593 BLOOR ST. W. TOR.
B) 531-4607, R) 487-8088
성 낙 윤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정력감퇴,
각종보약.
678 BLOOR ST.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THE KOREA SHWLL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
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81

구 인

입주해서 애기봐 주실분 구함
☎ : 533-9061 , 241-4384 Mrs. 임

접시닦기 구함
☎ : 960-9035

스포츠 웨어 공장에서 일할 경험있는 재봉사
모집(약간의 영어 요)
☎ : 746-0054 (FINCH & WESTON)

가게헬퍼 파-타임 구함 (오후5~11시까지)
QUEEN ST.E
☎ : 466-3995 Mr. LEE

성실한 분으로 도너스 샵 매내저를 구함.
스카보로 지역
☎ : 282-0634

영어에 능통한자로 1년6개월이상
MEDICAL SECRETARY로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
연락처 : 493-4468

집봐주실 할머니 원함(침식제공)
할아버지 한분만 지키고 계심.
☎ : 669-5084 Mrs. 최

입주하여 애기 봐주실분 구함 : 볼링톤(볼링톤지역
출퇴근가능)
☎ : 665-2866(토론토), 639-2736(볼링톤)

유경험자 여자 캐쉬어 구함
OAKWOOD & DAVENPORT
☎ : B) 656-3020, R) 960-0761

맥스밀크에서 일할 캐쉬어 구함
☎ : 244-5248

자수기계 OPERATER구함
경험있는 분은 월급이 많음
☎ : 769-4726

맥스 밀크에서 주말에 일할 경험있는
성실한 캐쉬어 구함.
☎ : 633-5231

오전 풀타임 여자 캐쉬어 구함
시간당 $4
☎ ; 638-2553

봉재사 급구(고급 브라우스,스카트,바지)시간당 $4 이상
다림질 하실분 홈워커(고급양장), 고소득
292PARLIAMENT(DUNDAS에 가까움) ☎ : 362-2300

입주하셔서 애기 돌봐 주실분 구함.
☎ : 535-4441 MRS. 김

입주하셔서 두아이와 살림을 도우실분 구함 :
주 : 210달러 드림
☎ : B) 248-4013, R) 244-0765

웨이터 1명, 웨이트레스 1명, 주방헬퍼 1명
구함.
628 BLOOR ST. W.

경험있는 여자캐쉬어 구함(풀타임,파트타임)
261 SCARLETT RD.
☎ : 767-0762

경험있는 FULL TIME 남자헬퍼 구함.
☎ : 597-1115

"봉재사 급구"
●환경조건 좋음, 새기계만 사용, 다운타운에 위치.
●일감보장(경험있는분 수입보장)
●이미많은 한국인이 일하고 있음
IRVING POSLUNS DIVISION OF DYLEX LTD
☎ : 446-1346(Mrs. 아버)

매매및 양도

TUCK SHOP 매매(아파트밑에 있음)
☎ : 244-0966(아침9~12시, 저녁6~10시사이)

동양식 레스토랑을 하기위한 좋은기회
L. C. B. O. 라이센스 있음. $300,000이상, 번영하는
MUSKOKA에 있음. 그외 여러 좋은 장소에도 있음.
CLARENCE LABOSSIERE
☎ : 705-326-7468

KNOB HILL FARM(러빌 팜)안에 있는 가게
세놓습니다.
☎ : 278-3975 270-7072(6시이후)

몬트리얼이나 유럽에 있는 빌딩이나 회사를 사는데
투자하시기를 원하시면 연락바랍니다.
4521 PARK AVE. SUITE 320, MONTREAL, P. Q.
MONTREAL MANAGEMENT SERVICES Co.
☎ : 849-0959, 7374~6

성업중인 레스트랑 매매 : FAST-FOOD
가정형편상 급매코자 함, 2층 2 베드룸 있음.
☎ : 255-6424 MRS. 김

그로서리 &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479 WEST MOUNT AVE.
☎ : 653-4633 (Mrs. 코메스)

스토아달린 빌딩 팝니다.
☎ : 653-4633
Mrs. 코메스

T. V. 스테레오 최급전문 : 연매상 45만달러
아스킹 $7만+스탁
☎ 533-2400 미스타 김

매매 ●도나스 캐비넷 셋트
●성업중인 햄버거 레스토랑15년 리스
☎ 535-2804 미세스 김

크로스웨이 꽃집(선물)팝니다
가격 : 17,000달러. 영업시간 짧고
일요일 휴업
☎ : 535-1355

이윤 좋은 가게 팝니다
(+집)
☎ : 465-4385

가정형편상 작은 스토아 매매
2층에 살림집 RENT :
☎ : 656-7753

①버라이어티(핀볼17개 포함, 주6일)
②그로서리(주6일)
③FISH & CHIPS(주5일)
☎ : 481-3443, 745-5485 황 순 일
Canada Permanent Trust CO. REALTOR

여자혼자 운영할수 있는
쉽고 이윤이 좋은 세탁소 급매 합니다.
2687 EGLINTON AVE. WEST.
(직접내방요망) 미세스 강

사무실 투자 : 롱 리스
액설런트 TERMS
☎ : 675-3744, 249-5442

이주관계로 팝니다. 희망자방문요
햄버거 FISH & CHIPS, STEAK식당,
6일매상 2,000달러(일요일 휴무)
23 HELENE ST. N. MISSI.
☎ : 274-7010 CENTURY BURGUR

성업중인 햄버거 샵 팝니다
☎ 530-0748 DAVID

T. V. & STEREO BUSINESS FOR SALE
●HIGH PROFIT, ●고급물품 전문메이커 취급,
TRAINING시킴, ●PREMIUM LOCATION.
●VIDEO TAPE MACHINE BUSINESS전망
●ASK. MR전, MR. 진 ☎ : 745-5555

그로서리와 미트스토아
약 $1000,000. 두 아파트를 포함해서 잘설비되 있음.
최적의 위치 HENRY ZWIERS에게 연락
☎ 705-326-4131
WALTER DEAN REAL ESTATE LTD.
107 MISSISSAGA ST. E. ORILLIA, ONT.
☎ : 705-325-6193

(1)빌딩(2층벽돌빌딩)
벽난로2개, 차고4개, 많은차가 주차할 수 있음. 파킹LOT
아스킹 : $210,000 제1모게지 : 62,000(10과2분의1%)
(2)벽돌 방갈로 하우스
5년(12%모게지)
벽돌난로, 3베드룸, 큰리빙룸, 다이닝룸, WORK SHOP
CALL DOVIS BURDA
☎ : 763-5555, 255-3038(CHOLKAN 복덕방)

이삿짐및 운송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바우종합광고회사
간 판 부 : 각종전광/아크릴간판 현수막 윈도우사인
그래픽디자인부 : 원색Catalog/Brochure/팜프렛/포스터/
상업도안/신문광고디자인 제작대행
인테리어디자인부 : 일반상점 실내장식.
건축설계 상담및 시공
인 쇄 부 : 특수인쇄/도서(책자)편집출판 '82년도 호화판
한국달력주문제작중
T. P. ADVERSITING GROUP
OFFICE : 637A BLOOR ST. W. TOR.(온하보석상 옆)
공 장 : 287 Horner Ave. Etobicoke.
전 화 : 535-0647, 465-1722 대표 : 송 관 현
시외지역 전화문의및 무료출장견적 환영

미 용

스 타 미 용 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로 마 노 미 용 실 감 조 자
330 DIXON RD. W. (B) 248-2957
(ISLINGTON과 KIPLING사이) (R) 247-6875

소 니 아 미 용 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킴스 미용실
☎ :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 하우스 뒤)

헬 렌 미 용 실 미세스 리
377 ALBION RD. REXDALE (B) 741-7829, 742-8731
한국식품서부지점에서 동쪽2번째 시그날에서 내리면 됨

매매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주택전문 ☎ : (B) 752-3111, (R) 298-2546
곽 석 용

시설및 수리

집수리 · 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 : 669-5784 미스타 심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 : 438-3795 김 영 호

전기시설 · 보수 : 각종냉동기, 에어콘
CANKO ELECTRIC CO. 270-3118 오 현 구

자동차유리 : 전액무료(보험+회사)(NO DEDUCTIBLE)
자동차 실내외 장식, MOON'S AUTO TRIM & GLASS
☎ : 638-0656(KEELE & FINCH) 정 해 문

상하수도 전기제품 각종유리
PAINT 수리및 시설
☎ : 535-4441 미스타 김

KIMBO ELECTRIC CO. :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보수, 가게신설, 용량증설, 전기일 일절 집, 가게, 공장
☎ :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TV 출장 수리
☎ : 431-0102 미스타 박

인 쇄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 : 244-2301

식 품 점

동 양 식 품
입주일 내내 영업, 일요일도 정상영업 합니다.
(화요일만 오후1시에서 8시까지)
●많은 식품을 준비하고 있아오니 계속 이용해 주십시오
주소 : 1662 JANE ST. WESTON, ONT.
☎ : 248-5131 ● 배달도 합니다.

한 국 식 품
본점 : 721 PALMERSTON AVE. 532-2961
영업시간 : 10AM-10PM, 정기휴일 : 화요일
서부 : 1054 ALBION RD. 742-7711
영업시간 : 10AM-10PM, 정기휴일 : 화요일
동부 : 2810 Eglinton Ave. E. 261-6111
월 화 수 : 9AM-10PM, 목 금 토 : 9AM~12PM
정기휴일 : 일요일
배달도 가능 합니다.

품질좋고 값싼 주7일 영업(오전10시~저녁10시)
금요일은 오전10-밤12시까지,
삼복식품 일요일 오후4-저녁9시 ☎ : 743-8270

악 기 점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547 EGLINTON AVE. W. 이 상 철

조율 수리 SOO PIANO SERVICE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662 김 수 용

약 국

SUPER × DRUGS
☎ : 368-2746
조 남 오

돈 밀 약 국
☎ : 429-4117
이 요 한

여 행 사

한 국 여 행 사
593 BLOOR ST. W.
(B) 531-4607
(R) 487-8088 성 낙 윤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928-3335 김현두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536-2155 김창범

제 일 여 행 사
621A BLOOR ST. W.
535-2377 유지원.

인벤토리

—인벤토리—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INVENTORY
①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②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③ STORE 납세대비 INVENTORY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B)259-5822, 255-8301 (R)252-2963 MR. 오

에어콘·히팅·냉장고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749-3178 김 진 환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환 영

센 추 리 냉 동 원 종 성, 이 인 식
☎ : 221-5441

Palmer's 시설 · 판매 · 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 (B) 746-3840~1, (R) 493-9945 김 봉 균

자동차수리

라지에타 개스탱크 · 히터 · 워터펌프 수리
CITY WIDE RADIATOR CO.
☎ : (B) 245-1978, (R) 248-6032 김 용 환

FRED DOMINELLI BP SERVICE
PICK UP & DELIVERY
873 QUEEN ST. W. ☎ : 366-2673, 366-2206

ROGERS GARAGE ☎ : (R)651-9324
자동차 수리 일체 : (B) 226-5430
20 ROGERS RD. 변 달 원 (R)

자동차 출장수리(오전및 주말) MR. 박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 : 749-9749

※안내광고는 선불을 원칙으로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64 MUNSTER AVE. (BLOOR & 키플링)
☎ : B) 231-6951, R) 742-5408 오 세 호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 595 KEELE ST. TOR. ☎ : 762-3247

FIRST AUTO SERVICE
●메카닉샵 : 튠업, 브레이크, 전기부분
●오토바디 : 토잉써비스, 사고차량 일체수리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 : (B) 532-0200, (R) 533-2157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 : (B) 862-1433, (R) 493-8792 송 참 섭

회계사무소

YOUNG C. LEE M. B. A. R. I. 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CA Office근무중
●BOOK KEEPING & ACCOUNTING
●MANAGEMENT CONSULTING
●INCOME TAX PREPARATION ☎ : 239-6802

공인회계사 이 명 세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AUGA 전화 : 273-7300

이경복 회계사무소
INCOME TAX & BOOKKEEPING 766-5639
COMPUTER SYSTEM 3416 Dundas St. W. Suit 206

한 방 원

안 강 용 한 약 건 재 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진품웅담●녹용●우황청심환●사향●경명주사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465 DUNDAS W.)
☎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서 울 한 의 원
●30여년간 서울에서 한의원 경영
●대한한의사협회장의 한의학발전공로표창장10여회 수상
※진료과목 : 한방내과·신경과·부인과·침구과·산후보약
주소 : 10 Blackfriar Av #216 Weston, Ont. (Kipling × Dixon)
☎ : 247-9347 한의사 : 김 장 석 (황진환)

침 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3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카펫 · 카텐

카펫 크리닝 : 카펫 · 소파 · 체어 · 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삼푸 크리닝

M & M 카 펫
카펫, 리노리움, 비닐, 세라믹타일, 벽지, 인서
레이션, 무료견적봉사
☎ : 536-7875

가나안카텐 · 카펫 브라인드 SHADE
2390 LAKESHORE BLVD. W.
☎ : (B) 252-4857, (R) 252-6602 유 원 덕

꽃 집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안내광고 다른 면에 계속

石油化學정책 全面재검토

國會常委답변 輸出의존서 內需위주로

豫決委 徐錫俊상공장관은『우리나라石油化學이 큰 赤字를 보이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키위해 앞으로 정책적으로石油化學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를 하겠다』고 말하고『石油化學공업을 현수출依存型에서 內需위주로 전환、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3석유화학계획은 종전과같은 콤비나트계획이 아니고 業界자체판단에 의한 단일프로젝트로해 內需위주의 발전을 기하겠다』고 밝히고『플래스틱제품은 외국合作회사를 통해 구입하든지 멕시코와같은 産油國과 장기계약을 맺어 低價로 원료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徐장관은『지난해 석유화학 17개관계회사에서 전체자본의 30%에 해당하는 1천억원의 缺損을 보았으며 금년상반기에 약4백억원의 赤字가 났다』고 밝혔다.

千命基보사부장관은 大氣오염실태에관한 설명에서『0·05PPM을기준 서울은 0·104、釜山0·066、蔚山0·062PPM으로모두가 기준을 초과하고있으며 水質오염은 八堂1·8、뚝섬2·4、永登浦8·2、慶北의尙州1·4、勿禁3·4PPM으로 永登浦의경우 3급기준인 6PPM을 훨씬초과하고있다』고 밝혔다.

그는또『논의土壤을조사한결과 重金屬인 카드뮴、水銀、비소、구리가 기준보다 상회하는 土地가 발견됐다』고 말하고 중금속 오염도조사를위해 전국농경지 1천7백50개소를대상으로 내년부터85년까지 4개년사업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鄭寅用재무차관은『高額예금자에 대한 調査說때문에 險性자금이 急增하고 있다』는 의원들질의에 대해『高額예금자에 대한 조사를한 사실도、그런 계획도 없다』고말하고『市中浮動자금을 산업자금으로 전환키위한 대책을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教育稅 재산稅부가 융통성

서울·釜山등 大氣汚染심각

土壤도 汚染…高額예금자 조사한일없다

국회는 3일 豫決委와 法司 外務 財務 經科 商工 建設등 6개常委를 續開、정책질의를 벌이고 일반 議案을 심의했다. 국회는 4·5일 이틀동안 豫決委와 常委를 休會하고 本會議를 열어 그동안 豫決委와 常委에서 통과된 案件을 처리할 예정인데 4일 本會議에서는 本祐在의원의 辭職書를 처리하고 금년도 追更案과 예비비支出승인의 件을 통과시켰다.

財務委 李承潤재무장관은 3일『재산의 보유및 재산소득에 대해서는 課稅를 강화하겠다는것이 정부의기본방침』이라고 밝히고『이같은 원칙에 따라 현행稅制를 개편하면서 교육財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위해 교육세를 재산세에 부가하려는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법인세는 기업의 재무구조개선과 경쟁력을 강화시켜주기위해 점진적으로 引下할방침이며 술·담배는 適正稅源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李장관은『싯가표준액의인상으로 인한 초과징수재산세 부가분은 징수지역의 교육재정에 轉用케 될 것』이라고 밝혔다.

李承潤재무장관은 3일 국회財務委에서 金鍾基의원(民正)의 교육세및 재산세附加가 조세저항등의 마찰을 불러일으킬우려가 있지않은가라는 질의에 대해『應能原則과 收益者부담원칙에 맞는 稅源이지만 심의과정에서 국회측과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답변, 당초의 정부안에 대해 수정할수도있다는 융통성을 示唆했다.

商工委 朴鳳煥동자부장관은『石油安定基金을 폐지할경우 유가인상요인을 줄일수있다』고 밝히고『그러나 OPEC(석유수출국기구)각료회의에서 결정된 油價單一化의 최종결정 통보를 아직받지 못했기때문에 안정기금 폐지문제를 지금밝힐수 없지만 통보가 오는대로 油價관리제도를 전면재검토하는과정에서 석유안정기금의 存廢여부와 수정幅등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현재 1백30%의 휘발유 特消稅를 인하、油價인상에따른 충격을 흡수하는것이 바람직하지만 관계부처와 협의해본결과 최근의 稅收사정과 재정형편등으로 당분간 特消稅인하가 어렵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말했다.

朴장관은『原油의 유전스去來는 각국에 일반화된 형태로 앞으로도 계속 이거래제도를 채택할수 밖에 없으며 DD거래방식을 GG거래방식으로 전환하는 문제도 産油國사정에의해 변경할수 없다』고말했다.

연탄燃燒器개발 서울서試驗사용

經科委 李應善과학기술처차관은『현재燃燒초기2시간동안 7만~10만PPM의 일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연탄燃燒器를 5백~4천PPM까지 줄일수있는 새로운 연소기를 개발, 서울시내 65가구에 시험사용케하고있다』고말하고『가정용연탄가스의毒素제거에관한 연구를 동력자원연구소 과학기술원、학계가공동으로 하고있는중』이라고덧붙였다.

各部處 후속人事 마무리

遞信·서울市제외 局長級 2百12명轉補 32명免職

정부는 3일 문교, 보사부등 8개部處의 局長級등에대한 轉補과견人事등을 단행함으로써 職制가 확정되지않은 체신부와 서울시를 제외하고 34개중앙기관에대한 後續인사를 모두 끝냈다.

지난달 31일부터 시작된 이번 인사에서 대상인원은局長級이상3백명과 총리기획조정실등 폐지되는 기구의 4、5급공무원 1백74명의 재배치인사등 모두 4백74명으로 최종집계됐다.

기구개편에 따른 이번인사로 局長級이상 2백12명이轉補되고 32명이免職、56명이再발령됐으며 직급별로는▲長·次官 8명▲1級 29명▲2·3級 2백63명이 인사대상이됐다.

또 각部處별 3급이상 인사발령자수는 ▲경제기획원 13▲외무부 11▲내무처(본부)5▲재무부 7▲법무부 5▲문교부 9▲총무처 6▲과기처 10▲통일원 24▲원호처 11▲총리행정조정실 4▲비상기획위원회 5▲조달청 4▲농수산부 16▲상공부 13▲동자부 6▲건설부 18▲보사부 4▲노동부 9▲교통부 6▲문공부 11▲해운항만청 9▲農振廳 6▲병무청 11명등으로 집계 됐다.

정부는 高位職인사가 끝남에따라 課長級이하의 각부처별인사와 職制가 확정되지않은 서울시、각市道및 각市道교육위원회의 인사도 이번주안으로 모두 끝낼방침이다.

이날발표된 국장급이상 인사에서는 상공부 洪性佐상역차관보가 제1차관보、車秀明중공업차관보가 제2 차관보로 발령됐으며 黃哲秀장학실장이 장학편수실장으로 전보됐다.

高位·稅務職부터

財産등록대상 모든公務員으로

內務委 修正案마련

국회內務委의 公職者倫理法案6人심의小委(위원장柳尙根의원)는 4일 모임을갖고 그동안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재산등록대상자, 등록의무자 심사기구등에관한 의원들의 의견을취합, 본격적인 조정작업에 들어간다.

6人小委는 그간 몇차례회의를거쳐 小委修正案을 만들기위해 의견을 절충했으나 與野의원간에 의견이 엇갈려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못했으나 이들문제에관한 부분적인 修正에는 의견의 일치를보았다.

등록대상자의 경우 장관、국회의원등 高位職과 3級(前직제) 정부투자기관장으로 되어있는 政府原案을 全公務員으로 확대하는대신 政治職 고위공무원과 稅務職등 汚染度가 높은 공무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단계적으로 대상범위를 넓혀가는것으로 알려졌다.

또 등록재산에 있어서도 動·不動産을 모두 포함시키되 수량과 금액은 대통령令으로 정한다는데 대체적인 의견접근을 본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등록의무자에 대해서는 여당의원들은 본인과 배우자 및 直系卑屬으로 되어있는 原案을 대체로 지지하는 반면 야당의원들은 직계비속으로 축소하자는 안을 주장하고있다.

국제蹴球연맹 會長 全대통령 接見환담

全斗煥 대통령은 3일상오 청와대에서 국제축구연맹(FIFA)의 조앙·아벨란제회장(브라질人)을 접견하고 환담을 나눴다.

이자리에는 李奎浩문교부장관 崔相鎬대한체육회장 崔淳永대한축구협회장 카반국제축구연맹부회장이 배석했다.(사진)

콜럼비아號 오늘發射

宇宙왕복船 再使用長征

燃料注入·카운트다운 順調

【케이프카내베랄(美플로리다州) 2日UPI=聯合】4일 상오7시30분(한국시간 하오9시30분·이하같음) 제2차 우주왕복비행에 나서는 콜럼비아호의 발사를 앞둔 카운트다운이 순조롭게 진행되고있는 케네디우주센터의 과학자들은 2일 콜럼비아호에 액체산소와 수소연료탱크를 완벽하게 부착시키고 연료주입작업에 들어갔다.

콜럼비아호의 조·이글리 처드·트룰리등 2명의 조종사는 이날 간간이 비가 뿌리는 속에 케네디우주센터의39A발사대에 도착、출발을 앞둔 마무리작업을 지켜보았으며 이들은 4일하오1시 콜럼비아호에 탑승할계획이다.

콜럼비아호 연료탱크에 일단 연료가 완전히 주입되는 3일하오3시부터 카운트다운작업은 8시간동안『정지』되며 이사이 조종사와 과학자들의 우주선회총점검이 실시된다.

이글선장과 트룰리조종사는 3일하오7시 취침、4일상오4시 기상한다.

★관련기사6면

◇4일상오 우주왕복선 콜럼비아호를 타고 제2차 비행에 오를 조·이글공군대령(왼쪽)과 리처드·트룰리해군대령(오른쪽)이 2일 플로리다州 패트릭공군기지에도착 마이크앞에서 포즈를 취하고있다. 【패트릭공군기지 (美플로리다州) 2日AP합=聯合】

「立冬추위」가 온다

7일께 첫추위 零下예보

늦가을비가 멎자 立冬추위가 닥친다.

중앙관상대는 3일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그치자 4일 아침 최저기온이 예년보다2~3도 가량낮은 1도~7도까지 내려가고 立冬인 7일을전후에 영하로떨어져 첫추위가 되겠다고 예보했다.

관상대에 의하면 기압골이 동쪽으로 빠질 4일은 전국이 찌푸린 날씨를 보이다 하오늦게부터 개겠으나 기온은 점차 떨어져 5일 아침에는 서울2도 春川0도 光州3도 大邱4도등 쌀쌀한 날씨를보이다 6일에는 서울을비롯한 중부내륙일부와 大關嶺등 영동산간지방은 모두 영하의 추위가 닥친다.

한편 지난2일 새벽부터전국에 내린비는 3일하오현재 江陵 64·1㎜를 비롯 東草·大關嶺 48·6㎜ 서울 23·2㎜ 仁川 12·4㎜의 강수량을 보였고 국립공원 雪嶽山등에는 2일밤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大靑峰은 10㎝의 눈이 쌓이기도했다.

北傀에 항의문傳達

유엔司 銃擊도발에

유엔군사령부는 지난달31일 鐵原서북방 비무장지대에서 북괴가 자행한 총격도발 사건을 항의하는 전문을 3일 공산측에 보냈다.

유엔司는 정전위 공동일직사무소를 통해 전달한 이 항의문에서『이사건은 북괴측이 먼저 한국군초소를 향해 총기를 발사함으로써 일어났다』고 밝히고『유엔軍측은 자위를 위해 반격을 가하지 않을수 없었다』고 사건진상을 밝혔다.

유엔司는『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모두 공산측에 있다』고 전제하고 사건진상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를실시할것과 이같은 사건의재발을 방지하기위한 적절하고 분명한 조치를 취하라고공산측에 요구했다.

阿洲에 經協外交 강화

盧外務 北傀선 支持기반확보 안간힘

정부는 아프리카대륙이 非同盟회원국전체의 46%를 점하는 主勢力權임을 중시、아프리카지역에대한資源및經協외교를더욱강화할방침이다.

盧信永외무장관은 3일 국회外務委보고를 통해『아프리카는 그 量的勢力으로 인해 국제무대에서 중요한위치를 차지하며 우리를 국제무대에서 孤立化시키려는 北傀책동의 主戰場』임을 강조、『아프리카를 무대로한 南北韓대결은 바야흐로 心理戰내지 消耗戰의 양상을 띠고있다』고그절박성을지적했다.

정부는 특히 내년9월이라크의 바그다드에서열리는 非同盟頂上회담을 외교목표로 겨냥, 非同盟회원국의 半을 차지하는 아프리카地域에 대한 집중공략을 가일층강화할 방침이다.

盧장관은 이날 구체적인對아프리카 외교정책의 강화방안으로▲木材·原油·鑛産業및 원양어업등 자원개발과건설·합작투자사업을 강화하고▲경제·사회·문화분야에 인사교류를 촉진、아프리카와의 정신적 유대를 강화하며▲北傀편향의 주요국가를선정、정부차원의 經協을 중점적으로 강화시킬 방침이라고밝혔다.

盧장관은 특히 나이지리아、케냐、아이보리코스트、스와질랜드、말라위등은 앞으로유력한 합작투자 대상국이라고 전제、『民間經協을 통한 협력관계를 우선적으로 추진해나갈방침이다』고말했다.

社會漫評

超大異動

地平線

한국 정전위원회 중립국 감시위원단에 배속된 체코士兵이 板門店에서 미국에 정치적亡命을 요청했다. 亡命은 asylum, 혹은 from, sylum(… right of seizure) 즉 체포의 권리에서 벗어난다는뜻이다. 옛날엔 빚을 많이진 채무자가 寺院에숨으면 잡을수 없는것을가리켰는데 현대에 와선 뚜렷한 정치적 피신의 권리를 말하게 된다。정치적、사상적、종교적、인종적、민족적차이에서 오는 박해등 신변의 위협을 피하기위해 본국에서 빠져나가는 행위를 말하게된것이다.

▼교회나 국가 지배층의 탄압을 벗어나고자 미국에 건너간 淸敎徒、프랑스革命으로 외국에 피신한 亡命貴族、旣成秩序의 顚覆이나 民族獨立革命을 기도하다 본국에서 탈출한 혁명가、나치나 공산당통치를 싫어 집단으로 나라를 등진 유태難民、베트남避難民등이 모두 그대상에 해당된다。우리나라에있는 정전감시단은 폴란드、체코、스웨덴、스위스군으로 구성되어있고 체코군은 少將을 단장으로 장교7명과 사병1명이 있다。그런데 체코士兵이 왜 亡命을 요청했는지는 아직 경위가 잘 알려지지 않았다。

▼하나 자기이름을 스스로 잊어버리는 亡命=亡名을 체코士兵이 택한데는 그나름의 정치적이유가 있을것이 분명하다。基本的 人權이 보장되고 民主化가 진전된 자유사회에선 망명이 드문데 체코는 공산국가인만큼 그士兵이 자유의 가치를 한국복무중에 이모저모로 깨달아 눈을 떴는지 모르겠다。현대국가에선 亡命한 사람을 국제적 慣行으로 政治犯罪人不引渡原則에 따라 보호해주는것이 상식이므로 이번 체코兵士의 정치 망명요청을 받은 미국측에서 허용해줄 것은 확실해보인다。

▼世界人權宣言 14條에는『사람은 모두 他國에서의 迫害로부터의 避難處를 他國에 求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憲法에도 亡命者의 保護規定까지 두고있는 나라도 많다。亡命하면 甲午更張의 金玉均도 생각나지만 辛亥革命을 일으킨 孫文、文學者로는 凱旋門의 레마르크、抒情詩人 하이네도있다。또 亡命과 함께 생각나는것은 亡命政權이다. 8·15이전 중국에있던 우리臨政도 말하자면亡命정부였고 2次大戰때 런던에있던 드골정부도 亡命政權의 하나였다。

▼자유와 공산통치의 兩端을 함께볼 수 있는 정전감시중립국위원단의 士兵이 눈으로보고 귀로직접들어 자유가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된끝의 決斷이 이번의 亡命이라고할수있겠다。양쪽땅에 마음대로 드나들수 있는 정전감시위원단 소속인 공산측 체코士兵이 자유진영에 정치적망명을 택한것은 비록 유명인사는 아니라할지라도 그 의의는 적지않을 것이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한국관
연중무휴
AM11시 새벽1시
특별메뉴
●식욕을 돋구는
된장찌게정식
순두부찌게정식
생선찌게정식
민어매운탕
즉석불고기정식
즉석곱창전골정식
곰탕, 꼬리곰탕
입반죽 냉면
비빔냉면
회냉면
중국요리일절
결혼피로연, 환갑동창회
각종회의, 단체손님환영
※회의실 60석
성심 성의껏 열가로 봉사하겠아오니 왕림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나옥녀 올림
531—0277

중앙 AUTO
-SERVICE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TOR
532-3946 길창세

TELEFUNKEN

⊙HR5500 RECEIVER
2X60 WATTS RMS
POWER BANDWIDTH
5-50,000H
⊙DIRECT DRIVE TURNTABLE
⊙HICOM CASSTE DECK
⊙2X90 WATTS 3WAY SPEAKERS

SPECIAL SALE
특별할인

FEATURES:
BRAUN P-1 TURNTABLE: Quartz Lock Direct Drive Fully Automatic, With Low Mass Tone Arm and Brauh Magnetic Cartridge
BRAUN T-1 TUNER: Digital Quartz Lock With 9 Presets, Pll Mosfet Front end, AM-FM-LW.
BRAUN AMPLIFIER: Low Distortion DC. Amplifier, 55 Watts Per Channel, Led Output Levels.
BRAUN C-1 CASSETTE DECK: 3 Motor, All Solenoid, With Convenient Motorized Cassette Drawer, Metal Tape Capability
BRAUN L-1030/4TC: 3 way Speakers With 110 Watts Handling Capacity.

Pure design, Pure Sound··· Pure Braun
BRAUN
※81년도 유럽 전기제품 디자인상 수상

WEST지점
전 광 재
3467 WESTON RD. FINCH
745—5555

EAST지점,
김 정 운, 전 병 걸
255 MORNINGSIDE AVE.
282—2820

아카데미 T.V.& STEREO CO.

후세인、사우디平和案 지지

레이건과會談 "考慮가치 充分"

"아랍圈은 積極的 對處를" 파하드皇太子 "對이 優位性지켜야"

【워싱턴2日AP=聯合】訪美중인 후세인 요르단王은 2일 레이건 대통령및 알렉산더·헤이그국무장관과 연쇄회담을 갖고 ▲中東平和문제▲사우디아라비아의 최근 中東平和案등을 논의했다. 후세인王은 회담이 끝난뒤, 『사우디의 8개항 中東平和案은 우리가 이미 오래전에 채택한 입장들과 근본적으로 맥락을 같이한것』이라고 지적하고 따라서 『이는 충분한 고려의 가치가 있는 일종의기여』라고 선언했다.

◇후세인夫妻 白堊館방문 기념촬영 레이건美대통령부처가 2일 백악관에서 美國을 방문중인 후세인 요르단국왕부처와 함께 만찬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있다. 【워싱턴 3日AP電送=聯合】

레이건 대통령은 취임후처음으로 백악관 집무실에서가진 후세인왕과의 회담에서中東平和를 위해 『美·요르단양국의 합심협력이 긴요하다』고 밝힌것으로 美행정부관리들이 전했다.

후세인왕은 이회담에서 이스라엘의『非타협적 태도』에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한편 팔레스타인이 中東平和협상의 당사자로 포함되어야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고 美정부의한고위관리가전했다.

후세인왕이『中東平和의 요체는 예루살렘의 지위해결』임을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관리는 회담후 뉴스·브리핑을 통해 美國은 요르단이 캠프데이비드平和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기꺼이 환영한다고 밝히고 그러나 요르단의 참여에는 ①이스라엘측의 반대 ②팔레스타인自治협상의 교착등 두가지 장애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美관리들은 후세인왕이 아랍盟邦들과의 관계를 손상시키면서까지 캠프 데이비드협정을 지지하지는 않을것이라는비관적 견해를 피력했다.

【지다2日AP=聯合】파하드사우디아라비아황태자는 2일 아랍국가들이 33년묵은 中東분쟁을 다루는데있어『행동』을 적극적으로 취하기보다는『거부』나 소극적인『반응』으로 일관해왔다고비난했다.

그는 이날 관영 사우디통신과의 회견에서 사우디가 제시한 8개항 中東평화안에 대한 비판을 반박하는 가운데 아랍국가들이 『정의는 우리편이며 세계는 양심을 지니고 시온主義 침략자들로하여금 점령지역을 합법적소유자에게 반환하도록 압력을 가할것』이라고 믿었으나 이는 잘못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67년의 전쟁으로 아랍측이 또다시 강타당하고 그결과는 이스라엘에의한 보다많은 아랍영토의 점령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면서 이때 아랍은『정당의 법칙』에 의해 지배받는『국제적 놀음』과 『세계 세력균형의 비밀』을 서서히 알기시작했다고말했다.

사우디 美에 軍事施設 사용許容

페르시아灣 非常사태 돌발할때

【워싱턴2日UPI=聯合】사우디아라비아는 페르시아만에 대한 소련의 무력개입과 같은 비상사태발발시 미군에사우디의 군사시설사용을 허용할 것으로 미국과 양해가 되어있다고 美국방성이 2일밝혔다.

벤저민·웰즈국방성대변인은 또 미국이 앞으로 페르시아만국가들과 이 지역에 대한 美전투장비들의 사전배치 및 페르시아만국가들의 방위를 위해 방위협정을 체결하기를 바라고 있으나 아직 어떠한 국가들과도 이러한 협정을 체결한바 없다고 강조했다.

波파업사태 鎭靜돼 12萬명 직장복귀

【바르샤바2日AP·路透=聯合】광범위한 파업과 항의운동을 벌여온 폴란드자유노조소속 노동자들은 폴란드의회의 파업중지요구와 바웬사를 비롯한 자유노조지도자들의 간곡한 파업중지호소로 2일 약 12만명의 노동자가 직장에 복귀하거나 항의운동을 중지함으로써 14개월래 최악의 폴란드노동사태는 점차 진정될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바웬사는 이날 남부타르노브르제그지구를방문, 파업노동자 대표들에게 『자유노조 단합의 명예를 걸고』 파업을 중지하여 『정부와의 협상의 바탕』을 마련해줄것을 강력히 호소했다.

中共、國號바꿀수도 國共合作의 일환

【臺北2日AP=聯合】중공은 國共합작계획의 일환으로 국호를 「연방공화국」으로 개칭할지 모른다고 2일 대만의 영자지 차이나·뉴스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대만의 정보보고서를 인용, 중공에서는 현재 2개의 국호가 제의돼있다고 밝히고 그중 하나는 「중국중앙아시아연방공화국」이라고 전했다.

北傀、西方출신女人모아 게릴라訓鍊 平壤부근서、섹스등미끼 再滲透위해

【제네바2日=聯合】유럽과중남미및 중동지역에서 좌익게릴라들의 국제적 테러활동을 배후 지원해오고있는 것으로 알려진 북괴는 최근 수도 平壤근처에 서방출신의 젊은여인들만을 대상으로한 특별게릴라훈련소를 개설, 이들에게 테러 파괴 간첩활동등을 집중 교육시키고 있는것으로 뒤늦게 입수된 9월30일자 서독 디·벨트지가 폭로했다.

이 신문에따르면 이스라엘·방첩기관이 약1년전레바논의 마리야욘에서 체포된 간첩 릴라·할리드란 25세의 레바논 여인을 親이스라엘 레바논기독교 민병대로부터 인수받았는데 이 여인이 신문에서 자신이 平壤근교의 여자첩보요원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다면서 이훈련소의 내막을 폭로했다.

일행은 모스크바를 경유, 평양에 도착한후 곧 부근 훈련소에서 세뇌공작을 시작으로 각종 훈련에 들어갔다.

훈련소측은 그들이 노리고 있는 각종 테러·파괴공작의 수행과정에서 여자들이 남자보다 유리하다는점에 착안, 여자테러리스트들이 여자라는 매력과 섹스등을 이용하여 용이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방법을 집중지도했으며 또 『결정적 시기에 대비해 적국에잠복, 장기간 대기하는』 이른바 소련식 『잠자는 공작원』 훈련을 실시했다.

스위스 경찰에따르면 북한에는 현재 10개소의 각종 테러훈련소가 22개국으로부터 차출된 피훈련생들을 대상으로 각종 게릴라전을 가르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브레즈네프書記長 來22일 西獨방문

【본2日AP=聯合】소련공산당서기장 브레즈네프는 슈미트 서독수상과 東西군비경쟁및 군축문제를 논의하기위해 오는22일 당초보다 2일늘어난 4일간의 서독공식방문을 위해 본에 도착한다.

브레즈네프는 이번 방문기간중 소련이 모든 SS20미사일을 우랄산맥후방으로 철수시킬 만반의 준비가 되어있음을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고 서독의 시사주간 델·슈피겔誌최신호가 2일보도했다.

蘇도 能力給制채택 유능자엔 50%추가

【워싱턴2日=聯合】소련당국은 요즈음 생산성향상에 공이 많은 근로자들을 우대하는 능력위주의급료체제를 도입하는등 전례없이 과감한자본주의적 경제활성화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지가 2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모스크바발신기사에서 소련당국이 능력있는 근로자들의 급료를 다른 사람들보다 50%가 많은 수준으로 끌어올려 그들의 생산의욕을 격려하는식의 급료체계를채택하고있다고전했다.

메아리

안나푸르나峰

영국의 이름높은 등산가에게 당신은 왜 그고생을 하고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산에 오르느냐고 물었더니『산이 거기에 있으니까』라고 대답했다는 얘기는 등산이 지니는 묘미를 설명한 말로 널리 알려져있다.

등산이란 등반하는것에 기쁨을 느끼고 높은산을 정복하는 스포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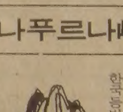
우리도 고대로부터 높은 산을 숭상하는 산악신앙이 있었고 신라의 육부촌장들은 산마루 바위에서 국사를 논했다.

특히 신라는 3산과 5악을 제가끔 제사지내며 산을 섬겼고 성서에서도 모세는 하나님과 접하고자 시나이산에 올라 묵상을 했다고 적혀 있듯이 사람과 산과는 동서나 고금을 가릴것 없이 서로 깊은 관계를 지니고있다.

그러나 등산의 기원은 15세기께로 알려지고 있으며 근대스포츠로서의 등산은 1850년께 알프스에서 비롯되었다.

그런데 히말라야를 가장 먼저 주목했던것은 영국이었으며 영국의 등산대가 세계서 제일 높은 산인 히말라야의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한 것은 1953년5월29일의 일이다.

엘리자베드여왕의 가장 큰 즉위선물로 생색이 났던 이 에베레스트의 등정은 그 첫 시도로부터 30년만의 쾌거였고 도전 8번째의 성공이었으니 목적을 이룩하기 위한 그사이의 꾸준한 인고와 노력이 어떤것이었나는 짐작되고도 남음이 있다.



이번 成大산악부가 세계에서 8번째로 그리고 한국등반사상 처음으로 네팔 중서부지방 안나푸르나남봉등정에 성공한것은 모처럼의 기쁜 소식이라 할수 있겠다.

안나푸르나 제1봉에 처음으로 오르는데 성공한것은 1950년 프랑스의 등산가 엘조크에의해서 였다. 이때 인류가 8천m급 산정에 비로소 서게 되었다하여 등산가는 말할나위도 없고 일반시민에게 까지 짙은 감명을 주어 등산붐을 유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성대산악부의 쾌거는 우리 산악인의 역량을 널리 세계에 알리는 결과가 되었거니와 새로 개척한 등산로, 즉 베리에이션·루트가 어떤것인지에 대한 전문산악인들의 관심도 크리라생각하여 그 무사귀환을 고대하게 된다.

스웨덴、좌초蘇潛艦 예인

蘇4개항수락 침범경위등 艦長6시간審問

【스톡홀름2日AP·路透=聯合】스웨덴은 1주일째 계속된 소련잠수함조사문제를 둘러싼 소련과의 팽팽한 신경전끝에 1일하오 마침내 소련측의양보를 얻어내자 즉각함장피오트르·구진에 대한 심문에착수하는 한편 강풍에 휘말려 긴급 구조신호를 보내온 이잠수함을 내항으로예인했다.

올라·울스텐 스웨덴외상은 이날 스웨덴의 군사제한수역에서 좌초된 소련잠수함과 관련, 소련측에 ①이 잠수함에 대한 스웨덴의 충분한 조사를 수락하고②이사건에 사과의 뜻을 표명할 것이며 ⑧이같은 선행조치가 취해지면 스웨덴이 잠수함을 구출할것이나 ④구출에 따른 비용은 소련측이 지불할것등 4개항의조건을 제시했다고밝혔다.

외무성은 소련측이 이날하오 스웨덴의 요구를 원칙적으로 승낙한다는 의사표시를 해왔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스웨덴해군전문가들은 구진함장을 카를스크루나해군기지에 있는 스웨덴함정에태우고 6시간동안 소련잠수함이 군사제한수역에 들어온 이유를 집중추궁한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스웨덴외무성은 1차심문이 끝난후『우리는 이조사에대한 시한을 설정해놓고 있지는 않다』고 말함으로써 스웨덴이 만족할만한 답변을 얻어낼때까지는 심문을 계속할것임을 명백히 시사했다.

◇스페인領海에서 좌초한 蘇聯잠수함의 선장 피오트르·구진대령이 스웨덴당국으로부터 약7시간동안 심문을받고 나오고 있다. 【스톡홀름2日AP電送=聯合】

美、中東平和에 兩面작전

사우디案 同調로 새로운 局面에

사다트 死亡으로 캠프데이비드協定은 死藏

穩健아랍 사우디案 支持

不安한 이스라엘의 「엉뚱한 冒險」이 變數로

◇레이건美대통령 (오른쪽)이 10월22~23일 멕시코의 칸쿤에서 열린남북정상회담에서파하드사우디황태자와 만나 반가운 표정을 하고있다. 이자리서 AWACS문제와 사우디중동평화안이 거론되었다.

미국의 對中東평화정책이 전환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레이건美행정부는 조기공중경보기(AWACS)對사우디판매확정후 슬그머니 사우디파하드황태자가 제안한 8개항의 중동평화안에 환영의 뜻을 비쳤다.

미국은 이집트, 이스라엘을 당사국으로한 캠프데이비드협정구현과 동시에 사우디를 앞세워 중동온건국을 설득시키는 방법을 모색하는 등 중동평화구축에 양면공세를 취하고있다.

79년3월26일 미국, 이스라엘, 이집트가 서명한 캠프데이비드평화협정은 이스라엘이 오는82년4월25일까지 시나이반도에서 철수한뒤 가자지구와 골란고원지역에 팔레스타인의 자치를 허용한다는 것을 골자로하고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파하드황태자가 지난8월초 제시한 8개항 중동평화안은, 이스라엘이 67년 제3차중동전 이전지역으로 철수하고 聖地東예루살렘을 수도로하는 팔레스타인 국가를 창설한다는 것이다.

사우디案은 또 이스라엘의 국가존립과 이스라엘을 협상대상국으로 인정하여 이지역내 각국간의 평화공존을 골자로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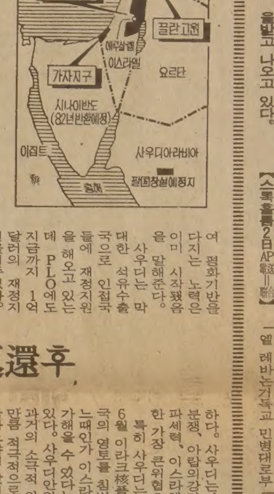
사우디안은 아랍권의 시리아, 리비아등 강경국을 제외한 14개국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당사자인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도 환영의 뜻을 표한바있다. 아랍권의 스칸디나비아제국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10개회원국을 거느리는 유럽공동시장 역시 다음주 회담회서 중동평화를 위한 새로운 접근책의 하나로 사우디의 협조를 모색할것이 예상되어 사우디평화안이 좀더 구체적으로 논의될것으로보인다.

한편 캠프데이비드협정당사국인 이집트의 무바라크 대통령도 사우디평화안에대해『새로운것은없으나 대화기반을제공하고있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최근의 아랍온건국과의 화해 움직임과 함께 중동평화의 방향전환이 일어나고있음을 암시하고있다.

미국이 캠프데이비드협정을 중동평화추구의 유일한 방안으로 간주해온 자세를 지양, 사우디등 아랍온건국을 상대로한 대화를 추진한것은 평화협상의 주역 사다트이집트 대통령의 서거때문이다.

캠프데이비드협정은 이미 아랍의 반대로「깊이 샌」상태이며 사다트의 사망과 함께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것으로 믿어지고 있다.

클로드·셰이송프랑스외상은 사우디의평화안을사장돼가고있는 캠프데이비드협정에활력을불어넣고평화모색을위해또다른새로운노력을시작하도록 연결하는 교량으로 묘사했다.



사우디의 평화안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기는 아무래도 오는 4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시나이반도를완전 반환한 뒤가될것으로 보인다.

사우디는 그동안 온건 아랍국들을 설득하고 미국은 이스라엘의 양보를 얻어내려할것이다.

따라서 AWACS등 85억달러상당 무기판매안의 확정으로 미국과의 유대가 일층 강화된 사우디의역할이 주목되고 있다.

레이건행정부는 2일 미국을 방문하는 후세인요르단왕을 맞아 중동평화타결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그러나 막대한 재정지원으로 사우디 입김이 요르단에 이미 크게 작용하고 있는점을 감안해볼때 미국이 사우디의 등을 밀어 온건파 아랍국들을 차례로 끌어들여 평화기반을 다지는 노력은 이미 시작됐음을 말해준다.

사우디는 막대한 석유수출국으로 인접국들에 재정지원을 해오고 있는데 PLO에도 지금까지 1억달러의 재정지원을해주었다.

지난9월의 레바논휴전에도 사우디는 바로 이점을 이용, PLO로하여금 휴전에 동의케했다.

미국은 바로 사우디의 막대한 재정 영향력의 행사로 아랍온건국을 설득하려하고 있다.

왕정붕괴의 악몽에 시달리고있는 사우디로서도 중동분쟁은 자국의 안보에 결코 이롭지못하다. 리비아등 아랍강경국의 책동에 휘말려 분쟁에 휩싸일경우 사우디가 가장 불안해진다. 최악의 사태에는 소련과군사협정을 맺고있는 이들국가에70년의 이집트경우처럼 소련군이 진주하는 사태를 사우디는 미리 막고 싶어한다. 팔레스타인문제로아랍세계가분쟁에 휩싸이면 강경국이 설치고 사우디의반정세력을충동질할것이뻔하다.

本格협상은 시나이半島 返還후

사우디는지금까지팔레스타인분쟁, 아랍의강경국과국내회교과격파세력, 이스라엘을 자국 안보에대한 가장 큰위협으로 생각하고있다.

특히 사우디는 이스라엘이 지난6월 이라크核플랜트를폭파했을때 자국의 영토를 침범한 사실때문에 어느때인가 이스라엘이 직접 공격을가해올수 있다는위협성을실감하고있다. 사우디안의 성패는 사우디가과거의 소극적 외교자세를떠나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아랍 온건국을 설득하느냐에 달려있다.

사우디는 막대한 석유부를 갖고 있지만 아직 강대국은 아니다. 2백14만9천6백90㎢의 광대한 국토에비해 인구는 고작8백50만에 지나지않으며 문맹률이 높다.

때문에 사우디는 과거 나세르의 이집트처럼 군림해서 아랍세계를 영도하기보다는 다만 엇갈린利害를 조정하고 의견의 合議(컨센서스)를 이룩하는 역할이 더 기대된다.

또 미국이 얼마만큼 이스라엘의 양보를 얻어내느냐도 중동평화의 성패가 달려있다.

사다트사후 이스라엘은『가장 고독한 위치에 처해있다.

관측통들은 사다트죽음후 달라진 정세때문에 이스라엘이 시한인 내년4월25일까지 시나이반도를 이집트에 순순히 반환해줄것인지에도 의심을 표시하고있다.

무바라크가 아랍권내 사다트적들과 화해를 모색하며 사우디와 비밀협상을 벌이고 있는듯한 낌새를 보임에따라 이스라엘은 불안을 느끼고있다. 더구나 미국이 사우디의 평화안에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자 이스라엘은『이스라엘을 점차적으로 파괴하려는 시도』라고단호히 거부하고있다. 【申相碩기자】

◇時價 6億원짜리 회귀우표 競賣

■…西獨 함부르크의 한 경매소직원이 1일 이세계에서 가장비싼 편지한통을 들어보이고있다. 이 편지는 1861년 11월12일자 소인이 찍혀있는데 世界에 몇안되는 회귀한 5센트짜리 청색 리빙스턴우표가 붙어있어 싯가2백만마르크 (한화 약6억원) 나 된다고. 【AP=聯合】

南美·阿洲지역서 잔인한 拷問계속

ICRC報告불로지지기등 政治犯에 더심해

【마닐라2日AP=聯合】최근 남미·아프리카·아시아및 중동지역 일부국가에서는 지난2차대전당시 보다 더 잔인하고 조직적인 고문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2일 공개된 적십자국제위원회(ICRC)보고서가 밝혔다.

이 보고서는 특히 정치범에게 집중적으로 가해지고있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형태의 고문이 신체훼손·불로지지기·질식시키기·정신병동수용·약물투입및 여성의 경우 심지어 강간까지의 각종 형태로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고문의 형태가 날로 잔인, 고도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인권존중을 위한 제네바협약에 서명한 1백개국이상중 20여개국만이 그런대로 이를 준수하고 있으나 나머지 나라의 경우 최소한의 인권마저도 여지없이 짓밟고 있다고 비난하고 지난73년중 ICRC가 각국으로부터 접수한 실종자수는 무려 8만8천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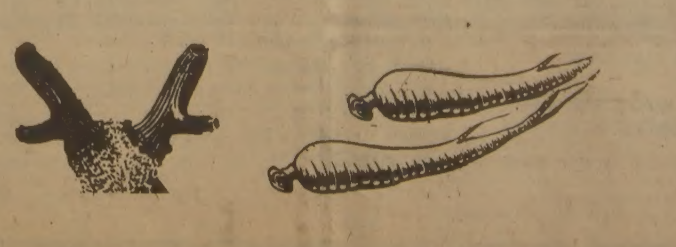
보고서는 ICRC요원들이 지난35년간 전세계 70개국이상의 30만수감자들을 면담했다고 전하고 요원들이 감옥에 들어가기에 앞서 감옥안에서 본 사실은 일체 발설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며 이를 어길경우 추방당하는 사태를 빚게된다고 덧붙였다.

빅세븐선물센타 (구아세아 선물센타)

—GOOD NEWS— 〈기간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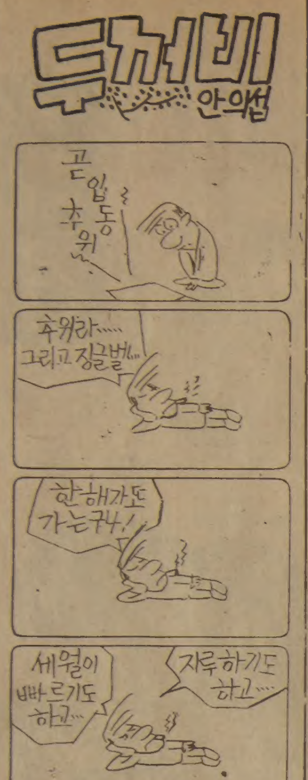
그동안 교민 여러분의 성원속에 날로 성장해온 아세아선물센타는 금번 위와같이 「빅 세븐 선물센타」로 상호를 변경하고, 아울러 "중국본토"로부터 직수입한 「각종 한약재」와 한국의 최고급 「인삼」을 교민여러분께 특별대매출 하오니 일차 왕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산 한약〉
중국길림 흑룡강녹용 1냥 $59.
십전대보탕 1첩 $8.—
북경로얄제리 100정(2병) $20.—
편자황(진품100%) $290.—
우황청심환, 호른환, 웅담, 북경산 위장약등 각종약재, 녹용정



〈밍크및 각종털제품 염가매출〉
●각종 물개가죽 핸드백
●블루·폭스, 레드·폭스, 실버·폭스 목도리및 칼라.
●밍크 숄, 밍크자켙
※이외에도 각종 선물용 구비했음.

678 BLOOR ST. W. TOR. (고려식품 옆) TEL : 533—7966 대표 김 영 철



「뺑소니누명」 男便구출위해 아내가 目擊者 찾아내

"신고한 오토바이에 치었다" 두證人 檢察, 재수사 착수

뺑소니사고 범인으로 경찰에 구속된 운전사가족이 범인이 따로있다며 무고함을주장하자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다。

서울冠岳경찰서는 지난달 5일 서울江南區方背本洞3 85 어린이놀이터 앞길에서 方背국교3년 崔大吉군(9)을 치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뺑소니사건의 범인으로 서울3마9913호 포니승용차운전사 田明燮씨(28·江南區方背1洞92의7)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혐의로 구속, 지난달15일 관할서울지검東部지청에 송치했다。

경찰은 사고당시 놀이터에서 놀던 方背국교 6년 林모군(12)등 4명의 어린이의 『사고당시 田씨의 차번호와 같은 승용차가 지나가는것을 보았다』는 진술에따라 田씨를 범인으로 단정, 구속했던 것。

그러나 田씨는 경찰에 연행된뒤 『결코 범인이 아니다』며 당시 차에타고 있던 차주 朴혜원씨(45)를 증인으로 내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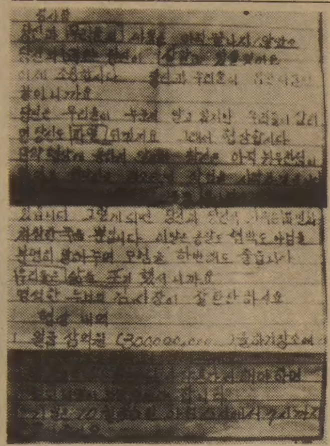
朴씨는 『사고당일 사고지점 20m전방에서 어린이가 오토바이에 치여 청년3명이 부축하고 있는것을 보았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차주와 운전사가 미리짜고 변명하는것이라며 묵살했다。

또 田씨의부인 李善子씨(27)는 남편이 구속되자 사고현장 부근에서 목격자찾기에 나서 지난달31일 『오토바이가 어린이를 치는것을 보았다』는 부근 경남설비공사 金鍾德씨(33)와 金씨의친구 李대용씨(34)를 찾아냈다。

金씨등에 의하면 사고를낸 오토바이 운전사는 자신들의 도움으로 지나가는 트럭에다 친 어린이를 태우고 부근 가야병원으로 옮겼다는것。

부인 李씨는 金씨등의 진술과함께 鄭鍾福씨(32·江南區方背洞)로 알려진 오토바이 운전사가 사고직후 方背洞파출소에가서 『자주색포니승용차가 崔군을치고 달아났다』고 허위신고, 남편이 잡혀간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관할東部지청 李鍾旺검사는 『어린이들의 진술만으로는 田씨의 혐의점을 인정하기가 부족해 3일중으로 田씨를 석방하겠다』고 밝히고 鄭씨에 대해서는 현장검증과 목격자대질등 재수사를 벌여 혐의점이 발견되면 구속할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사장에게 현금3억원을 요구한 2차 협박편지。 둘째장에는 돈을 묻을장소에관한 설명과 약도가 그려져있다。 【大邱=聯合】

"3億원내라" 2차 협박便紙

금복주社長 돈갖고갔으나 犯人안나타나

지난31일 약속한뒷산에 돈묻었으나 그대로

【大邱=聯合】 속보=금복주사장 金洪殖씨집에 현금3억원을 요구하는 제2차 협박편지가 날아들었다。 3일 金사장이 수사본부에 신고해온바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낮 金사장앞으로 우송돼온 이 협박편지에는 31일 새벽5시에서 7시까지 大邱市壽城범어뒷산 숲속에 金사장이 직접 현금 3억원을 묻어놓을것을 요구하고 『잔재주를 피우면 좋지않을것이며 2일 다시 연락하겠다』는 내용을 담고있었다。

약속장소의 약도까지 상세히 그려진 협박편지를 받은 金사장은 즉시 이같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30일새벽 범인들이 지정한 장소에 나가 검은색천으로 표시된 지부근 산속에 현금을 묻어두고왔으나 2일까지 범인은 나타나지 않았다는것。

이 협박편지는 일반편지 2장에 푸른볼펜으로 또박또박 정자로 쓰여져 있었으며 육안으로보아 1차 편지체와 거의 비슷했고 30일자 大邱시신암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었다。

특히 이 협박편지에는 『당신과 우리들의 입만다물면 되니까요。 당신은 우리들이 누구인지를 알고있지만 우리가 잡히면 당신도 파멸되겠지요』라는 내용과함께 『당신은 아직 뉘우친점이 없다고 생각하고 제2단계작업을 시작하겠다』고 쓰여있어 수사경찰을 긴장시키고있다。

경찰은 문제의 2차협박편지에대해 필적감정결과가 나오면 동일범여부가 확실해지겠으나 현재로서는 ▲원한관계자가 현금을요구, 협박을가장함으로써 수사방향에 혼선을 일으키게 하거나 ▲금품을 목적으로한 金사장이나 금복주회사내용을 잘 아는 공장·불량배들의 소행 또는 ▲이사건보도이후 전혀 엉뚱한 제3의인물이 단순한생각에서 글씨체를 모방, 공갈을 했을 가능성등 3갈래측면에서 수사를 펴고있다。

6명전원 執猶 「月精寺사건」公判

【原州=聯合】 春川지법原州지원 安聖會판사는 3일 月精寺신임주지임명을 둘러싸고 시위에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金能慧피고등 6명의 피고에대한 선고공판에서 최고 징역1년에서 최하 8월과 집행유예2년에서 1년씩 각각 선고했다。

피고인별선고형량은 다음과같다。

▲金能慧(전月精寺주지) 징역8월·집유1년▲李香奉(불교신문편집국장) 징역10월·집유2년▲李適行(月精寺전재무담당) 징역1년·집유2년▲李相烈(〃전총무) 징역10월·집유2년▲崔聖壽(〃정법수호위원장) 징역1년·집유2년▲金法會(寒巖보덕사주지) 징역8월·집유1년

신임주지 金東洙씨

【原州=聯合】 대한조계종총무원은 3일 지난7월15일 月精寺신임주지로 발령했던 金能慧스님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에 江陵 松蘿寺주지 金東洙스님을 임명했다。

月精寺분규는 이에따라 일단 매듭짓게 됐다。

중학同窓끼리 強盜團

10代5명拘束 住宅街 20여회 3천만원털어

서울西部경찰서는 3일 衰모군(19·서울鍾路區昌成洞)·秦모군(17·서울鍾路區玉仁洞)·姜모군(19·〃)등 3명을 상습특수강도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金모군(20·서울鍾路區昌成洞)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낮 12시40분께 서울鍾路區嘉會洞41 권광자씨(37·여)집에 들어가 장롱을 뒤지다 권씨가 들어오자 갖고 있던 과도와 드라이버등으로 위협, 현금 4만원, 다이어1·8푼짜리 1개, 손목시계 1개등 60여만원어치의 금품을 털어 달아난것을 비롯, 지금까지 주로 중심가 주택가를 무대로 20여회에 걸쳐 모두 3천여만원어치의 금품을 털어왔다。

이들중 朴군은 아버지가 예비역소장으로 가정이 부유한 편이며 衰군도 부유한 가정으로 지난8월에 대입검정에 합격하는등 머리가 좋고 부유한 가정출신인데 지난9월부터 金군의 꾐에 넘어가 金군등이 강도를 하면 밖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하다 함께 범행에 가담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빗길 過速택시굴러 NHK記者 둘重傷

【南原=聯合】 2일 낮12시40분께 전북南原郡金池面昌山里앞 金池橋입구에서 빗길을 과속으로 달리던 전남1바7678호 개인택시(운전사 崔영만·41)가 높이1·5m의 언덕아래로 굴러 택시에 타고있던 일본 NHK방송국 서울지국장 나까다니·가쓰오(中谷和男)씨(44·서울龍山區漢南洞梨泰院아파트1101호)와 동지국 기자 千學範씨(56·서울江南區盤浦洞新盤浦아파트3동306호)등 2명이 중상을 입고 전북대부속병원에 입원 가료중이다。

◇고 種石 柳光烈씨의 영결식。 5백여명의 조객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일보사 社友葬으로 엄수됐다。

柳光烈선생 社友葬

각계人士 애도속 本社뒷뜰서嚴修

한국일보사빈인 고種石 柳光烈씨의 영결식이 3일상오 10시 한국일보사 뒤뜰에서 한국일보 社友葬으로 엄수됐다。

全斗煥 대통령을 비롯 李光杓문공부장관, 柳重動대한항공사장등 각계각층에서 보내온 조화가 놓인가운데 진행된 이날 영결식은 고인에 대한 약력보고, 조사, 유족 감헌, 분향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조사를 통해 [illegible] 『種石선생은 60여년간 신문과함께 살아왔다』고 말하고 『만년기자, 평생기자로 호칭된 고인은 우리언론사에 길이 남을것』이라고 추모했다。

이날 영결식에는 원로언론인 李寬求, 洪鍾仁, 金乙漢씨등 비롯 언론계에서 [illegible] 大韓매일신문명예회장, [illegible]전新亞日報사장, 千寬宇 민족통일중앙협의회의장, 柳建浩편집인협회장, 鮮于輝조선일보논설고문, 李元洪한국방송공사사장, 趙敬姬, 趙世衡씨, 학계에서 李殷相민족문화협회회장, 趙容萬한국학대학원장, 崔浚중앙대신문학교수, 화가金基昶씨, 도규계원로 金晟鎭씨, 金澤植YMCA명예총무, 黃年代 正立회관장, 徐永勳 YMCA이사간, 정·관계에서 [illegible] 許文道 청와대정무비서관, 李秀正비서관및 張康在국회보좌관을 비롯한 현·전직사우등 5백여명이참석,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고인의 유해는 영결식후 가족·친지·사우들에 의해 경기도高陽郡一山의 선영으로 운구되어 안장됐다。

日오픈 배드민턴 來年1월 고오베서

【도오꾜2日AP=聯合】 제1회 日本오픈배드민턴선수권대회가 세계26개국의 톱랭킹가운데 82년1월14일부터 17일까지 日本고오베에서 개최된다고 日本배드민턴협회가 2일 발표했다。

상금총액 1천만엔이 걸려있는 이대회에는 韓國의 黃善愛를 비롯, 세계일류급선수들이 모두 초청되었으며 中共과 臺灣도 함께 초청되었다。

배드민턴 5輪채택 韓國側과 협의用意

日배드민턴協會長

【도오꾜2日發=聯合】 사꾸라우찌·요시오(櫻內義雄) 日本自民黨간사장은 2일 자기는 배드민턴의 올림픽종목채택을위해 노력할것이라고 말했다。

사꾸라우찌간사장은 이날 日本배드민턴협회장에 취임한후 그같이 밝히고 자기는 적절한 시기에 韓國을 방문, 韓國측 관계자들과 이문제를 협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柳泰慶 4백m서 銅

日주니어五輪육상 50초07로

제12회 全日本주니어올림픽육상경기선수권대회(10월31~11월1일)에 출전한 한국선수단은 4백m에서 柳泰慶(晋州中)이 50초07로 銅메달을 차지했다고 선수단이 협회에 알려왔다。 또 투포환의 安寶榮(冠陽中)도 14m22로 3위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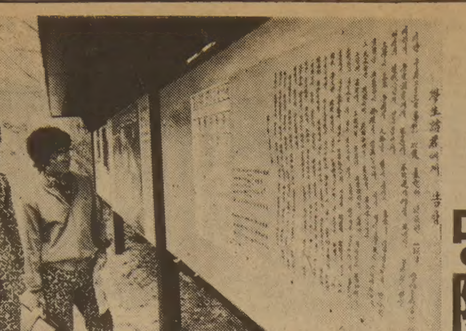
꽃도매상
437 CARLAW ST.
☎ : 465-8167

한국일보
533-2361~4

서울大騷擾관련 65명學事懲戒

7명除名·47명무기停學…지난달 6명除名

서울大는 3일상오 학장회의를열고 지난주 대학축제기간을 전후해 있었던 교내시위및 폭력사태와 관련, 경찰 연행학생중 7명을 제명하고 47명을 무기정학, 11명을 유기정학 처분하는등 65명을 학사징계했다。 서울大는 이에앞서 지난달 23일의 시위사태 주동학생으로 구속된 李相大(사학교육과4) 朱泰麗(여사교육과4) 辛秀烈(사회학과4) 秦榮孝군(교육학과4)등 4명과 수배중인 2명도 제명한바있어 이들을 합치면 징계학생수는 71명이 된다。



◇서울대 교정에 게시된 경고문을 학생들이 읽고있다。

"냉정되찾아 學問전념" 警告文

이들의 처벌기준은 제명된 주동자는 과거에 근신, 무기정학등 처벌을 받았던 학생이고, 무기정학은 구류처분을 받은학생, 유기정학은 훈방된 학생들로 알려졌다。

한편 학교당국은 이날 학생들의 자제를 호소하는 경고문을 총장이하 학·처장, 단과대학장, 대학원장명의로 교내에 게시하고 학부모들에게도 각단과대학장 명의로된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학생들의 지도에 전념해줄것을호소했다。

교내에 게시된 경고문전문은 다음과같다。

『학생제군에 고함。

지난23일 일련의 학내시위사태 이후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학내시위사태에 대하여 학생제군에게 경고가 불가피하게 상황이진전된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대학은 원래 학문과 인격을 닦는 동시에 미래의 지도자로서의 종합적자질을 함양하는 수련의도장입니다。 특히 서울대학교는 우리나라에서 그대표적인 기관이며 한국지성의 최고의 집합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본교에서 있었던 비이성적인 시위에 대해서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정당화될수없는것으로서 깊은 반성이 촉구되는 것입니다。 이사태에즈음하여 서울대학교를아끼고 서울대인에게 커다란 신뢰와 기대를 걸고있는 국민 학부모 교수여러분, 그리고 일반학생들에게 큰실망과 충격을안겨주었읍니다。

서울대학교는 누구에게도 양여될수없는 공공적자산이며 국민적 국가적기대속에서 성장하고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교육기관입니다。 따라서 일부학생에의한 대학의 안정과 발전의 저해는 결코 허용될수없는것으로서 이번 학내 질서교란에 가담한 학생들에게는 응분의 책임을 물을것입니다。 대학전체발전의 바탕을 다지고 다수학생의 안정된 면학기반을 조성하기위한 조처의 강구가 불가피합니다。 학생제군의 국가적인 이성을 신뢰하고있는 대학으로서는 학생제군이 즉각냉정을 되찾아 자신의 학문과 수련의 길에대한 새로운인식을 다지고 선배들이 구축하여온 서울대학교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가기위해서 건전한 가치와 귀중한 자산을 축적하는데 모두가 뜻과 힘을 같이하여 [illegible]있기를 바랍니다』

事前계획된 犯行

富川母女피살 檢證

【富川=聯合】 경기도 富川市驛谷洞 수정아파트 모녀살해사건에대한 현장검증이 3일 새벽0시 수정아파트 A10 1호 현장에서 실시됐다。 군경찰의 지휘로실시된 이날현장검증에서 범인 崔漢相(21)과 閔泳鍾(23)은 범행직전 101호 1백m전방에서 사전모의하고 밤으로들어가 범행을한후 부엌에있던 석유난로를 방으로갖고와서 불을지른뒤 달아나는 장면을 30분간 순순히 재연했다。

淨化槽 청소않으면 과태료 최고50만원

청소법改正案제출

앞으로 각가정에서 정화조를 1년에 1회이상 청소하지 않을 경우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아파트등 집단주거지역의 생활하수도 반드시 정화처리시설을 거쳐 방류토록 의무화한다。

3일 국무회의를거쳐 국회에 제출된 오물청소법개정안에 따르면 분뇨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매년 1회이상 정화조를 청소하지않을 경우 「1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수 있도록된 규정을 구체적인 소명자료없이도 쉽게 행정처벌을 내릴수있도록 「과태료」로 바꾸고 액수도 「50만원이하」로 대폭 인상한다는것。

또 단일화돼있는 액성폐기물정화조(분뇨정화조)설치규정도 분뇨정화조와·汚水정화조시설로 세분, 전체폐수의 62·3%를 차지하고 있는 생활오수를 단계적으로 처리, 수질오염을 막기로했다。

환경청은 이개정법안이 통과되는대로 시행령과 규칙을 제정, 1차로 아파트단지부터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教師 보충수업비 所得稅등 누락

뒤늦게 過怠料통보

居昌등 3개郡서

【居昌=聯合】 중고교교사들의 보충수업비에대한 갑근세 원천징수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뒤늦게 일괄부과돼 관련교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남 居昌, 陜川, 咸陽郡등 3개군관내 60여 중·고등학교에서는 3일 居昌세무서가 이들 학교의 3백여교사들을 대상으로 지난79·80년 보충수업비에대한 갑근세및 원천징수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징수 10~20%의 추징을 뒤늦게통보하는바람에 관련교사들의 항의소동이 빚어지고있다。

居昌세무서는 지난10월부터 새로운 세원조사를 실시, 지난79·80 2년동안 관할 중·고교의 수학·영어교사들에게 주로 지급된 보충수업비의 갑근세 누락을 확인하고 居昌읍내 대성고교에 4백여만원을 비롯, 관내 60여개학교에 모두 3천여만원의 세금납부를 뒤늦게 각각 통보했던것。

光州학생운동 52周

【光州=聯合】 光州학생독립운동 제52주년을 맞은 3일 光州第一고교에 있는 光州학생독립운동 기념탑에 朴潤鍾국회의원과 高在鐘교육감등 많은시민과 학생들이 참배하고 분향했다。

서울都心사격장서 空氣拳銃盜難

지난 1일하오 10시30분께 서울鍾路區昌信1洞174의1 東大門사격장(주인 金영상·46)에서 독일제45구경공기권총 1정을 도난당했다고 주인 金씨가 3일 경찰에 신고했다。

婦人會 자선바자회 李順子여사 참석

대통령영부인 李順子여사는 3일상오 서울奬忠洞국립극장에서 열린 국제부인회 자선바자 개회식에 참석, 테이프를 끊고 전시장내부를 돌아봤다。

李여사는 이어 景福宮안 민속박물관에서 열린 제6회 傳承공예전 개관식에 참석, 테이프를 끊은뒤 출품된 공예품을 둘러봤다。

한국女子卓球 우승

벨기에오픈選手權 單複式서 英완파

【브뤼셀1日發=聯合】 韓國의 서울신탁은행여자탁구팀은 31일밤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벨기에 오픈탁구선수권대회 여자부 단체결승에서 英國을 완파하고 패권을 차지했다。

이날 1차단식에서 朴末蓮은 함머슬리를 2-1로, 2차단식에서 尹瓊美는 자비스를 2-0으로 각각 꺾었으며 복식에서도 朴·尹조가 함머슬리, 자비스組를 2-0으로 제압함으로써 토틀3-0으로 英國을 누르고 단체우승을 차지했다。

한편 남자부결승에서는 헝가리가 체코슬로바키아를 3-2로 누르고 패권을 차지했다。

◇여자단체결승

朴末蓮	2	21-19, 21-15, 16-21	1	함머슬리
尹瓊美	2	21-14, 21-11	0	자비스
朴末蓮·尹瓊美	2	21-3, 21-11	0	함머슬리·자비스

FIFA회장 來韓

아시아지역 巡訪次

조앙·아벨란제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 일행 6명이 아시아지역순방길에 2일 한국에 들렀다。

◇조앙·아벨란제氏

브라질 IOC위원이기도한 아벨란제씨는 이날 바렌의 FIFA총회서 축구의 올림픽단일종목참가를 16세이하, 20세이하, 20세이상으로 확대키로 결정했다고말하고 IOC와협의, 빠르면 84년올림픽부터 채택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광한약방

30여년의(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여러분 건강관리의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일체에 대한 하문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한국 정통침구의학의 정수인 사암오행 침구전공)

주소 : 92 Brantwood Drive(스카보로 제너랄병원근처)
☎ : 439-6717　김남집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 Downtown Office : (416) 537-6685
8AM~6.30PM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 Willowdale Office : (416) 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 에서 Bayview 거의 다 가서임)
* 평일 오후3시및 토요일에 오시는 분은 미리 전화 주십시오. ☎ : (416) 222-9480

한국의 친척들중 카나다에 오시길 원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들을 당신과 당신가족을 방문케해서 모셔오십시오. 동시에 우리와 같이 영어를 공부하게 하십시요.
1976년 이후 전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공부했읍니다.
보다 소식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로 전화하십시요.
Canadian Language Institute
728 Bay St. Toronto, Ontario
M9G 1N5 ☎ : 598-0451

RABBIT • CONVERTIBLE • DIESEL • JETTA • SCIROCCO
AUDI 4000 • AUDI 5000 • TURBO • VANAGON • WINDOW VAN
BUS • CAMPMOBILE
ALL ROADS LEAD TO
Don Valley
VOLKSWAGEN LTD + AUDI
AUDI
1695 EGLINTON AVE. EAST
TORONTO • ONTARIO
TEL. 751-3131
CATCH A RABBIT

거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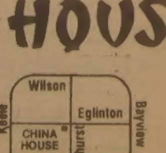
점심특별메뉴 : 버페 $2.99
12종류 샐러드 $1.29
즉석불고기, 선지피 해장국,
멍게, 생선회.
한식, 중화요리, 케네디안식
※회갑. 생일파티. 동창회 피로연
11 : 30AM~새벽2시까지
토. 일 : 2 : 00PM~2 : 00AM
(금. 토. 일-밴드있음)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김선남

각종 가죽옷 도산매
PERFECT LEATHER GOODS
온타리오주 내에서 가장 큰 가죽제품 스토어
●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음
192 SPADINA AVE. TOR.
☎ : 368-4215. 368-0114

운전교습

423-3035
(오 행 근)

CHINA HOUSE
CANTONESE & MANDARIN CUISINE



TWO BANQUET ROOMS
LOCAL DELIVERY AFTER 4.30 PM
AMPLE PARKING
781-9122
925 EGLINTON W.

伊 페르티니 대통령 나병앓은 어린이 招待

"갈리少年은 正常人이야 내가만나 證明해줘야지"

영빈관서 함께 점심食事

양볼에 입맞추고 포옹도

10월13일 이탈리아 대통령관저 퀴리나레궁영빈관은 페르티니 대통령이 몹시 만나고 싶어했던 한 꼬마손님을 맞았다。9살된 주세페·갈리어린이。페르티니 대통령은 몸소 영빈관현관에 환한 얼굴로 나가 이 어린이의 양볼에 입을 맞추어 주고 포옹했다。마치 잃었던 귀여운손자를 다시 찾아 상봉한 것으로 착각할만한 장면이었다。

「學父母들 반대로 學業포기」 소식듣고

그리고는 그 주세페·갈리군의손을 꼭잡고 점심식탁으로 가서 먼저 앉도록한 다음 자신도 그옆에 자리했다。

페르티니 대통령은 주세페·갈리군에게 점심을들도록 권하면서 소년이 좋아할만한 이야기를골라 즐겁게 해주려 애썼다。

페르티니 대통령이 만나고 싶어한 주세페·갈리소년은누구인가。

그는 79년 나병을앓았다。직장을 베네수엘라로옮긴 부모를따라갔다가 그곳에서 나병에 감염된것이다。그는 부모와함께 곧 귀국, 이탈리아 나병의료센터에 입원, 투병끝에 작년봄 완치되어 새로운 삶을 얻었다。

지난 9월에는 좀 늦긴 했으나 그렇게 가고싶었던 국민학교에 입학도 했다。그러나 다른 학부모들의완강한 저항으로 그는 학교를 포기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탈리아 전국의 신문들이 살레지방주민들의 행위와 주세페·갈리 어린이를 크게보도했다。

페르티니 대통령도 신문기사를 읽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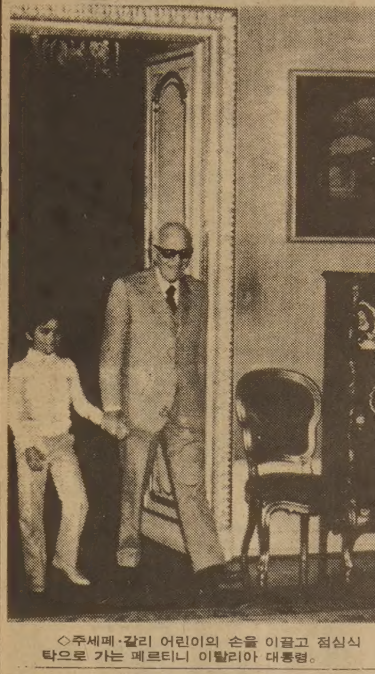
『주세페·갈리는 정상인이야。내가 그것을 증명해주어야겠어』

신문을 읽고나서 페르티니 대통령이 한말을 그의측근은 이렇게 전했다。

정상인임을 증명해주어야겠다는 대통령의결심으로 주세페·갈리어린이는 대통령궁을방문, 친 할아버지처럼 온화한 대통령과 점심을같이 하게 된것이다。

페르티니대통령의 이러한 서민적인 인정과 미담을 매스컴에서는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찬양했다。국민들도 노대통령의 미담에 크게감동했다。

【로마=柳錫悅통신원】



◇주세페·갈리 어린이의 손을 이끌고 점심식탁으로 가는 페르티니 이탈리아 대통령。

생명의 말씀

CITY-TV : 체 널 79
케이블 7
일요일 8 : 30~9AM
MTV : 체 널 47
케이블 4
목요일 12 : 30~1PM

大統領賞에 「날개」 개천藝術祭수상

【晋州=聆】 지난2일 막을 내린 제31회 개천예술제에서 영예의 대통령상은 연극부에 출전한 충북 忠州의 「날개」가 차지했다。

지난10월30일부터 2일까지 4일동안 晋州에서 열린 이번 예술제에는 연극·무용·국악등 9개부문에 3만5천9백97명이 참가했다。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같다。

▲대통령상 (연극부) 충북忠州극단·날개 ▲국무총리상 (미술부) 金영석 (경남固城郡會華面背屯里) ▲국회의장상 (문학부) 金유리 (晋州삼현여고) ▲내무부장관상 (사진촬영부) 郭용섭 (馬山市山湖洞) ▲문화공보부장관상 (음악부) 晋州상고 ▲농수산부장관상 (국악부) 鄭미자 (晋州여고) ▲도지사상 (晋陽郡의 모내기 노래) ▲교육감상 (대동기계공고)

한국女子 複式도優勝

벨기에 오픈卓球 和蘭에敗해 單式선 준우승

벨기에 오픈 탁구대회에 출전한 서울 신탁은행 여자탁구팀은 2일 브뤼셀에서 폐막된 이대회서 여자단체전우승에이어 여자복식우승,여자단식 준우승의 전과를거두었다고 3일 협회에 알려왔다。

서울신탁은행의 尹環美·朴末蓮조는 복식결승에서 벨기에의 리펜스, 프랑스의 티리에 혼성조를 3-0으로 완파, 우승했으며, 尹環美는 단식결승에서 접전끝에 네덜란드의 브리세쿠프에 3-2로분패, 준우승했다。

남자단식서는 유고의 칼리니치가 같은 유고의 수르빅을 3-2로 눌러 우승했다。

◇최종일전적

▲여자단식결승

브리세쿠프 3 2217121321 / 2021192115 2 尹環美 (한국)

▲여자복식결승

尹環美·朴末蓮 3 212121 / 121315 0 리펜스·티리에

나의이력서 〈題字 尹致暎〉 윤치영 ㊼

3대국회시절 나는 정치인보다는 「志士」로서의 투쟁을 해야된다는 신념으로 활동했다。따라서 정치의 수완, 기교, 조직의 運用같은 것과는거리가멀었다。

나는 누구를 포용하려는생각도, 동료의원들과의 親交를넓혀야 겠다는 생각도 별로 하질않았다。나의 소신대로 하고싶은 말을하고 하고싶은 행동을했다。그러니 자연히 與野소 친밀한몇몇을 제외하고는 멀리 없이 대부분이 나를경계하지않았나 생각한다。野가되지 않고 터놓고 발언했고 어디에도 섞이지 아니했다。

3대국회에서 나는「1人1黨」의 존재가됐다。大韓國民黨의원이 처음엔 나와 李仁, 朴在洪 3명이었으나 四捨五入改憲파동후 護憲同志會결성때 李仁, 朴在洪은 그리로 참여하고 나만 외톨이가됐다。

制憲국회도중 創黨, 2代 국회때는 24명의 당선자를냈던 黨勢가 기울어 버렸다。나는 黨勢를 키울 생각도 못했다。당 운영에 필수적인 재정도 없었고 자금을 대주겠다는 제의도 뿌리쳤다。자칫 不正한 돈이 들어올까봐 우려해서였다。

내가 院內에서 외친 발언중 두드러진 것은 밖으로는 유엔가입문제, 안으로는 금융과 산업발전을 통한 國力의 신장문제등이었다。또 경제의 創意性을 수없이 외쳤다。당시의 경제란 말이 아니었다。그나마 외국에서 쌀,밀가루,비료등을 들여오면 협잡으로 좀어먹기 일쑤였다。

인물도 빈곤이었고 정치부패가 기승을 부렸다。극단적으로 말한다면 미국에서 주는 밀가루를 얻어먹고 創意란 거의 없던 시대였다。

한번은 내가 국회에서 그와 비슷한 발언을 했을 때 維石 趙炳玉이 맨먼저 나서서 적극적인 동조발언을 했다。維石은 그것말고도 여러차례 나에게 好意를 보였다。

政治跛行의 發芽

政治부패 攻駁발언…維石도 적극同調

李起鵬일파 帳幕政治로 專橫 일삼아

이를 계기로 2代보궐선거인 「公州會戰」뒤 좀 서먹서먹했던 維石과의 관계가 매우 가까와졌다。당시 남보고 『합심해서 일하고 좀더 자주만나세』라며 허허…웃던 維石의 커다란 두꺼비얼굴이 어제일처럼 떠오른다。

반면 張澤相과의 사이는 더욱 멀어져갔다。그가 기회에 편승하는 인물이란 나의 생각이 좀처럼 지워지질 않았다。

3대국회에서 맘속으로 좋아했던 의원중에는 金度演, 金義澤, 尹濟述등을 꼽을수있다。金度演, 金義澤은 나에겐 점잖은 君子같은 인격자라는 인상을 갖게했다。尹濟述은 술수를 감춘듯하면서도 사고의 폭이 넓었고 발언이 밀도있고 철학적인 품위가 있어보였다。

李仁은 大韓國民黨을 떠났지만 李奎甲과함께여전한 나의知己였다。

朴順天은 當代의 女傑로 훗날 야당黨首까지 지냈지만 내가 보기엔 그는 정치인이란 생각보다 순수하고 지조있는 志士型으로 보였다。

내가 反感을 느낀 인물중엔 金相敦이있다。단상에서 무질서한 폭언을 하면서 愛國者然하고 表裏不同하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日帝때「日本天皇을 위해 바이칼湖에서 싸워 조선청년의 피를 뿌리자」고 했던 親日의 발언이 나의 머리에서 한시도 지워지질 않았다。어디 金相敦뿐이랴。그런 인물중의 하나였다는 얘기다。

李起鵬。그에 대해선 할 말이 너무도 많다면 이미 死者가 된 그를 두고 뭐라 말하기가 괴롭다。그를 생각하면 여러모습의 얼굴이 한꺼번에 떠올라 머리를 어지럽게 한다。

미국유학시절 그를 처음 봤을때는 苦學을 하다 지쳐버린 우수어린 꽃장수였고…建國후엔 한납 말없이조용한 경무대의 비서였다。그가 후일 悲劇의 정치풍파를 일으킨 인물이라곤 상상도 못했다。

유약해뵈던 그가 51년 申性模후임으로 국방장관이돼 국민방위군사건의 주모자를 결단성있게 처단할 때만해도 나는 그에게 말없는 찬사를 보냈었다。그대로만 갔던들 그는 훗날 汚辱의 이름을 남기지는 않았을 것이다。

섬세하고 柔弱하게만 보이던 李起鵬, 그에게는 본시 邪氣가있었는지, 아니면 그도 權牙에 물렸는지 그의 一派는 政局을 계속 破局으로 몰아갔다。四捨五入 改憲으로 自由黨의 명예나 위신은 이미 땅에떨어진 것이나 다름없다。

경무대를 에워싸고 李起鵬과 朴마리아…그리고 宦官의 무리와도같은 비서들, 그들은 李 대통령의 주위를 철통같이 가리고 帳幕정치를 했다。감히 누구도 그근처를 가지 못했다。나는 새도 접근을 못한 판이었다。

無政見한 인물들의 방자한 행동, 그들의 專橫은 정치를 곪을대로 곪게 만들었다。각계각층에서 소위 「빽」이 없이는 행세를 못했다。「빽」의 정치는 民心을 凶凶케하고 세상에선 죽을때도 「빽」소리를 지르고 죽는다는 말이 유행할 정도였다。邪惡한 무리들은 李대통령의 聲價와 지위를 배경으로 해 權力을 그들 앞으로 집결시켰다。모든 人事도 실제로는 李대통령이 하는 것이 아니라 李起鵬의 집인 世稱 西大門景武臺에서 요리했다。

결국 이 모든 책임은 장막안에 갇힌 李대통령이 짊어져야 했으니 나로선 이토록 가슴아프고 원통한 일이 있을수 없었다。自由黨의 專橫과 부정부패, 이는 어쩔수 없는 이나라의 정치적 宿命인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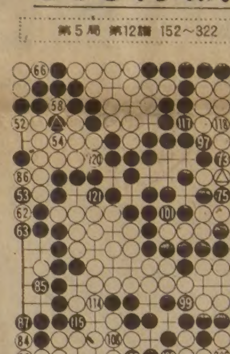
◇維石 趙炳玉과는 2代국회 補闕선거로 서먹서먹했었으나 3代국회에 들어서 意氣가 投合, 점차 가까와졌다。사진은 국회에서 維石(左)과 귓속말을 나누는 筆者。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5局 第12譜 152~322 (각 5시간 덤 5집반)

白 (6段) 姜 哲 民 〈1敗〉

黑 (4段) 姜 勳 〈1勝〉



바둑에도 勝運이따른다 하거니와 이바둑에서 白은 그運을 스스로 물리친 꼴밖에 아무것도 아니다。쉽게 이기는바둑을 굳이 어렵게만들어 대마의공방전을 일으킨것은 승부를떠나서 일종의 「패감」에 젖척는 뜻으로 해석되지만 그렇더라도 여러번 승리의기회를 놓치고 하필이면 지는쪽으로 돌진한것은 姜6단으로서 두고두고 애석해야할 일인가싶다。

더우기 1분바둑이 여전히계속되어서는 백전노장도 힘을 다할수가없다。

白52가 잘못이었다。이수로는 우하귀 55자리를 잇고 좌상귀는 黑이먼저 착수할때 싸워야 승부가되지만 그러면 패감이 부족하다。그래서 白이 먼저 52에 착수한것인데 黑은 선 이곳을 외면하고 유유히 55, 57로 잡아버렸다。

白, 마침내 憤敗

좌상귀를 포기하는 댓가로 계속해서 黑65·67 그리고 73등 큰끝내기를 독점하면서 승리를 마무리지어간다。

姜6단은 여전히 기록계의 초읽는 소리가 마지막 1, 2초까지 아슬아슬하게 도달했을때 재빨리 착수한다。형세는 이미 기울어졌고 결하여 시간연장책을 써 볼만한 곳도없다。이에 반하여 姜4단은 승리를 재확인하듯이 집수효와 끝내기 흐름을 계산하고 있다。

白66으로 좌상귀는 잡았지만 결국 白122로 좌변 62자리를 잇는데서 終局。白은 3집반을 분하게 패하였다。

계가를 하고난 姜6단은 아깝게졌다는 아쉬움보다 무슨 짐이라도 벗은듯이 큰한숨을 내쉬며 『허허, 참』하고 돌집을 쓸았다。

93…△。102…62。105…53。61…▲。64…58。110…62。113…53。116…62。119…53。122…62。 【一凡】

流星의 賦 〈225〉

李炳注作 李友範畵

秋風何處至 ㉓

10월27일。전주에서 운반되어온 정여립과 변숭복의 시체를 저자에서 찢어죽였다。백관들이 그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홍계남도 끼여 있었다。

홍계남은 전날 정여립 옥사에 공이 있다고 하여 임금으로부터 은 천냥의 상금을 비밀리에 받고 있었다。동시에 보직(補職)을 정하진 않았으나 벼슬이 사정(司正)으로 올랐다。오위(五衛)의 사정이면 훈련원의 참군(參軍)에 해당하고 정칠품(正七品)이다。

계남은 여립의 시신(屍身)이 찢기는 것을 보며 그 참상과 은 천냥이 결부되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인생무상(人生無常)을 느꼈다。한때 맹렬히 미워해서 자기 손으로 죽이기까지 하려고한 여립이었지만 이미 죽음으로써 하늘의 보복을 받았는데 새삼스럽게 시신을 찢는 형벌을 보는건 계남으로선 유쾌한 일이 아니었다。

계남이 저자에서 돌아오는 도중 계속 침울했던 것은 여립의 옥사로 인해, 어머니를 창(娼)으로 욕한 자를 찾아내어 보복, 설욕하는 기회를 놓쳤다는데 있었다。이미 그 풍설은 꺼져버려 없어졌는데 계남이 자기 입으로 그 치사스런 사실을 발설하기가 꺼림했던 것이다。

(홍계남이 꺼림할만도 했다는 것은 그런 풍설이 있고도 사실을 밝혀 설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풍설이 그냥 굳어져 이조실록에, 홍계남의 모는 창이었다고 지금까지 남아있게 되었다는 사실 때문이다)

계남은 그 이튿날 상금 천냥 가운데 5백냥을 갖고 안성으로 돌아가, 전지와 집을 마련하여 어머니를 모셨다。주변에서 뭐라고 하건 계남은 당당한 정칠품 벼슬인 사정이었던 것이다。

그때 계남은 가난한 양반 박씨의 딸을 취해 장가를 들어 어머니를 모실 며느리로 삼았다。큰 어머니 청주한씨도 이 무렵엔 극성을 부리지 않았다고 한다。계남은 안성 어머니 옆에서 그해의 겨울을 지냈는데 아마 이 시기가 그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다。

그 동안에도 정여립의 옥사는 진행되고 있었다。여립의 생질 이진길은 끝내 참혹했지만, 그가 여립에게 보낸 편지가운데 『지금 임금의 혼암(昏暗)은 날로 심하다』는 등의 말이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임금은 그걸보고 이진길을 『역적으로 처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조사가 진행되는 도중 역적들의 문서 가운데 하늘에 제사드리는 제문이 일곱장이나 나왔다。그 내용은 임금의 죄악을 탄핵하고 욕한 것으로서 이를테면 흉문(凶文)이라고 할 수 있었다。국청(鞫廳)에서도 차마 입 밖으로 내어 들먹이지 못하고 「차마 입밖에 낼 수 없는 말」이라고만 아뢰더니 임금의 진노가 극심하여 『평소에 여립을 칭찬하는 말을 한 자, 여립과 친하게 지낸 자, 여립과 교통이 있던 자, 조금이라도 여립을 가까이 한 자가 있으면 철저하게 찾아내어 놈들을 이 잡듯하라』는 엄명을 내렸다。

일대 피바람내 나는 회오리가 일 판이었다。동인들의 공격을 받고 요 5, 6년동안 벼슬길에서 멀어져 있던 서인들의 판은 잡판이었다。동인들은 추풍에 낙엽이었다。

모눈종이 위의生 〈244〉

趙善作 作 金光培 畵

모눈종이 위의生 ⑪

내가 세호의 이야기에 더 이상 관심을 나타내지 않으니까 J씨는 좀 머쓱해진 표정으로 돌아갔다。비로소 그는 코피잔에 손을 가져갔고, 한모금 마시다가 갑자기 생각났다는 듯 말했다。

『한순은 요즈음도 자주만나십니까? 난 통 볼 수가 없어요』

『가끔。오래되었어요』

라고 나는 한순을 팔며 잘라 대답했다。J씨도 그 이상은 그에 관해서 말하고 싶지 않은 눈치였다。

J씨가 다시 코피잔에 손을 가져갔다。그가 코피를 마시는 동안 내가 물었다。

『시작(詩作)은 잘 되세요? 엄망이 되고 있다고 하셨던 것 같아서……』

『아, 그랬었나요? 지난 겨울은 정말 모든게 엄망이었지요。미친 겨울이었다고나 할까?』

J씨의 그런 표현 속에 나는 나와의 일도 섞여 있음을 얼핏 깨달았다。미친 겨울, 엄망이었던 미친 겨울에 만났던 이상한 여자。아침에 깨어보니 나체로 자신의 옆에 누워 있던 불가해한 여자。그 여자마저 그의 시창작(詩創作)을 엄망으로 뒤헝클어놓는 일에 기여한 것이다。

J씨가 나머지의 코피를 모두 마시자 나는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났다。그리고 J씨보다 먼저 카운터로 달려가 차값을 계산했다。J씨에게 조금이라도 폐가 되는 것을 나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었던 것이다。

지하다방의 어둑한 계단을 올라 밖으로 나와서 나는 J씨에게 고개를 까딱해 보였다。『전 이쪽으로…』

『그래요?』하고 J씨는 잠깐 안타까운 듯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가 곧 작별의 손을 들어 보였다。『그럼 안녕』

J씨와 만난지 일주일쯤뒤 나는 U감독을 그의 촬영 현장으로 찾아가 만났다。나는 그가 어떤 영화사의 작품을 만들고 있나 알고 있었다。그 영화사에 나는 다섯 번쯤 전화를 걸었고, 마지막으로 내가 연출부의 새로운 일원인 것처럼 굴어서야 U감독의 촬영 현장을 알아낸 것이다。촬영 장소는 서울역에서 기차로 사십분쯤 걸리는 거리, 경의선(京義線) 철로연변에 있는 백마(白馬)라는 고장이었다。백마의 간이역이 바로 U감독의 로케이션 현장이었던 것이다。

내가 백마의 간이역에 내린 것은 제법 풍요로운 초여름의 햇빛이 사과 들판과 간이역에 눈부시게 쏟아지고있던 유월 중순의 어느날 오후였다。과연 U감독과 스태프들은 그곳에서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맨 먼저 발견한 것은 널따란 판대기에은 박지(銀箔紙)를 붙인 조명기구였다。그리고 그 주변을 둘러보니 삼각대 위에 올려놓은 카메라가 보였고 U감독과 스태프 캐스트들이 뒤에 둘러서 있는 구경꾼들을 등지고 서 있었다。

나는 조마조마한 걸음으로 프랭좀을 걸어 주로 동네의 어린 아이들인 구경꾼들의뒤에 가서 섰다。혹시 그곳에 있을는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던 한민일씨는 물론 윤나미도 보이지 않았고 내가 알 수 있는 얼굴이라고는 당연하게 U감독 뿐이었다。

촬영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중이었고, 일에 열중한 U감독은 결코 내 쪽으로 돌아보지 않았다。그래도 나는 역시 처음 구경하는 영화 촬영 현장이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구경꾼들속에 섞여 지리하지 않게 서 있을 수 있었다。배우들은 내가 구경한 일이 없는 새로운 얼굴들이었지만 개성적인 용모들가진, 얼핏 보기로도 스태프들과는 구별되는 모습이었다。스태프들은 대부분 평범한 작업복 차림들이었는데 어디서나 흔히 구경할 수 있을 것 같은 얼굴들이었다。

DOMINION SMALLWA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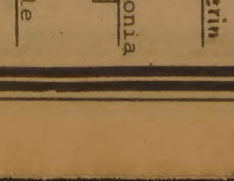
◆◆ 금주의 스페샬 ◆◆

Nov. 2 - Nov. 14

Cadbury thick bar	36/55¢	$13.15
California twist red	60/10¢	3.09
Vicks	20/40¢	4.95
Acta throat soothers	20/40¢	4.75
Fruitella	36/25¢	5.09
Hubba bubba presenter	96/30¢	16.69
Bazooka gum	36/10¢	2.25
Leaf ball gum	72/ 5¢	2.39
"	48/ 5¢	1.59
"	48/10¢	3.19
"	36/10¢	2.39
Moirs bag candy	24/25¢	3.45
Velour toilet tissue	24/4's	31.45

약간의 세일즈맨 모집

DOMINION SMALLWARES
(Cash & Carry에 한함)
920 Caledonia Rd.
789-7214(MR. 김)



가나안교회 창립 제2주년 기념 부흥성회

"어찌하여 자느냐"

존경하는 교민여러분 주님의 크신 은총이 귀가정과 하시는 사업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번 저희 교회에서는 창립2주년을 맞이하여 "백화기"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의 잔치를 베풀고저 하오니 바쁘신 중에도 부디오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강 사 : 백 화 기 목사

강사소개 : 학력— 대구 계명대학 졸업
한국신학대학 졸업
침례교 신학대학및 대학원졸업
캐나다 크리스찬 대학 졸업
경력— 포항침례교회 담임
영남침례신학교 교장
한국침례회 총회 총회장
포항시 기독교 연합회장
한국부흥사협회 회원
사모아 선교회 이사
미국, 캐나다, 일본, 멕시코 등지 부흥집회

일 시 :
1981년11월13일(금)
〃 14일(토)
〃 15일(주일)
오후7시30분

장 소 : 가나안 장로교회
1428 ROYAL YORK RD.
(AT EGLINTON)
(로얄·욕크와 에그린톤 만나는 지점에서 한 골목 북쪽)

가나안 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정준및 교인일동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油價 年內 5~6% 인상

朴動資、國會보고 11·5%인상要因

나머지는 越冬期 지난뒤에

朴鳳煥動資部장관은『지난 10월30일 OPEC(石油輸出國기구) 각료회의에서 油價單一化조치에 따라 3·7%의 引上요인이 생긴데다 換率인상 유전스 利子상승등으로 이미 7·8%의 인상요인이 발생, 현재 11·5%의 油價인상요인이 있다』고 밝히고 『油價인상시기는 국내 物價안정과 越冬期충격을 最小化하는방향으로 금년중 5~6%인상하고 나머지는 越冬期가 지난뒤 내년도에 인상하는 방안을 정부내에서 대체적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朴장관은 이날 국회商工委에서 이같이 밝히고『우리나라는 그동안 복합單價를 採해 비싼값의 原油를 도입한 精油社의 缺損을 補塡하기위해 석유안정기금제도를 채택해왔으나 油價單一化에 따라 석유안정기금제도의 불필요성과 함께 국내油價관리제도를 상당한 부분 재조정키로 했다』면서『이에따라 앞으로 油價인상요인도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精油5社중 湖油의경우 사우디原油를 公示가격으로구입, 이익 여건이 많았으나 정부의 가격통제로배럴當 17%의 이익만냈었고油公이 80년법인세에 1位를차지한것은 경영이익보다 民營化精算과정에서 자산재평가를하면서 장부상의 이익을7백9억원으로 계상했기때문이라며『80년 油公은 실제3백6억원의 적자를 냈다』고 말했다.

朴장관은『精油5社의 금년 상반기缺損총액은 1천8억원이며 금년말까지 1천5백65억원의 결손이 날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法위반學生 엄격히 다스려"

국회常委질문·답변

국회는 2일 豫決委를 열고 80년도 豫算및 예비비支出의件에 대한 정책질의를 벌이는 한편 영국방 보사 교체등 4개상위를 제외한 9개常委를 열어 정책질의를 계속했다. 특히 財務委는 이날 교육세법안등 10개稅法案에 대한 정책질의에 들어갔다.

豫決委 李漢基감사원장은『정부시공업체중 不實施工업체에 대해서는 이를 고발하는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하고『殘存非理를 없애기위해 入札제도개선, 전문직에의한 工事감독강화, 불량건설자재유통방지, 不實시공업체에 관한자료 電算정리등 여러가지방안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李奎浩문교장관은『대학교육의 質的수준향상이 이뤄질때까지는 除籍학생에대한 復校를 고려할 생각이없다』고 밝히고『학원에서 校則과 法을위반하면 그들에게 法과 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할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근로학생들을위해 開放大學체제를연구중이며 현재 중학교에서 실시하고있는 分冊제도를 高校까지 확대실시를 검토하고있다』고 말했다.

崔昌洛기획원차관은 76년이후 絶對貧困인구는 줄었으나 상대빈곤인구는 증가추세에 있다고밝히고 앞으로 심화된 소득격차를줄이는 대책을 적극강구하겠으며 생활무능력자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을 擴大할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 소득인구중 下位40%의 소득분배율은 80년에 15·5%였으며 86년에는 17·5%로 높이고 90년에는 19·5%로 증가시키는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農水產委 姜仁熙농수산차관은『정부양곡수매가 결정은 현행방식대로하며 곡수매가 결정은 현행방식대로하며 쌀의 수입방안은 85%에 이르러 自給기반이 무너질 우려가 있어』고 말했다.

金鍾洙수산청장은『釜山지역어획물 적체현상을 해소하기위해 현재 魚販場으로사용중에있는 南港외에 甘川항을 보조港으로 조기개발하겠으며 수시경매、船上경매등의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2백3개의 魚種중 49개품목을 수입자율화토록했으나 명개등 軟體類의수입은 금년하반기부터 금지시켰다』고 말했다.

申부총리 밝혀 肥料값 12월引上

申秉鉉부총리는 2일『비료값을 오는12월중에 인상조정할것』이라고밝혔다.

그는『原價부제의 인상요인등으로 금년에 비료값인상이 불가피하다』고말하고『비료의 국제협약이 끝나는데로 비료공업체들이 가동중인비료공장에대해서는 기업합리화방안을 검토하겠다』고아울러밝혔다.

34개 中央部處 後續人事

3級이상 450명 發令

課長급이하는 10日까지

市道·教委 人事는 今週안에매듭

정부는 機構개편에따라改正된各部處職制가公布발효된2일 3級(局長級)이상 4백50명의 인사를단행, 後續인사를 거의 매듭지었다. 정부는 10월31일 재무부등 4개부처국장급 34명의 인사를 한데이어 이날 36개대상기관중 체신부와 서울시를 제외한 34개중앙행정기관의 국장급이상에 대해 轉補、再發令、파견을 위한 연구관발령인사를 끝내는한편 이날짜로 폐지된 경제과학심의회의 張德鎭 상임위원 (장관급)과尹恒烈위원(차관급)、행정개혁위원회의金榮玉위원장(장관급)、孫守益부위원장、黃義均 崔昤坤、徐基源위원 (이상차관급) 등 長·次官급7명을 依願免職했다.

長次官級 張德鎭·金榮玉씨등 7명免職

정부는 또 1급과 2、3급별정직 15명도 이날짜로 依願免職했다.

각부처는 국장이상의 인사가끝남에따라 이날부터 課長級(書記官)에대한 2단계 人事작업에 들어가 당초인사時限으로 잡은 오는10일이전에 모두 끝내기로 했다.

統廢合되는 課長이하 공무원들은 이날부터 일단 새로운 부서에옮겨 일을시작했으나 오는10일안에 재배치될예정이다.

한편 체신부의 인사는 한국전기통신공사가 발족되는 내년1월1일字로 실시할예정이며 서울시와 各市道및市·道교육위의 後續인사는職制가 확정되지않아 이날 인사에서는 제외됐으나 이들기관에대한 인사도 今週안에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번인사에서 차관급의경우 韓鳳洙국무총리 기획조정실장이 公正거래위원장으로、崔東奎기획조정실제1조정관이총무처행정조사실장으로、姜信祚경제기획원차관보가 공정거래위원、총리비서실 申昌雨총무비서관이 올림픽지원본부로、총리행정조정실 李錫泳부조정관이 사회정화위원으로 각각 자리를옮겼다.

또 朱炳國재무부 국제금융차관보는 기획관리실장으로、金東學통일원기획관리실장은 교육홍보실장으로、宋榮大통일원교육홍보실장은 통일연수소교수로 각각 轉補됐다.

총무처는 기구축소로 교육파견되는 공무원중 국방대학

北傀、國軍초소 銃擊

지난31일 3차례 20餘분 5백20여발

我軍 即刻응사…被害없어

漣川 西北方 경비 초소서

국방부는 북괴가 지난10월31일하오 서부전선 漣川서북방15㎞지점의 적GP(경비초소)에서 아군초소를 향해 또다시 휴전협정을 위반하고 3차례에 걸쳐 20여분간 5백20여발의 무차별총격 도발을 감행해왔다고 2일 발표했다.

국방부는 아군측이 이에즉각응사했으며 아군측의 피해는 전혀없었다고 밝혔다.

국방부대변인은 북괴가 지난31일 하오4시36분부터 46분까지 10분간에 걸쳐 아군초소를 향해 2백여발、4시55분부터 56분까지 20여발、5시55분부터 59분까지 3백여발등 3차례에걸쳐 모두 5백20여발의 기총사격을 감행해왔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괴는 그들의 방송망을통해 우리가 지난31일 하오4시30분부터 6시30분까지 2시간동안에 걸쳐 수만발의 기총사격을가해왔다고 터무니없는 허위보도를했다고 밝혔다.

북괴는 그들의 호전성을역으로 우리에게 덮어씌우기위해 휴일인 토요일 오후를 이용하여 총격사건을 꾸미고이를 즉각 정전위원회에 항의하는한편 신속히 보도를하는등 일련의계획된 날조행위를 자행했다고 국방부대변인은 밝혔다.

板門店서 체코兵亡命

休戰監視委소속

美國에 政治的망명 요청

【서울2日UPI聯合】한국휴전중립국감시위원단(NNSC)에 배속된 체코슬로바키아군 사병1명이 미국에 정치적망명을 요청했다고 2일 군소식통이 말했다.

주한미대사관 대변인은 이에대해『지금 논평할수 없다』며 차후에 논평할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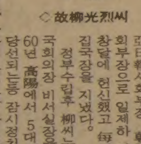
군소식통은 체코군사병의 망명요청이 언제있었는지 밝히지 않았으나 한소식통은그 체코군사병이 서울에와는 美軍당국에서 신변을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휴전중립국감시위원단은 폴란드 체코 스웨덴 스위스군으로 구성돼있는데 이들중 정치적 망명을 요청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체코위원단은少將을단장으로 장교7명과 사병1명으로 구성돼있다.

元老言論人 柳光烈씨 別世

오늘상오10시 한국일보 社友葬거행


◇故柳光烈씨

언론계의 원로이며 한국일보社友인 種石 柳光烈씨(사진)가 1일 하오3시30분 서울鍾路區 內需洞70의97자택(☎0738)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83세.

1898년 경기 坡州郡 炭縣面 洛河里의 가난한 선비집안에서 태어난 柳씨는 한학을 수학한후 독학으로 서양학문을 익혀 청년시절 小波 方定煥과 청년구락부를 창설, 기관지『新青年』을 발간하는등 문화운동을 폈다.

1919년 每日申報 기자로 언론계에 투신한후 滿洲日報기자를 거쳐 1920년 東亞日報창간에 참여하여 東亞日報사회부장、朝鮮日報사회부장으로 일제하 민족언론창달에 헌신했고 毎日申報편집국장을 지냈다.

정부수립후 柳씨는 申翼熙국회의장 비서실장을 지내고 60년 高陽에서 5대민의원에 당선되는등 잠시정치에 관여하기도했으나 自由新聞주필을 역임하고 54년 한국일보논설위원으로 취임, 20여년간 논설과 칼럼을 담당해오다 은퇴, 한국일보社賓으로 있었다.

柳씨는 지난 79년 경기 楊州郡 一山에 있는 야산등을 YMCA에 기증, 청소년수련장으로 활용케했으며 문화훈장 국민장, 小波賞을 수상했고 78년 漢陽大에서 명예문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부인 金昞得씨와는 60년사별, 독신으로 지내왔다.

영결식은 3일 상오10시 한국일보사에서 社友葬으로 거행된다.

발인은 상오9시30분 자택에서, 장지는 一山 청소년수련장옆 선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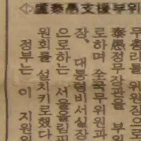
올림픽組織委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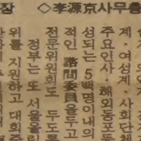
組織委長 金溶植씨 사무총장李源京씨

지원委長 總理·副委員長엔 盧泰愚장관

◇南惠祐支援위원장

◇金溶植조직위원장


◇盧泰愚支援부위원장


◇李源京사무총장

88서울올림픽대회 組織委員會와 서울올림픽 支援위원회가 2일 구성됐다.

88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이날상오 서울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에서 제1차총회를 열어 명예총재에 全斗煥대통령을 추대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 헌장과 올림픽행정편람규정에 따라 南相鎬 大韓올림픽위원장이 金溶植대한적십자사총재를 위원장으로추천, 金총재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南대한올림픽위원장은 또 金溶植총재등 29명의 發起人을 추천했으며 이어열린 발기인총회(金聖鎭聯合通信사장、孫基禎씨는 해외출장으로 不參)에서는 대회定款을 채택하는 한편 발기인들을 조직위원으로 선임했다.

이날 총회는 조직위부위원장에 朴英秀서울시장、南相鎬대한올림픽위원장、鄭周永全經聯회장、李源京대한올림픽위상임고문을 선출하고 10명의 집행위원에 5명의 위원장단과 金澤壽IOC위원、鄭柄來국회문공위원장、李奎浩문교장관、盧泰愚정무2장관、李元洪한국방송협회장을 선출했다.

조직위사무총장엔 李源京상임고문이 임명됐다.

조직위에는 체육계·국회·軍·지역대표·종교계·법률계·언론계·교육계·문화예술계·의약계·경제계·노동계·여성계·사회단체·전직주요인사·해외동포등으로구성되는 5백명이내의 汎국민적인 諮問委員을두고 10개의 전문위원회도 두도록했다.

정부는 또 서울올림픽조직위를 지원하고 대회준비를원만하게 추진키위해 南惠祐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하고 盧泰愚정무장관과 서울시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국무위원과 서울시장、대통령비서실장을 위원으로하는 서울올림픽지원위원회를 설치키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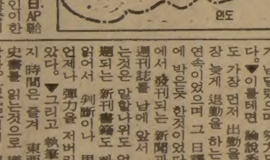
정부는 이 지원위원회에 총리실 李宜基행정조정실장을 책임자로하는 實務委를두고 그산하에 기획、재정、경기、시설환경、통신、교통관광、문화홍보、儀典섭외、보건위생、개발、안전등 11개분과위원회를 설치키로했다.

서울올림픽조직위 29인위원은 다음과같다.

▲金澤壽(IOC위원)▲金溶植(KOC위원장)▲李源京(KOC부위원장)▲朴鍾圭(KOC상임고문)▲崔元碩(射擊聯盟회장)▲金雲龍(卓球協會장)▲孫基禎(베를린올림픽金메달受賞者)▲鄭柄來(국회文公委員長)▲李鍾贊(民正黨원내총무)▲高在淸(民韓黨원내총무)▲李東鎭(국민당원내총무)▲周永福(국방부장관)▲盧泰愚(政務第2장관)▲李奎浩(문교부장관)▲金溶植(赤十字社총재)▲鄭周永(全經聯회장)▲劉彰順(貿易協會長)▲張忠植(大學스포츠위원장)▲申榮均(藝總회장)▲文胎甲(新聞協會長)▲南宮鍊(放送協會長)▲李元洪(放送協會長)▲金聖鎭(聯合通信사장)▲鄭義淑(梨大總長)▲河大敦(國際觀光公社사장)▲趙重勳(KAL사장)

안나푸르나 南峰 한국선 처음

成大등반대 登頂



【카트만두(네팔)2日AP聯合】3명의한국산악인이 한국등반사상 최초로 네팔중서부지방 안나푸르나 南峰(해발7천2백73m)을 정복했다고 네팔관광성이 2일 발표했다.

한국등반대는 지난10월25일 안나푸르나南峰정상에 올라 태극기와 네팔국기를 꽂고 정상에서30분간 머물렀다고 관광성은 밝혔다.

정상을 정복한 3명의 한국인들은 成均館大산악회 등반대장 한상국씨(33) 대원 원종태씨(27) 김창선씨(21)이다.

이들 3명의 한국산악인들은 고참 네팔인 셸퍼 핀조씨(41)와함께 25일아침 해발 6천4백m지점의 캠프에서 안나푸르나 남봉의 북동면으로 최종정상공격을 시도、정상등반에 성공했다.

社会漫評

人事酷寒

地自制실시 法案 국민、國會에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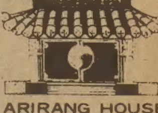
국민당은 2일 趙炳奎의원등 25명의 소속의원 全員의 이름으로「地方自治制실시시기에 관한 法律案」을 국회에 제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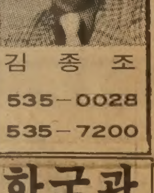
이 法律案은 地方自治法규정에따라 지방자치단체중 서울특별시와 直轄市및 道의회선거와 이들 지방자치단체의長의 선거를 오는83년말까지 실시하도록 하는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地平線

언론계의 耆宿인 種石 柳光烈옹이 1일하오 83歲를 一期로 別世했다。옹은 1919年 毎日新報기자로 言論界에 투신한 다음 政府樹立後 한때 海公 申翼熙國會議長의 비서실장을 지내고 또 60년 高陽의 5대민의원에 당선되는등의 경력이 있으나 옹은 하나 좋은 言論人으로서 一以貫之하였다。▼특히 한국일보사가 54년에 창간되면서는 論說委員으로서 創刊社員에 列했으며 해박한 역사적인 지식과 날카로운 批評의 안목으로 論說과 칼럼을 써서 讀者들이 끊었다。한국일보社賓으로 은퇴하기전 즉80 高齡으로도 本「地平線」欄을 擔當하여 健筆은 如前하였다。▼1898년、즉 前世紀末에 京畿道 坡州郡 가난한 선비집안에서 태어났던 種石翁은 書堂에서 漢學을배운것이 學歷의 전부였으나 獨學으로 英語、露語、中國語、日語등 여러 外國語를 마음대로 읽고 쓸수가 있을정도 였다。그만치 知的慾求가 남달랐으며 努力도 특별했다。▼이를테면 論說委員室에도 가장 먼저 出勤을하여 가장 늦게 退勤을 하는 毎日의 연속이었으며 그 日課도 版에 박은듯 한것이었다。外國에서 發刊되는 新聞과 時事週刊誌를 남에 앞서 精讀하는것은 말할나위도 없고 問題되는 新刊書籍도 빠짐없이 읽어서 判斷이나 思考에서 언제나 彈力을 저버리지 않았다。▼그리고 執筆의 나머지 時間은 즐겨 東西古今의 史書를 읽는것으로 樂을 삼았다。古代史에서 現代史에 이르기까지 通하지 않은 부문이 없었으며 이에 덧하여 種石翁 스스로가 겪은 最近世의 여러 歷史的經驗과 그것들을 年月、日時、場所까지 어김없이 記憶할수 있는 博覽強記는 翁으로 하여금 산歷史辭典으로 불리게 하였다。▼그러자니 種石翁의 藏書 또한 방대하여서 들레를 冊으로 병풍삼아야할 정도 였고 따라서 出費도 圖書구입비가 가장 크지 않았나 싶다。그러나 나머지 衣·食·住에는 검소하기 이를데 없었으며 오랜 居處이던 內需洞자택은 訪問客이 2·3人만 되어도 몸을 가누기가 어려운 그런 비좁은 집이었다。▼그러면서도 晩年에는 時價數億의 不動產을 자라나는 靑少年을 수련케하기 위해 YMCA에 기증하여 世人으로 하여금 놀라게했다。種石翁은 言論人의 元老로서 또는 努力과 執念으로 많은것을 成就한 生의 보람을 남기고 永眠했다。翁의 명복을 빌 따름이다.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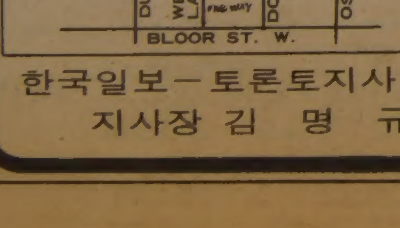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한국관
연중무휴
AM11시 새벽1시
특별메뉴
●식욕을 돋구는
된장찌게정식
순두부찌게정식
생선찌게정식
민어매운탕
즉석불고기정식
곰탕, 꼬리곰탕
입반죽 냉면
비빔냉면
회냉면
중국요리일절
결혼피로연, 환갑동창회
각종회의, 단체손님환영
※회의실 60석
성심 성의껏 엄가로 봉사하겠아오니 왕림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나옥녀 올림
531—02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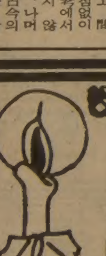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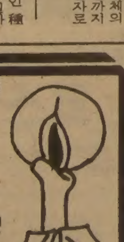
이전파티에의 초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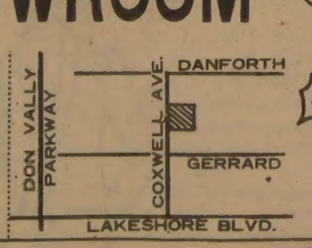
저희 한국일보—토론토사는 교민(독자, 광고주, 필자등) 여러분을 모시고, 아래와 같이 이전파티에 대한 자리를 마련키로 하였사오니 바쁘신 가운데라도 일차 찾아주시면 영광으로 생각하겠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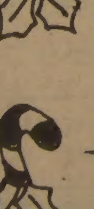
— 아 래 —
일 시: 11월14일(토) 오후2시~7시
장 소: 본사
주 소: 1025 DUPONT ST.
(두폰×도버코트)
전 화: 533-2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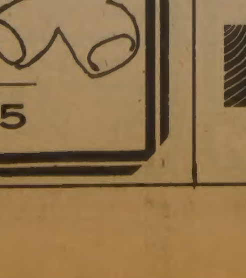
한국일보—토론토지사
지사장 김 명 규



X-MAS SHOWROOM
ROLLS & DARLINGTON
419 COXWELL AVE.
TORONTO,
TEL. 461—3555




버라이어티 스토아를 위해 우리는 가장 많은 장난감, 선물, 크리스마스카드, 장식용, 아동용 모델등 많은 물건을 준비했읍니다.

CASH & CARRY 또는
1월1일에 지불 할 수 있게 크레딧을 줍니다.


크리스마스 진열룸
매주: 일요일 오전9시~12시
목요일 오후6시~오후9시
12월까지

전화연락 또는 약속: 461—3555

목 공 소

교민 여러분을 위해
목공소를 개업합니다.
어떤일이든지 문의하시면
성심껏 봉사하겠읍니다.

● 상점 시설및 주택개조
싸우나 설치
● 진열장, 카운터, 홈빠,
책장, 찬장등 가구제작

※특히 이번 겨울동안 싸우나를 원하시는분은 10% 할인하여 드립니다.

FineWoodwork
879 Westport Cr. Unit 3, Mississauga, Ont.
676•1173 769•9468
조 상 민

「潜艦사건」 外交타결合意

스웨덴外相·蘇大使 오늘 2차會談

蘇、某種 타협안 提示할듯

"謝過로는 不充分" 경계態勢여전

【스톡홀름2日外信AP=聯合】스웨덴과 소련은 2일 스웨덴군사제한수역내에서 좌초한 소련잠수함을 둘러싼 양국간의 분규를 타결짓기위해 새로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

올라·울스텐 스웨덴외상은 1일밤 駐스웨덴소련대사 미하일·야코블레프와 회담한후 2일 회담을 재개키로 합의했다.

스웨덴정부소식통들은 이날 회담내용은 밝혀지지않았으나 야코블레프가 소련정부로부터 새로운 메시지를 갖고있다고 시사함으로써 소련측에 의해 모종의 타결안이 제시될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스웨덴국방성의 한대변인도 지난달27일이래 5일째 교착상태에빠져있는 소련잠수함문제가 곧 종식될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스웨덴 조사위원회가 이미 카를스크로나호텔에 와있는 스웨덴주재 소련외교관의 입회하에 문제의 잠수함 함장 피오트르·구르신대령과 인터뷰하기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있다고 덧붙였다.

스웨덴당국은 지금까지 소련이 구르신함장에게 하선하여 스웨덴의 발트해1급해군기지인 카를스크로나항인근 군사제한수역에 들어온 이유를 설명하도록 지시해줄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려왔다.

스웨덴관리들은 1일에도 두차례나 소련잠수함에승선, 함장과 대화를가졌으나 그는 여전히 본국으로부터 하선지시를 받지않는한 배를떠날수 없다고 고집하고있다고 전했다.

스웨덴외무성은 소련이 지난30일 영해침범에관한 공식사과문을 전달했으나 이것만으로는 충분치않다고말했다.

한편 스웨덴해군당국은 소련잠수함이 1일좌초지역에서 벗어나기 위해 엔진을 가동시키고 인근 공해에 잠수함이 나타난것이 포착되는등 새로운 사태진전이 나타나자 이잠수함이 自力이나 외부의 지원을받아 도망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에 대비, 경계태세를 일층 강화했다.

스웨덴군당국은 상륙정을 타고 대기중인 2백명의 공정대원을 포함, 5백명의 특수병력을 투입하고있다.

◇좌초된蘇潛艦에 몰린 報道陣 스웨덴의카를스크로나港에 몰려든 보도진들이 이항구근처에 발이묶여있는 소련잠수함을 가까이서 살피기위해 스웨덴연안 경비선에 타고있는 모습。소련잠수함에는 스웨덴당국의 下船요구를 거부하고있는 소련승무원들의 모습이 보인다。【카를스크로나 (스웨덴) 1日UPI=聯合】

좌초한 蘇잠수함 승무원들 스웨덴에 亡命요청 可能性

【스톡홀름31日AP=聯合】스웨덴해군기지부근의 군사제한수역에서 좌초된 소련잠수함승무원들은 좌초 5일만인 31일, 신경이 날카로와지기 시작, 함장을포함한 일부 승무원들이 스웨덴정부에 망명을 요청해올 가능성이있다고 스웨덴군장교들이 말했다.

잔·카를로스·단크바르트 스웨덴 육군대령은 사고잠수함내의 분위기가 긴장과 초조를 더해가고 있어 일부 승무원들이 망명을 요청해올 가능성을 배제할수없다고 말했으며 다른 군장교들도 소련관리들이 함장의 망명가능성을 우려, 함장의 상륙을 금하고 있다고 전했다.

"美、사우디에 軍事基地"

경보기 販賣로 蘇진출 對備위해 계획

【워싱턴1日UPI=聯合】미국의 對사우디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판매는 미군의 사우디주둔에 대비, 군사기지를 사우디에 건설하기위해 지난2년동안 카터및 레이건 두행정부가 작성한 비밀계획의 일환이라고 워싱턴·포스트지가 1일 보도했다.

포스트지는 이날 美국방성의 문서와 정통한 군사및 외교소식통을 인용, 그같이 보도하고 미국의 이비밀계획이 소련을 포함한 적대국들이 페르시아만의 산유국들을 장악하려고 시도할 경우에 대비, 美신속배치군(RDF)의 파견과 보급품의 사전배치를 목적으로 하고있다고 전했다.

이신문은 또 사우디에 전진군사기지건설목적에는 사우디가 주도하는 쿠웨이트와 바레인, 아랍에미리트연합、오만、카타르등 온건아랍국을 묶는 광역방공망의 구축도 포함되어있다고 보도했다.

포스트는 이어 미행정부의 이 비밀계획이 일단 유사시 페르시아만방위에 투입되는 미군의 신격중추부로 전환이 가능한 전자통제시스템을 사우디정부가 건설하도록 지원하는것을 포함하고있다고 말했다.

사우디내 미군주둔시설건설계획은 사우디주둔 미군사고문단책임자 찰즈·도넬리소장과 사우디공군책임자이며 왕족인 파하드·압둘라소령사이에 구두로 비밀리에 양해된 사항이며 AWACS의 판매는 바로 이 비밀계획의 한부분이라고 이신문은 덧붙였다.

한편 미국방성은 포스트지의 기사가『전혀 근거가없는 것』이라고 부인했다.

勞組각支部、罷業계속宣言

波의회 中止촉구決議案통과불구

【바르샤바1日UPI·AP=聯合】폴란드의회는 31일 자유노조에 모든파업을 즉각중지할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폴란드정부와 의회의 이같은 파업중지촉구에도 불구、全國각지역의 자유노조지도자들은 현재진행되고있는 파업을 중단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야루젤스키는 이에앞서 의회에 파업금지법안을 제출하는 동시에 자유노조원과 비공산당원들에 정부에서 보다 비중있는 역할을 부여하게된 국민합의위원회를 설치할것을 제의했다.

폴란드의회는 이날 당제1서기겸수상 야루젤스키가 제출한『파업금지법안』보다는 다소 온건한 내용이 담긴안에서 또 자유노조가 만약 의회의 파업중지결의안을 무시할 경우 정부에 파업을 강제로 금지시킬수있는 비상대권을 부여할것을 고려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사다트政敵들과 和解모색"

무바라크埃大統領、會見서 밝혀

【카이로1日UPI=聯合】무바라크이집트 대통령은 앞으로대내적으로는 故사다트 대통령의 정적들과 화해를모색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아랍세계에있는 故사다트 대통령의적대국들과 화해하기위한 제한된조치를 취할것이라고 말한것으로 미국의 워싱턴·포스트지가 1일 보도했다.

무바라크 대통령은 이날카이로에서가진 포스트지와의 인터뷰를통해 이집트의 외교정책、특히 이스라엘과의 평화과정이 순조롭게 시행되고있기때문에 자신은 전임자들과는 달리 국내의 절박한 사회·경제문제들에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무바라크대통령은 특히 국내안보가 자신이 처리해야할「주요문제」라면서 故사다트 대통령의 암살과 관련된 회교광신도들이 모두 체포되면 안보문제는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우디要人 곧訪埃

【카이로1日AP=聯合】사우디아라비아의『한 요인』이 이집트 정부관리들과 회담하기위해 곧 카이로를 방문할것으로 기대된다고 카이로에서 간행되는 주간지인 에·엘·무세프가 1일 보도했다.

이주간지는 또 페르시아만국가들의 통치자가족들을 대표하는 여성사절단이 故사다트 대통령의 유족을 위로하기위해 최근 카이로를 다녀갔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보도는 무바라크이집트 대통령이 이집트와 사우디가 그동안「비밀접촉」을 가져왔다는 일부보도들을 부인한지 하룻만에나온것이다.

外信안테나

◀캄聯合戰線결성 4개原則합의=反베트남 연합전선결성을 위해 방콕에서 회의를 개최중인 前캄보디아국가주석 노로돔·시아누크, 크메르루지지도자 키우·삼판, 前캄보디아수상 손·산등 3개파벌의 대표들은 31일 새로 결성되는 연합전선내에서 어느 단일파벌도 권력을 모두 장악하지 못하도록하는 원칙을 비롯, 연합전선결성 4개 기본정치원칙에 합의했다.【방콕=AP】

10월수출 20억弗 LC來到 14억弗

지난 10월중 수출은 20억5천8백만달러로 전년같은달보다 18.7%가 늘었으나 수출신용장내도액은 14억3천1백만원으로 전년동기의 94.1%수준에 머물렀다。수출신용장내도액이 1년전보다 줄어든것은 9월에 이어 두번째인데 이는 연말및 내년초의 수출에 어두운 전망을 내리게한다。

한편 10월말현재 수출실적누계는 1백75억8천만달러로 전년같은 기간보다 23·3%가 늘었고 신용장도착액은 1백46억8천2백만달러로 15·1%가 늘었다。

"이스라엘의 점차적破壞시도"

베긴、사우디中東平和案거부

【예루살렘1日UPI=聯合】베긴 이스라엘수상은 미국의 對사우디아라비아 중동평화안지지 결정과 관련, 레이건 미대통령에 서한을 보내고 사우디의 8개항 중동평화안은 이스라엘을 점차적으로 파괴하려는 시도라면서 이를 단호히 거부했다고 이스라엘 관리들이 1일 밝혔다.

베긴수상은 또 예루살렘에 있는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사우디의 파하드 왕태자가 지난8월에 발표한 중동평화안이『사실상 이스라엘을 무대에서 제거하는 방법에 관한 계획』으로서 이것이 채택되는 경우『중동평화의 커다란 장애』가 될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이를 무조건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레이건 대통령과 헤이그 미국무장관이 최근 사우디의 평화안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사우디가 이스라엘을 국가아닌 시온주의자들의실체로 부르고 있다는점을 지적, 이평화안이 평화롭게 생존할 권리를 인정한 중동국가 가운데는 이스라엘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베긴수상은 레이건 대통령과 헤이그장관이 여러차례에 걸쳐 캠프데이비드협정에 충실할것을 다짐했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은 그렇기때문에 중동평화에 반대하는 의미를 담고있는 사우디의 평화안을 무조건 거부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콜럼비아2號 카운트다운順調

【케이프·카내버럴1日UPI=聯合】미항공우주국(NASA)은 오는4일 상오7시30분(한국시간하오 9시30분)역사적인 제2차 우주왕복비행을 떠나는 우주왕복선 콜럼비아호에 대한 예비카운트·다운을 31일 상오1시(한국시간 하오3시) 부터 개시, 순조로운 카운트·다운이 계속되고 있다.

NASA관리들은 31일에 이어 휴일인 일요일에도 발사를앞둔 모든 기기의 점검에 들어갔는데『현재 불확실한것은 발사당일의 일기뿐이며 다른것은 모두 완벽한 상태』라고 밝혔다.

조·H·엥글、리처드·H·트룰리등 이번비행의 주조종사는 현재 텍사스주휴스턴에 있는 자택에서 구체적인 여행계획들을 검토하고 있는데 2일 케이프·카내베랄로 돌아가 다시 비상착륙연습을 할 계획이다.

生命工学時代를 산다 <5>

한국일보 특집시리즈를 읽고… 吳蒼翼

◇吳 蒼 翼씨

科學발전의 驚嘆뒤엔 恐怖뒤따라

原爆등 前例로보아 「善用약속」疑問

「變身」을 쓴 카프카는 역시 천재적인 작가였다. 하룻밤을 자고나니 크나큰 毒虫으로 변해버렸다던 그 變形奇譚이 60년이 지난 오늘 눈 앞의 실물로 현실화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요즘 매스컴을 통해 연일 보도되고 있는 소위 유전자 조작기술의 혁명, 그 산업화의 발돋움이 우리를 사뭇 당혹케하고 있다.

코끼리만한 돼지가 울안에서 꿀꿀대고, 토마토와 감자를 합성한 포메이토가 양산되고, 해바라기 한그루에서 콩이몇말씩이나 쏟아진다니 놀랍기만 하다. 앞으로 밀어닥칠 인구폭발에 대처할수 있는 이른바 綠色革命이 온다는 점에서는 마음 흐뭇해진다.

1년을 키워야 잡을수 있던 돼지를 불과 한 달만에 풍선처럼 부풀리고, 한마리를 잡아 천여명이 포식을 할수가 있다면 더 이상 바랄수 없는 획기적인 혁명이다.

그러나, 혁명이란 그 어떤 이유로든 생명에 한해서만은 절대로 용납될수 없는 禁忌의 낱말이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길가에 밟히는 가냘픈 잡풀에 이르기까지 무릇 생명이란 신성하고 존귀한 것。하늘이 내린 절대적인 명령이기 때문이다.〈絶對的〉이란〈個性的〉이란 말로도 통하는 것―물질적인 複製를 위해 그 〈性〉의 變造내지는 代價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종이전의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는 것이다. 존재의 이유마저 소멸되는 것이다.

문외한의 생각이지만 生命工學이란 코끼리만한 인간도、핸드 백에 넣고 다니는 마스코트만한 사람도 얼마든지 제조할수 있다는 학설.

따라서 遺傳子의 形質교환、細胞融合에 의해 문어같은 발달린 인간도、독수리같이 부리 가진 사람도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더욱 가공할 일은 나와 똑같은 複製人間도 수천 수만, 필요한대로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다는 보장이다.

기억컨대、유전자산업에 불이 붙어 요즘 企業株價가 날로 폭등하고 있다는 미국에서조차 3、4년전만해도 윤리적문제、人工細菌에 의한 무서운災殃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해서 이를 반대하는 데모가 연일 물결쳤었다.

그러던 그들이 지금은 조용히 함구를하고 있다. 默認일까、諦念일까. 모르긴해도、인간에 한해서만은 결코惡用될 수야 있겠느냐는 막연한 기대감은것、인간적인 양심의 보장이 나름대로 작용했다면…글쎄 좀 생각해 볼 일이다.

인간이야말로 양심이란 미명아래서 숱한 非理를 자행해 온 야누스와도같은 존재이니까.

1866년에 노벨이 내놓은 다이너마이트가 그랬고、1945년 히로시마가 폭로한 원자폭탄이 그랬다。얼마든지 善用할수 있다는 보장하에서 인류가 박수를 보냈던 혁명이지만 하나같이 가공할 무기로、드디어는 프랑켄슈타인의 악마로 변신을 하고 말았다.

그런 前科를 가진 인간이 이제 감자와 토마토를 합성하고、해바라기를 변종시켜 콩을 얻게 되는 유전자혁명을 시도했다면 약속대로의 선용、그것으로 그쳐 줄 것인가。原子革命의 再版은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그 누구도 보장할 수는 없다.

따라서、호랑이가 사슴으로、食人상어가 망둥이로 변신되지 말라는 보장도없으리라。호랑이가 없고 보면 산은 결국 草食動物의 왕국이 되어 풀한포기 없는 흙더미가 될 것이고、상어가 없는 바다 역시 고래만한 망둥이로 꽉 찰 것이 아니겠는가.

하늘과 땅의 공존은 마치 저울대의 역학관계와도 같다는 것은 국민학교 교과서에서 조차 상식화 된 이론。그들의 영원한 運行이야말로 톱니바퀴처럼 1㎜의 오차도 없는 정확한 진리로 유지되어 오는 것이다.

그러기에、언감생심 그 누구도 그들의 平衡의 원칙、운행질서를 정지시키려드는 사람은 없었다。태초이후 수 억년간 그 어떤 理念과 利害로도 범하지 않는다는 聖域으로 보존되어 왔다.

그런데、하늘엔 인간들이 쏘아올린 잔인한 로보트가 난무하고、지구상엔 폭군들의 하수인이 된 복제인간들이 풀 한포기 없는 붉은 산에서 마구 붉은질을 해댄다면 최후의 영지인 우리의 땅덩어리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상상하기조차 두렵다。이래도 예언자 노스트라다무스의 세기말의 종말설을 꿈같은 이야기라고 웃어넘길 것인가.

31일자 한국일보에 인용된 미국 리포트·그로브스타인교수의 경고가 새삼 가슴을 친다。『바이오 테크놀로지는 과학의 부정확성을 내포하고 있다。그것은 경탄에서 머무르지않고 공포의 대상이 될수도있다。예를들면 인위적으로 창조된 병원체에 의한 惡疫의 만연、생태학적인 불균형 초래、군국주의자들에 의한 가공할 신무기로서의 이용가능성도 있다…』충격적인 이야기다.

그러기에 기아와 아사자를 구제하기 위한 녹색혁명일지라도 위급환자를 치료하는 비상조치、결코 그 이상일 수는 없다는게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의 소박한 희망일지도 모른다.

문어발人間、마스코트型인간도 可能하다니

生命固守의 倫理·自然보존질서 維持를

어느덧 세계는 유전자산업의 돌풍에 휘말리고 있다。미국을 비롯한 프랑스、일본등의 기업들이 앞다투어 거액의 투자를 한다는 보도다.

아직은 엄격수출한 상태이지만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그 예외가 될수 없다。비록 소규모이지만 인터페론의 국내생산이 가능해진 우리가 아닌가。시설과 두뇌양성이 시급하다고 어느새 학계에서는 술렁대고 있는 눈치다.

또 다시 조물주의 버림받은 우주미아가 될수는 없다。누나인지 엄마인지 조차 모르는 여인과 사람을 팔고 사는 시험관 인간도 될수가 없다.

어떤 방법으로든 人間固守의 倫理、自然保存의 秩序는 우리의 손으로 유지되어야 한다。우리가 근간에 거국적으로 벌이고 있는 자연보호운동도 실은 자연계의 원형보지및 그 질서의 복원에 지나지 않는다.

템즈江의 오염을 인내와 노력으로 말끔히 씻어낸 영국인은 지금 그 강에서 수영과 낚시질을 즐기고 있지 않은가。우리야말로 유전자산업의 충격파를 붕어 한마리 놓지 못한 오염된 漢江변에서 겸허하게、보다 정직하게 반성하며 받아들여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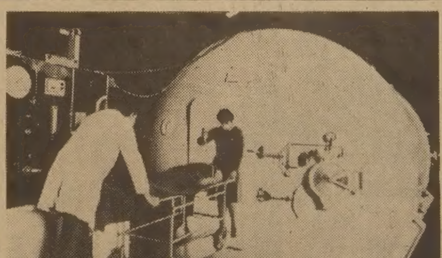
善과 惡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죄로 낙원에서 쫓겨났던 우리 이제 또다시 지구에서 밀려난다면、선악구별능력이 분명한 상태로 쫓겨난다면 갈곳이 어디인가。어디로 가야하는가。人間工學―이견탄「人間승리」가 왠지 내게만은 암울한 殘影을드리운다.

【筆者=1977년 한국일보 신춘문예隨筆당선·仁川전문대교수】〈끝〉

海外토픽

英、高比重性산소실 開發

환자10명同時수용可能…用途다양



영국에서 최근개발된 高比重性산소실〈사진〉은 기압·산소유동·습도및 온도를 면밀히 통제、인체에미치는 일체의 영향을 막아주도록 際환경을 조성해주는것이다.

영국의 애과·로지스틱스社가 英海軍病院을위해 고안한 이 특수치료실은 특히 화상、가스壞疽 및 일산화탄산가스중독、잠수부의 저기압병등의 치료에 높은 효과가 있으며 의사나 간호원및 기타의료기사들은 일반병원의 수술실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속에서 치료를 할수 있는데 최고 10명의 환자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다。【1日=聯合】

메아리

도둑 潛水艦

며칠사이에 세계의 도시들이 전멸할거라는 3차대전은 과연 어떻게 진행될까?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스위스의 민방위계획은 3차대전이 길어봤자 2주일이라는 전제로 짜여져있다. 70년대초부터 전국에 짓고있는 지하대피호가 모두 15일동안 견딜수있게된것이다. 침대와 화장실은 물론, 식량·물·의약품등이 15일분, 게다가 6백40만인구에 1만5천床의 침대를 가진 지하병원시설이 끝났다. 지하 대피호도 처음엔 30명을 수용하는 작은것들을 따로 만들었지만, 최근엔 지상건물과 연결시켜서 짓고있다.

그래서 스위스시민들이 먹는 식료품은 모두가 지하대피호에 일단 저장됐다가 나온「묵은것」들이다.

이런 지하대피시설로 말하면 스위스와함께 스웨덴을 꼽아야된다. 『스웨덴과 스위스는 세계 최고』라고 스웨덴민방위관계자도 말하고있다. 현재 8백50만인구중 5백80만을 수용할수있는 지하대피시설을 갖고있다.

스웨덴이 1809년이후 1백70년동안 전쟁에 휘말리지않은 것은 두말할것도 없이「무장중립」때문이었다. 스웨덴의 육·해·공 상비군은 고작 6만4천명. 이중 징집으로 복무하는 병사는 8천명이다. 그러나 영국의 전략문제연구소는 스웨덴이 82시간안에 70만명의 예비군을 동원할수있다고 보고있다.

이들은 북극의 핀란드접경에서 남으로 덴마크를 바라보는 해협에 이르기까지 전국토에 흩어져있는 군수품비축기지에서 보급받아 싸우게된다. 이러한 비축기지는 4천개가 넘는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밖에도 전국민의 50%가 민방위·경제방위등에 동원된다는게 스웨덴의 소위「총력방위전략」이다.

그래서 스웨덴은 핵무장을 거부하고있지만 4백30대의 고성능 국산전투기를 가진 유럽에서 손가락꼽는 공군등 우수한 군사력을자랑하고 있다.

기술적으로 총력방위의 바탕은 우수한「조기경보시스템」이다. 그러나 빈틈없이 짜여진것으로 알았던 스웨덴의 방위망에 구멍이 뚫렸다는게 밝혀졌다. 스웨덴남부해안 해군기지인 카를스크로나항에서 15㎞떨어진 비밀지하군사시설근처 금지구역에서 소련잠수함이 좌초한 것이다. 바위와 섬이 불쑥불쑥 튀어나온 多島海에 소련잠수함이 기어들어와 좌초한줄도 모르고있다가 12시간뒤 어선이 발견한 것이다.

덜미를 잡힌 도둑고양이 꼴이 된 소련의몰골도 몰골이지만, 무장중립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것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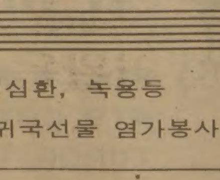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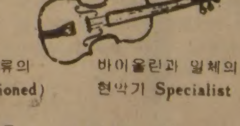
KAWAI 피아노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큰 회사 중의 하나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일본 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HILLCREST MALL ☎: 883—9407
●MARKHAM PLACE ☎: 881—8211
대표 : 윤호섭
세일즈 매니저 : 알렌

코스모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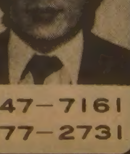
동양인에게 어울리는 유명 메이커
숙녀복(size 5 ~ 16)
좋은 가격으로 봉사
품질좋고 가격좋은
아동복(신생아~16)
똑같은 옷으로 다른곳 보다 저렴한 가격임을 약속드림.
월요일~토요일 : 10시~7시
706BLOOR ST·W
☎:534-2003

BIG SEVEN무역선물센타
(구 아세아선물센타)
●우황청심환, 녹용등
●각종 귀국선물 염가봉사
678 BLOOR ST. W. (고려식품 옆)
☎ : 533—7966 김 영 철

모든 악기를 취급합니다
부속품 · 악기수리 · 대여
Remenyi
house of music
1890년에 설립


토론토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피아노 (새것과 Reconditioned)
바이올린과 일체의 현악기 Specialist
210 Bloor St.W. Tor. Tel : 961—3111

거북이선물집
각종귀국선물 염가봉사
617 BLOOR ST. W. TOR.
☎ : B) 535-2143 R) 656-3446
대표 이 정 석

新新酒樓
SUN SUN RESTAURANT
정통적 중국음식. 뱅킷·카트에 담아서 원하는 대로 픽업하는 식사와 정찬.
영업시간 : 월~일(9시~오후11)
490 DUNDAS ST. W. TOR.
☎ : 977—3142 (스파다이나 코너)
닭, 오리, 돼지, 바베큐신설

Grant Brown
새차및 81년도 데모카
특별세일(매출)
GMAC 이자율 14.2%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이한구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김명종 한약방
침, 보약(탕약과 에키스 약제), 심신 모두 피로, 기혈부족, 신경과민, 노이로제, 허리병, 근육통, 부인병, 불임증등에 대한 한약과 녹용, 웅담.
한약과 경전인 본 초방약에 의거한 진맥과 처방으로 조제함.
2433 FINCH AVE. W. #411
☎ : 745—2058

韓·加의 詩는 비슷한 분위기

한국 찾은 加 대표적 詩人 레이튼박사

佛敎유적·民俗서 神秘와驚異 느껴
위대한 詩人은 人間·진실을 찬미
「나의형님 예수」로 詩壇·종교계에 波紋

文學 話題

캐나다에서 가장 주목받는 詩人으로 꼽히는 어빙·레이튼씨(69)가 서울을 찾아왔다. 어빙·레이튼씨의 詩作品은 캐나다 詩史에 크게 영향을 미쳐『50년대 후반에서 60년대까지 레이튼박사가 끼친 영향력을 제외한다면 캐나다의 詩는 존재할수없다』고 평가되고 있다.

레이튼박사는 서울에 오기전에 英譯된 한국시 64편을 읽고 왔다. 그는 한국시를 읽으며 한국시와 캐나다의 詩가 여러가지로 매우 비슷한 氣分을 지니고 있다는 印象을 받았다고 한다.

『國境을 함께 나누고 있고, 같은 영어를 쓰는 美國詩는 캐나다의詩와 다른점이 오히려 많은 데, 서로 다른 지역에서 다른言語를쓰는 한국과 캐나다의 詩가 서로 비슷한 면을 보여주는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한국시에있는 自然에 대한 圖騰사상, 인간성과 삶에 대한 同情心과 연민의 情을 소재로삼는것, 抒情性 옹호등은 캐나다의詩에서도 볼수 있는 공통되는 분위기이지요. 두 나라의 詩가 같은분위기를 띠고 있다는것을 느꼈기때문인지 처음 보는 서울도 별로 낯설지가 않군요』

레이튼박사는 慶州·국립박물관·민속예술등을 살펴보고 한국의 불교유적·그림·민속무용등에서 「깜짝놀랄만한 神秘와 驚異」를 느꼈다고한다. 그리고 「이토록 신비스럽고 예술적정취가 드높은 한국의 美가 왜 세계에알려지지않고있는가 매우 의아하게 여기고있다』고말한다.

서울의 거리에서는 대단히 발랄한 기백을 느껴, 20세기에 現代 스타일로 다시 변형돼 나타난 19세기 서부개척시대를 연상하게된다고 비유한다.

한국의 佛像, 건물, 조각, 그림, 서울의 풍경등에서 받은 美的·예술적 감동 덕분으로 몇 편의 새로운 詩作品을 낳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뻐한다.

레이튼박사는 국민학교에 다니던 10세 무렵에 아름다운 여선생님에게 매혹돼 사랑의 詩를 쓰게 된것을 계기로 詩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캐나다 맥도널드대학과 비숍대학에서 문학과 법학을 전공하고 명예 법학박사학위를 받은 법학도이기도 한 레이튼 박사는 40년대 후반에 시집 「나의 형님 예수」를출간, 캐나다 詩壇과 종교인 사회에 커다란쇼크를 주었다.

『나의형님 예수』는 예수의 神性을 부인, 예수를 훌륭한 生을 살다간 한사람의 人格으로 규정하며 기독교에서주장하는 唯一神을 부정하는詩作品들을 모았던 詩集이다. 그는 시집속에서 기독교의 原罪의식을 털어버려 生과現世를 과감하게 찬미하고 現世에서 이루는 인간끼리의 완전한 사랑과 인간의 良心과 眞實만이 우리를 행복하게하고 神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란는 메시지를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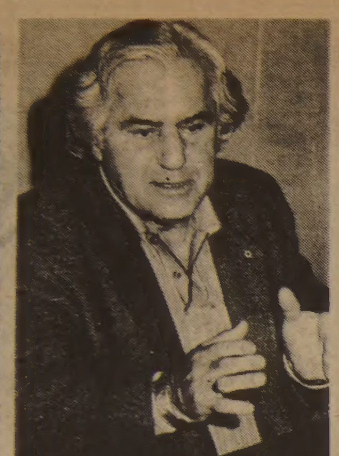
『당시 서구지식인 사회에서는 저의생각과 같은생각을 누구나 다하고 있었지요. 그러나 감히 그생각을 詩로쓰거나 하지않은 가운데 제가 그같은 詩를 대답하게들고나와 「캐나다의 D·H·로런스」「偶像과괴주의자」라는 비유를 듣기까지 했어요. 저는 神에 대한 관심보다는 우리들 자신, 즉 人間에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사람에서 아름다움을 보면 詩를 쓰지않을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의 詩는 대부분 現生과 自然을 찬미하는 소재를 다루며, 오래전부터 자비와 동정을 가르치는 불교를 공부하고 있어, 서로 연민하고 동정하는 사랑의 테마를 자주 다루기도합니다』

그의 詩의 특징은 캐나다의 現代詩壇의 전체적 특징을 대표한다. 캐나다의 詩와 소설은 자연환경에 적지않은 영향을 받아, 북쪽으로 펼쳐진 끝없는 氷原을 보며 自然과의 유대의식과 본질의순수한 허무의식을 떠게 되고, 남쪽으로 강대한 美國을 접하며 산업·기계 문명속에서 교차하는 눈물과 웃음을 연민하는 필치로 묘사한다.

그는 현대시인의 종류를 「고래」같이 위대한 시인과 「새우」같이 미미한 시인으로 나눠, 인간존엄성을 옹호하고 진실과 자유에대한 관심을 그리는 시인을 위대한 시인으로, 남회실하고 모호한 관념및 想像을 그리거나 잠식적인 아름다운 단어만을 늘어놓는 시인을 미미한 시인으로 구분한다. 어빙·레이튼은 루마니아에서 출생했으나 유년은 캐나다에서 지냈으며 현재 터론토대학 객원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캐나다 文化에끼친 그의 공적으로 캐나다문화재단상과 정부훈장을 세 차례 수상했다. 레이튼씨는 한국국제 문화협회의 초청으로 내한했다.

【禹桂淑기자】



◇서울을 찾아온 캐나다의 詩人 어빙·레이튼씨. 그는 『한국시와 캐나다의 시의 분위기가 매우 흡사하다』고 말한다.

美國人들 한국理解度 낮다

修交 1백주년…韓·美 첫 학술회의

82년은 수호조약으로 맺어진 '한·미관계가 1백주년을 맞는 해이다. 이를 기념하는 한·미양국의 첫 학술회의가 高大 아세아문제연구소와 美 콜럼비아大 東亞研究소 주최로 29일부터 31일까지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韓·美관계를 역사적으로 재조망하고 현재를 분석, 미래를 내다보기 위해 마련된 이번회의에는 양국학자 10여명이 참석, 주제발표를 했다. 다음은 林熺燮교수(高大)가 발표한 「한국에서의 미국문화수용」과 美포토맥협회 윌리엄·와츠이사장의 「한국과 미국 그인식과 현실」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李炳日기자】

미국문화 수용 — 林熺燮교수

접촉기회 宣敎師~大衆媒體의 5단계

한·미문화의 접촉은 지난 1백년동안 접촉통로와 시대에 따라 다음 다섯가지 형태로 나눌수 있다.

첫째 프로티스탄티즘의 수용이다. 1885년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사들의 도착으로 본격적으로 소개되기시작한 프로티스탄티즘을 한국사람들은 단순히 종교적 신념체계로만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그속에 깃들어있는 평등사상과 합리주의및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배우고 사회개혁과 독립의 의지를 키웠다.

둘째 해방후에 있었던 미국식 제도의 수용이다. 바로 「문화의 차용」이라 할수있다. 해방을 맞이했을때 식민지시대의 제도를 대체할 준비가 되어있지않아 미국식제도를 선택의 여지없이 받아들였다. 6·3·3·4의학제가 좋은 예이다.

세째 한국전쟁중 GI문화와의 접촉이다. 한미수교 1백년동안 일반시민들이 대량으로 직접 접촉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GI문화는일반미국시민들의 생활상과는 차이가 있는 「군인下位문화」로 한국사람은 아주 선택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한국사람들은 GI와의 계속되는 접촉으로 실용주의, 평등사상, 물질주의, 개인주의를 배웠다.

네째 지식인들에의한 미국 엘리트문화의 수용이다. 해방후 50년대까지는 일본에서 교육받은 사람이 사회모든부분에서 지도적역할을 했으나 60년대부터는 미국에서 교육받은 사람으로 바뀌었다. 정부통계에의하면 15년부터 73년까지 해외유학한 사람의 87%가 미국에서 공부했다. 67년엔 서울大교수의 51%가 1년이상 미국에서 공부한것으로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들은 미국문화수용에 있어 여과기능을 다했는데 특히과학기술수용에있어 이들은 큰 역할을 했다.

마지막으로 대중매체를 통한 미국문화의 수용이다. 76년에 한조사에의하면 대학생의 67%가 대중매체를 통해 미국문화에 대한 지식을 얻고있다. 한예로 73년 KBS·TV는 방송시간의 18%, TBC는 22%, MBC는 21%를 미국에서 만든 프로로 채웠다. 어린이시간은 KBS가 41%, TBC는 76%, MBC는 62%를 미국프로로 메웠다.

平等·民主·合理주의 기여
分斷·傳統약화 부작용도

76년 고려대학생 6백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를 보면 한국대학생들은 미국문화를 상당히 과장하거나 왜곡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의 한국에대한 기여로 군사원조(22·9%), 경제원조(20·7%), 민주제도의 도입(9·6%)을 들었고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한국분단(13·2%), 의타심(12·8%), 전통문화의 약화(10%)를 꼽았다. 미국문화에서 받아들여야할 점으로 프런티어정신(12%), 민주주의(7·7%), 실용주의(7·8%)를 지적한데 반해 받아들여서는 안될점으로 퇴폐(20·2%), 극단적인 개인주의(16%), 물질주의(15%)를 들었다.

앞으로도 한미관계는 두나라 사이에 결정적인 변화가 없는한 계속될것 같다.

요즘 지식인들사이에 다른나라 문화보다 미국문화가 많이 들어오고 전통문화가 약화되는것을 우려하는 현상은 이해할만한 일로 국수주의와는 다른 자기것을 찾으려는 노력으로 보아야 한다.

한국을 보는눈 — 윌리엄·와츠

"社會환경 越南과 비슷한나라"로 認識

미국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이해도는 낮은 편이다. 78년 현재 18세이상의 성인중 15%가 한반도가 일본과 접해있는것으로 알고있고 12%는 한국을 섬나라로 잘못알고있다. 인도와 접해있다고 대답한 사람도 4%나된다.

미국의 무역대상국으로서의 한국의 비중에 대해서도 16%(대학졸업자19%)만이 15위이내의 무역국이라고 바르게 대답했을뿐 36%는 40위이내, 23%는 75위이내라고 대답했다. 75위밖으로 알고있는 사람도 17%나됐다. 한국은 78년부터 미국의 14번째 큰 무역대상국으로 부상했다.

미국사람들은 아직도 한국이 미국의 경제원조를 받고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80년 조사에의하면 大卒의 88%, 18세이상의 유능한 성인의 81%가 『미국이 경제원조를 하고있다』고 대답했다. 한국은 미국과 경제협력관계는 맺고있어도 경제원조는 받지 않고있다.

한국과 북한의 정치체제는 비교적 잘알고 있었다. 그러나 성인의 30%, 大卒의 15%는 북한이 공산주의체제인 것을 몰랐고 오히려 성인의 16%, 大卒의 11%는 거꾸로 알고있을 정도.

한국·일본·월남 3나라의 사회현상비교에서도 미국사람들은 한국을 월남과 비슷한 나라로 생각했다. 33%가 한국이 「더럽고 비위생적이다」고 대답했고 월남은 44%였다. 일본은 5%만이 그렇게 생각했다. 「범죄가 많고 불안하다」는 14%로 월남의 18%보다 낮았으나 일본의 3%보다는 월등히 높았다. 산업화및 현대화에 대해서는 4~6%가 이해하고 있었으나 일본의 30~50%를 따르지 못했다.

한국의 높은교육수준을 알고있는 사람도 2%에 그쳤다. 이비율은 월남사람들의 교육수준에 대한 이해비율과 같은것으로 일본의 38%에 미치지 못했다.

철도·도로·항공시설에대한 이해도 한국과 월남은 1~2%였으나 일본은 15%였다. 한국사람의 근면성에대한 이해도는 70%로 비교적 높았으나 이것도 일본의 95%보다 상당히 뒤떨어졌다.

한국인이 평화적이라고 믿는사람은 50%인반면 일본사람에 대해서는 69%로 더높게 나타났다. 한국사람들의 창의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다. 30%가 창의적이라고 대답한데 비해 60%는 모방성이 강한 민족으로 보았다. 일본사람에 대해서는 모방성(24%)보다 창의성(72%)을 높게 평가했다.

"아직 經濟원조받는다" 오해
正直·平和사랑 日本에 뒤져

정직성은 반에 못미치는 46%가 한국사람이 정직하다고 보았고 사기성이 높다고 본 사람도 43%나 됐다. 반대로 일본사람에 대해서는 64%가 정직하다고 지적했고 사기성을 든 사람은 28%로 비교적 비율이 낮았다.

미국이 국가이익을 추구하는데 한국이 「아주 중요하다」 「꽤 중요하다」고 대답한 사람은 35%, 69%였다. 한국은 브라질의 34%와 69%, 인도의 33%, 70%와 엇비슷했으나 일본의 58%, 89%, 이스라엘의 57%, 86%보다는 낮았다.

한편 주한미군을 증강하거나 현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사람이 58%인데 비해 감축및 철수를 주장한 사람은 33%였다.

29일부터 31일까지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수교1백주년기념 한미관계 국제학술회의.

인터뷰

「描法」개인展갖는 朴栖甫씨

1백50호大作등 40점 출품
"自己초월해야 참다운 作家"

서양화중에서도 비구상이라면 가장 「非東洋的」일것 같은 느낌이다. 그러나 우리나라前衛美術의 기수로 자타가 공인하는 朴栖甫화백(50·弘大교수)은 첫마디부터 동양철학을 끄집어낸다.

『화가는 예술가가 되기전에 선비가돼야합니다. 그것도 道家的인 사상에 따라 「自己」란는것을 의식하지 않을때, 다시말해 자기스스로부터 해방될때 참다운 작가가 될수있다는것이 저의 체험입니다』

無爲自然說같기도하고 解脫을 주장하는것 같기도한 그의 이론이 3일부터 9일까지 現代화랑의 초대전을통해 그림으로나타난다. 76년 通仁화랑에서열린 개인전이후 처음으로 국내에서 개인전을갖는 그는 1백50호짜리의 대작을 비롯, 40점을 선보인다.

작품은 그가 10여년전부터 꾸준히 그려온 「描法」시리즈. 캔버스를 물감으로 뒤덮고 그것이 마르기전에 그위에 연필로 선을 그은다음 물감으로 지우고 다시 선을 그은 반복행위의 작품이다.

『얼핏 국민학생들의 낙서 같은 이선들은 자기로부터의 해방을위한 반복된 행위의 흔적이지요. 따라서 인간의 의지가 가장표백된 흰색을 바탕으로 하고있지만 「흰색의개성」마저 중화시키기위해 5~6가지 색을섞어 쓰지요』

초기의 描法시리즈는 일정한 방향을향한 계속적인 선의 반복으로 때로는 형태를 지닌 구성적형태를지녔으나 최근 들어서는 운동의 自律性을 드러내고있다. 『그리는것이아니라 노니는경지』에이른것이다.

『저는 캔버스위에알루미늄새시를 걸쳐놓고 그위에 엎드려 작업을 하지요. 그러면 새시가 저의 체중으로 흔들리는데 그 율동이 저의 호흡과 일체가될때, 비로소 내자신을 비우게됩니다.』

경북醴泉출신인 朴화백은 54년 弘大를 졸업한직후부터 앙포르멜운동에 앞장섰으며 77년부터는 美協이사장으로 일했다. 지난해 이 자리에서 물러난그는 경기도 安城郡 孔道面 大林洞에 화실을 새로마련하고작업에전념하고있다.

『요즘들어 내 작품에서 技보다 氣가 앞서고 있다면 그것은 속진을 떨쳐버린 새 화실주변의 자연덕택일 겁니다.』【梁 주기자】

◇『참다운그림은 그리는것이 아니라 노니는것』이라고 말하는 朴栖甫화백.

文化短信

부산서 考古學대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가 7일 상오9시부터 釜山 東亞大에서 열린다.

연구및 조사보고자는 尹世英(高大)、林炳泰(崇田大)、沈奉謹(東亞大)、西谷正(日本九州大)、安春培(釜山女大)、李殷昌(曉星女大)、申敬澈(釜山大)、崔鍾圭(慶州박물관)、鄭澄元(釜山大).

雁鴨池유물 특별展

국립경주박물관(관장 韓炳三)은 지난 75~76년 雁鴨池유적에서 발굴된 출토유물을 특별전시한다. 매주 월요일만 휴관하고 내년1월말까지 계속.

弘大生「6인전」

弘益大 서양화과 졸업반학생들의 모임인 「6인전」이 7일까지 仁寺洞 통인화랑에서 열리고있다. 葛琦, 김재웅, 박경숙, 신동석, 윤영재, 장동렬등의 학구적인작품을 선보인다.

YMCA·YWCA 8일부터 기도주간

세계YMCA·YWCA는 8일~14일을 기도주간및 국제친선기간으로 설정, 「平和를위한 공동기도」를 갖는다.

【고침】 31일자 한국일보 일부지역 7면에 실린 「일하며 생각하며」의 필자 「朴鍾愛」는 朴鈴愛씨의 잘못이었으므로 바로잡습니다.

臺北서 韓中作家會

제1회 韓·中作家會議가 11월2일~8일 臺北市에서 열린다. 한국소설가협회와 중국작가협회가 앞으로 매년 공동주최하기로한 韓·中作家회의의 이번 첫회의에서는 우리나라의 全光鏞·成耆兆·丘仁煥씨등의 문인이 한국문학의 변천상황과 특징에대해 강연한다.

금요여성교실 개강 天主敎 서울대교구

천주교서울대교구 교육국(☏028-1372)은 11월의 「금요여성교실」강의를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시간은 상오11시~12시30분, 회비는 1천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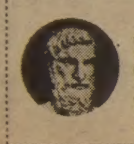
▲6일=「참부가 되는 길」(이춘식·박은희·M·E부부) ▲13일=「임신과 피임」(김수평·성모병원의사) ▲20일=「부인건강」(김수평) ▲「가정문제상담실례」(차명희·가정법률상담소)

국제관계 학술회의

한국국제정치학회주최 제3차 국제학술회의가 5일부터 7일까지 서울플라자호텔에서 「80년대의 국제관계—이론과 정책」이란 주제로 열린다.

주제발표자는 칸더도·멘데스(세계정치학회장), 로버트·팔츠그라프(터프츠大), 廬在鳳(延大), 해리·하딩(美스탠퍼드大), 브리윈·리히(홍콩 中文大), 프리드리히·레비치(빈 비교경제연구소), 고트프리트·칼킨더만(서독튀빙겐大), 朴煩緒(국제경제연구원), 요시유끼·하끼와라(동경아시아경제연구소), 韓昇洲(高大), 李承潤(재무부장관), 브루스·러셀(美예일大), 河英善(서울大), 李承憲(建國大), 劉鍾海(延大), 崔完植(한공대), 洪亮灼(慶北大), 申熙錫(외교안보연구원), 魚秀永(同), 金龍瑞(同), 李相禹(西江大), 俞煥(국제경제연구원).

歷史의 名言



그리스 哲學者, 그의 조상은 아테네의 貴族。인간에 공통적인 유일한 認識의 근거는 感性的知覺임을 주장, 道德의 실천에 따른 정신적 快樂을 추구。快樂主義는, 그 說의 俗化임。主著「自然에 관하여」。

最高의 善은 幸福이며 最高의 惡은 苦痛이다。

× × ×

最高의 善은 幸福이며 最高의 惡은 苦痛이다

에피쿠로스 〈前342~前270〉

에피쿠리안(快樂主義者)의 元祖로 불리는 에피쿠로스(Epikouros)는 14세때부터 哲學에 흥미를 가졌으며 데모크리토스哲學에 결정적 영향을 받아 이것이 그의 快樂論, 原子論의 배경이 되었다.

아테네에 에피쿠로스學派의 시초가되는學園을 만들었는데 완전한 全寮制에 최초의 男女共學制여서 이때문에 反對派의 무책임한 가십대상이되기도했다. 그는 36년 이상을 여기서 單純素朴한 세상을등진 생활을 학생들과 함께 보냈다.

그는 晩年에 길고도 괴로운 병에 걸렸으나 哲學的忍耐와 勇氣로써 참아 天壽를 다했다.

스토아派의 哲學이 德은 德그자체를 추구하는데뜻이있다고한데反해, 德은幸福에의 길이기때문에 추구돼야한다며, 즉 幸福이 궁극의 目的이라고 내세운다. 그러면서 幸福이란 肉體의 快樂이 아니고 修養의결과 얻어지는 平靜의 精神의 平和라고했다.

人間이 죽음이나 神들에의 두려움, 우리들을 둘러싼 모든 힘에의 恐怖를 피해 마음의 平靜을 갖기위해선 첫째公的인 任務를 맡지말것, 결혼하거나 어린애를 안가질것, 隱棲生活을할것등을 주장한다. 人間의 至高하고도 궁극의목적은 感覺을 통해 얻어지는 기쁨에있다.

그러나 이는 肉體的快樂이나 방자가 아니고 道德的·消極的인것으로, 공포와 고통으로부터의 自由, 육체와 정신이 외부의 것에 의해 동요되지 않은 獨立된 상태를 가리킨다.

그는 전통적종교·폴리스의 전통이 붕괴된 時代에 살면서, 자기마음의 태도에서 행복을 찾아내며, 公共의 생활을 피하고, 마음의 平靜을 지키며, 아무것에도 동요되지않은채 純粹하게 사는것이야말로 幸福이라고 하는 새로운 태도를 내 세운것이다.

韓·美·日協力논의

어제 2차韓美政策협의회 開幕

제2차 韓美政策協議會가 2일 외무부회의실에서개막, 韓美양국간의 외교현안문제를 협의했다.

10·26사태직전인 79년5월 慶州에서 제1차회의를 개최한이후 2년반만에 再開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한반도를비롯한 東北亞정세전반과 특히 소련의 膨脹勢에 대비한 양국간의 安保協力, 韓日간의 安保·經協의 필요성과 東北亞의 안정구축을 위한 韓·美·日3국간의 기존협력의 증진방안등이 포괄적으로 거론된것으로 알려졌다.

상·하오등 2차례에 걸쳐 계속된 이번 회의에는 정부측에서 孔魯明 외무부제1차관보가, 美側에서는 폴·월포이츠 국무성정책기획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861

流星의 賦 〈224〉

李炳注 作 李友範 畵

秋風何處至 ㉒

10월19일, 생포된 옥남과 춘룡의 친국이 있었다. 임금이 물었다.

『너의집에 왕래하던 자의 이름을 죄다대라. 누구누구 였던가』

옥남의 대답은 소상했다.

『모주(謀主)는 길삼봉 입니다. 고부에사는 한경태의 송간, 남원의 국유직, 신여성, 황해도의 김세겸, 반연령, 이기, 이광수, 박익, 박문장, 변숭복등은 모두 공모한 사이옵고, 지함두, 중 의연은 어디 사람인진 모르오나 항상 집에 드나들었읍니다』

『길삼봉은 뭣하는 놈이냐』

『힘이 장사이고 무술에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자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계룡산에도 있고 구월산에도 있고 지리산에도 있고 하여 거처를 알수 없읍니다. 들으니 둔갑술(遁甲術)과 축지술(縮地術)에 능하다고 하옵니다』

『박연령은 무엇 하는 놈이냐』

『한성의 소식을 탐지하기도 하고 황해도에 갔다 왔다하고 있었읍니다』

『지함두란 자는 무엇 하는 놈이냐』

『항상 아버지 곁에 있으며 의논상대가 되었읍니다』

『중 의연은 무엇을 했느냐』

『우리들을 위해 불공을 올리는 한편, 중속(衆俗)들에게 좋은 세상이 온다는 말을 퍼뜨렸읍니다』

이렇게 차례대로 옥남은 자백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송간과 조유직, 신여성은 끝내 죄를 자복하지 않았다. 그들은 진정 억울하기도 했다. 특히 송간은 정여립의 특청으로 두어 번 만나기는 했으나 일찍이 그 심사가 좋지 못한 줄을 알고 오랫동안 절연하고 있었던 터였다. 송간은 혹독한 고문 사이에 이런 사연도 말했다. 그러나

『그럼 왜 정여립의 속셈을 짐작했으면서도 고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른바 불고부도죄(不告不道罪)로, 엄답을과 함께 능지처참의 형을 받았다.

송간의 그런 사정을 이정란을 통해 알고 있는 홍계남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만은 살려주고 싶었으나 이정란까지 불고죄(不告罪)로 몰려야 하는 판국에 있어선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

『송간이 그 무렵 관에 정여립의 모반을 고했더라면 동인들의 동살에 되려 무고죄로 몰릴 판인데 어떻게 했겠읍니까. 그만은 도와주소서』

하고 계남이 이영에게 간원했지만

『법(法)이란 것은 둥근 바위가 울툭불툭한 지형(地形)위로 굴러가는 것과 같으니라. 일일이 공평할 수는 없느니. 불쌍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 내 자신에게 무슨 권능이 있는 것도 아니니 말이다』

『임금님께 한마디라도 여쭐수 있지 않겠읍니까』

『그럴수야 있지. 그러나 이다음 꼭 구해주어야 할 사람이 억울한 처지에 놓였을때를 생각해서 그런 기회는 아껴둘수밖에 없느니라. 박빙여리(薄氷如履)로 살아야 할 세상에 언제 그런일을 당할지 모르는게 아니냐. 바로 자네가 말이다』

이영의 이말에 원려(遠慮)가 있다고 생각하고 홍계남은 그이상 간청하길 삼갔지만 무인 송간의 죽음은 두고두고 홍계남의 가슴에 안타까운 감정을 남겼다.

한밭식품

맛있는 햇물들이 가득 들어왔읍니다.

○햅 쌀

○햇사과 : Red Delicious, 마쯔 등

○김장용 배추와 무 (단무지무, 동김치용무 ,총각무)

○여러가지 젓갈류(멸치젓, 새우젓, 황새기젓)

○김장용 고추가루 ○양념 일체

※ 김장철에 한해서 무료배달해 드립니다. (오후시간에 한함)

466 South Service Rd. Missi. Ont.
(Cawthra Rd.와 Hwy10 중간. QEW 옆)

TEL. 274-5401 (B), 625-1078 (R)

배달 사고를 줄입시다

한국일보는 주5일 발행되어 발행된 당일 토론토 남단 사우스·센트럴 우편물 분류공장을 통해 전국 독자에 발송됩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또 요일에 따라 배달이 지연되고 2~3일치를 함께 받는 독자들이 있어 퍽 유감스럽게 생각되고 있읍니다.

신문이 신속 정확하게 배달될수록 구독자는 더욱 증가할 것은 명확하므로 이 사실 하나만을 위해서도 본사는 더욱 배달사고 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읍니다.

그러나 캐나다의 우편제도는 선진국치고는 퍽 뒤떨어져 있어 본사의 노력만큼 배달 사고가 줄지않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다소나마 배달사고를 막기 위해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①신문에 찍힌 주소와 이름이 정확한지 확인하십시요.
아파트 번호, 우편번호를 확인할 것.
비슷한 이름이 동일건물에 또 있을 경우(예 : Kim, Lee, Park) 성명(Full Name)을 확인할 것.

②임시배달부가 배달할 경우 또는 배달부가 바뀔 경우에 대비, 아래 절취선을 오려서 배달부가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우편함(Mail Box)에 붙이십시오.

③관할 지역우체국의 감독관(수퍼바이저)에게 전화, 편지, 또는 직접 찾아가서 항의하십시오.

Dear Mailperson :

Hi !
THE KOREA TIMES is a daily newspaper. I'm supposed to receive this paper every day.
Your co-operation will be much appreciated
Thank you. Mr/Mrs. ○○○

◆이 편지를 우편함에 붙이십시오.

※신문은 2종 우편물이기 때문에 우체국에서 1종 우편물 처럼 배달을 해주지 않읍니다.

한 국 일 보

꽃도매상
437 CARLAW ST.
☎ : 465-8'167

사소한 動機 툭하면 殺人

"核가족화·메마른 인정·불안 원인"

한달새 10여件 잇따라 발생

우는 아들 내던져 죽이기까지

납득할만한 동기를 발견할수없는 살인사건이 많아졌다. 살인사건이라면 대개가 금전, 치정, 원한등 뚜렷한 동기가 깔려있게마련인데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살인사건은 사소한 말다툼끝에 자기처와 두딸을 죽이고 순간적인 충동으로 욕을보이고 모녀를 죽이고 불까지 태우는등 정상인으로는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성격의 것들이어서 경찰의 수사도 그만큼 어렵다. 이같은 현상에대해 전문가들은 핵가족과 도시화에따른 인정고갈, 찰라주의, 관능주의, 빈부격차에따른 사회불안등이 범죄심리를 충동적으로 자극시키고 있기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한국사회병리연구원장 白尙昌박사는 무고한 사람을 순간적인 충동으로 마구 해치는 동기없는 살인사건은 『국민소득 이 1천달러에서 2천달러수준인 사회가겪는 공통된 현상』이라고 지적,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하겠지만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이 「한번 참아 본다」 여유를 가져야 할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납득할수 없는 살인사건은 해고당한 종업원이 이에 앙심을품고 제재소주인을 칼로 찔러죽인 사건 (10월20일·大田)에서부터 최근 金麗淑씨(27) 모녀피살사건 (10월26일·富川)등 최근 1개월동안 10여건이 넘는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것이 충북中原郡에서발생한 3모녀살해사건(10월14일)。

이는 고물상을경영하는 趙相海씨(34)가 밤늦게까지 TV를보다가 부인 尹春蓮씨(29)가 말을 잘듣지않는다고 시비끝에 부인을 절구공이로 때려죽이고 이를보던 두딸이『아빠 싸우지마』라고 소리치자 이들마저 해친것.

이밖에도 술에 취해 귀가했다가 새후 2개월된 아들이 혼자 울고있자 홧김에 방바닥에 내던져죽인사건(10월7일·부산), 결혼문제로 시비끝에 애인의 어머니와 언니등 두여인을 부엌칼로 찔러죽인사건(10월4일·서울), 미장을 자기에게 주지않았다고 제과점 주인을 흉기로 때려죽인 사건(10월2일·부산) 등으로 보는이로 하여금 『아무리 그정도의 일로 사람을 죽이다니』하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인 사건들이 많다.

"人權존중 가치관 확립시급"

◆白尙昌박사 (한국사회병리연구원장)=우리사회의이같은 병리를 치료하기위해서는 인간중심정책과 출세위주·업적위주·물량위주정책을 과감히 청산하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인격을 존중하는 태세가 돼야한다.

◆車載浩교수 (서울大심리학과)=사회적으로 소외된 일부계층이 기존의 가치관에 반대, 맹목적인 파괴행위를 저지르기 쉬워 범죄를 유발하기도 한다.

또 사람을 인간보다는 나의 수단으로 보는경우가 있어 이같은 범죄가 생기는 것으로 본다.

◆李時炯박사 (고려병원정신신경과장)=복잡한 현대도시생활에서 사람들은 흔히 인간관계의 갈등이나 소음등 환경공해를 비롯한 갖가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있어, 합상 과밀자극상태속에 살고있다.

이때문에 사소한 자극에도 이상흥분상태에 빠져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반응을 보이게되는데 이것을 정신의학적으로는 역설반응(PARADOXICAL REACTION)이라고 한다.

이같이 살의나 범의가 분명치않은 범죄가 늘어나는것은 대개의경우 이 역설반응으로 설명할수 있다.

외국에서는 이처럼 동기가 불분명한범죄의 경우 범인의 뇌파검사를 반드시 실시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에대한 관심이 크지 못한 편이다.

이같은 현상에대한 대비책으로는 첫째 자신의 스트레스를 정상적으로 해소할수있도록 인간관계나 취미활동등을 스스로현성해나가정신적인 정착을 할수있도록 해야하며 정책적인 차원에서도 국민들의 정서를 순화할수있도록 여가선용시설이나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美서 月刊誌「코메리칸」創刊
移民同胞위한 美國生活 안내역
한국과 美國社會의事件등 다뤄

在美 한국인들을위한 한국어 월간지「코메리칸」이 뉴욕에서 창간되었다。미국에서 나온 최초의 한국어 잡지「코메리칸」은 女性誌와 綜合誌의 스타일을 적절하게 섞어 미국사회와 한국사회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는 읽을거리와 미국생활에서 부딪치는 각종 문제들을 다양하게 다루고 있다.

「코메리칸」의 발행인 吳英範씨는『한국에서 나온 잡지들로는 재미교포들에게 미흡한 점이 많아 在美 한국인을 위한 잡지를 창간하게 되었다』고 밝힌다. 「코메리칸」은 크라운版 3백50여페이지로 값은5불인데 창간호5천부가 미국 전역에서 매진돼 2호는 7천부를 찍었다고한다.

발행인 吳英範씨는 77년에 高大 英文科 재학중 미국으로 이민가 뉴욕에서 책방을 경영하며 한국서적 유통판매 사업에 종사해왔다. 「코메리칸」 사무실의 주소는 62 West37st/#201 N.Y. S/N. Y10018.

種石 柳光烈선생 빈소에 全大統領弔花、각계 弔問

서울鍾路區內需洞 자택에 마련된 種石 柳光烈씨 빈소에는 全斗煥 대통령과 李光約문공부장관、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등 각계에서 보낸 40여개의 조화가 놓였고 가까운 친척과 한국일보 임직원들이 조문객을 맞았다。

빈소의 마루에는 제24회 小波賞상패、대한민국문화예술상상패등 고인이 수상한 10여개의 상패들이 진열돼 고인의업적을 대변해주었다。

1일과 2일 빈소에는 兪鎭午전高大총장、千寬宇평화통일자문위원장、鄭義淑梨大총장、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 宋志英씨、金相琪동아일보사장、李雄熙청와대대변인、전언론인 金鍾圭씨등 언론계와 정계 학계등각계인사들이 줄이어 조문、60년간 한국언론을 위해 헌신해온 고인의 업적을 추모했다。

◇ 全斗煥 대통령을 대리하여 故柳光烈선생의 빈소를 찾은 李雄熙청와대대변인이 분향하고있다。

나의 이력서
〈題字·尹致暎〉
윤치영 ㊷

3대國會 시절
四捨五入 改憲파동 與議員脫黨선풍
野黨側선 護憲同志會구성 對與투쟁

1954년 봄。정치고 사회고 모두가 꽃이 부러진 배처럼 출렁대던 시기다。

정치적으론 自由黨이란 절대권력이 장막안에서 칼날을 벼르고 있었다。사회적으로는 불교분쟁이 시끄럽고 소설「自由夫人」이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때쯤 실시된「5·20總選」에서 나는 선거구1번지인 中區甲區에서 大韓國民黨 간판으로 출마, 당선돼 3대국회에 진출했다。당시 中區甲區에서는 自由黨실력자 任哲鎬와 2대의원 李容卨、변호사 辛泰嶽등 5명이 출마했다。모두가 만만치않은 인물이었으나 나의 最強의 적수는 自由黨중진이란 권력과 金權을 업고나온 任哲鎬였다。경찰도 그의 편이었다。난 완전히 野黨이었다。

나는 2代때 公州會戰에서 趙炳玉과 싸우던 교훈을 되살려 투쟁끝에 차점인 任哲鎬를 2·7배차이로 꺾고 大勝했다。

3대국회에서는 총2백3석중 自由黨이 1백14명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야당인 民主國民黨은15명、大韓國民黨은 3석에 그쳤다。바야흐로 自由黨의 세상이된 것이다。

얼마뒤 있은 국회의장선거에선 申翼熙、李起鵬、나 셋이서 3巴戰을 벌인 끝에 李起鵬이 당선됐다。「李起鵬天下」가 된 것이다。李起鵬의 본격적인 등장은 自由黨 全盛의 시작이자 장차 도래하는 비극적인 몰락의 예고였다。自由黨의 帳幕안엔 점차 음모의 인물들이 날개를 펴기 시작했다。

「뉴델리密會사건」이 파문을 일으킨것은 그해 10월말。당시 前民主國民黨선전부장인 咸尙勳은 장문의 성명서를 발표했다。내용인즉 53년 5월 영국여왕 엘리자베드의대관식에 참석했던 당시의 申翼熙국회의장이 귀로에 印度수도 뉴델리에 들러 6·25당시 월북한 趙素昻과密會를하고 非共産、非資本主義의 노선으로 제3세력을 형성하자고했다는 것이다。어처구니없는 중상이었다。

한국을 中立化하기위한 모의를했다는 것이다。말할것도없이 허위날조된것이다。

海公을 공격、궁지에 몰아넣으려는 책동이었다。너무나야비하고어이없는 정치적 모략극이었다。自由黨을 중심으로한 이 모략은 결국스스로를 궁색하게 만들고 말았다。

국회에선 李起鵬의장을 중심으로 한 인물들이、李대통령주위에는 소인배와 국가관이 없는 인물들이 모여 政局을 어지럽히고 대통령의 눈을 속였으니 통탄할 일이었다。양심있는 사람들의 바른 말은 통하지않았고 金力과 조직을 가진모략이 날뛰었고、私利私慾을 채우려는 정상배들의 장난이 말이 아니었다。나라의 어려운 시기에 이 모양이었으니 자손만대에 부끄러운 죄악이 아닐수 없었다。

대통령重任조항 철폐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위「四捨五入改憲案」이 통과된 것은「뉴델리 密會사건」이 있은 지 한달뒤의 일이었다。부결되었던 개헌안이 정치적 마술에 의해 하룻밤사이 가결로 선포됐다。

이 四捨五入개헌파동은 政界에큰 충격파를 몰고와 自由黨소속의원들이 대거脫黨을 하고 야당에선 護憲同志會란 이름아래 결속을 해 對與투쟁을 선언했다。

◇56년一월 3代국회시절 본회의에서 외교문제에관해 발언을요구하는筆者。

야당에서는 四捨五入改憲이란 통탄할 일을 맞아 어찌 당하고만 있었겠는가。

야당의 투쟁은 곧 民主黨 創黨으로 이어졌다。그후로 계속된 극한투쟁은 정국을 파국으로 몰아갔다。

국회에서는 또「불온文書사건」이란 게발생해 풍파를 몰아왔다。이것은 국회의원들을 모략하고 협박하기위한 장난이었다。

깡패대장 李丁載의 횡포가 본격적으로 날뛰던것도 이때다。정치깡패 李丁載의 무리에 맞선「正義派」金斗漢군의 투쟁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당시 나는 국회안에서「自由鬪士」의 입장을 고수했다。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면 與도 공격하고 野도공격했다。좋게말하면 中立地帶에 선 셈이지만 나의 院內생활은 고독하고 괴로운 길을 걸어야했다。

그런 입장에서도 李대통령개인에 대한 나의 지지는 변함이 없었다。나는 그분을어떻게 人의장막으로부터「救出」할수 있을것인가 수없이 골몰했지만 능력이 미치질 못했다。

李대통령은 보호를 받는게 아니라 포위돼 있었다。조직적인 모략의 울안에 그는 갇혀있었다。그는철창에 갇힌 호랑이처럼 헤어나지 못하고 사악한 무리들이 만든 부패와 無力의 늪에 빠져들고 있었다。정치의 생명력이 쇠잔하기 시작했다。

바른 말、옳은 사람들의 뜻은 통하질 않았으니 어찌하랴。古今역사를 통하여 항차 나라일에있어서 得人者는 盛하는 법이다。그렇질 못하고 간신、소인배로 가득차면 실패하기 마련인것은 오랜 우리의 역사가 증명하는 바이다。

對안티구아修交 바르부아國과도

정부는 카리브海의 新生독립국 안티구아및 바르부다(Antigua and Barbuda)정부와 1일字로 외교관계를 수립키로 합의했다고 2일외무부가 공식 발표했다。

이같은 합의는 1일 안티구아國 독립기념식에 대통령경축특사로 파견된 李福衡駐도미니카대사와 안티구아의 베르·C·버드수상간에채택한 공동성명을 통해 이뤄졌다。

詩人·수필가 金素雲씨

시인이며 수필가인 金素雲씨가 2일상오 10시 서울江南區 瑞草洞 1071화원연립주택 206호 자택에서 노환으로별세했다。향년74세。

金씨는 1907년 釜山출생으로 20년 渡日、東京가이세이(開成)중학을 중퇴한후 시인 기따하라(北原白秋)에게 사사했으며「地上樂園」의 동인으로 일본문단에서활약하면서 수필문학의 독보적인 경지를 개척했다。

金씨는 지난해 위암으로、금년들어서 담낭제거 수술등 두차례의 큰수술을 받았었다。유족으로는 金仁凡씨(34)등 1남2녀。

삼복식품 특별세일

화요일 영업 금요일은 밤11시까지

	REG.	
●경기미(쌀)한가마		22.50(Big Sale)
●갈 비	1.79	1.09(Frozen)
●불 고 기	2.69	2.29(파운드)
●일제라면(30개)		13.95
●고등어자반	1.25	.99(파운드)
●보 리 차(한봉지)	1.99	.99
●한국산 국수(한봉지)	.85	.69
●김장용 생굴	2.95	1.90(파운드)
●김장용 고추가루	3.95	3.45(파운드)
●명 간 장	6.95	6.50(갈 론)
●일제 전기밥솥(보온용)(10인용)	159.95	120.00
●일제 전기밥솥(보온용)(8인용)	69.96	55.50
●일제카레(한봉지)	1.55	1.25
●우황청심환(진품) 북경산1통		20.00
●로얄제리(진품) 1병		9.99
●고사리 1파운드	1.99	1.19
●청푸묵 1봉지	1.99	1.59

2437 FINCH AVE. W. 전화 : 743-8270

學園시위 과격한 口號등장

"反패쇼" "現政權퇴진" "피의鬪爭"등

서울 각大學 소수學生주도, 左傾化 경향

최근 대학생들의 학원시위가 소수과격주의자들에 의한 폭력사태와함께 구호가 현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등 그 양상이 크게 바뀌고있다.

9,10월 두달사이 서울大, 高麗大, 延世大,西江大,成均館大, 慶熙大,外國語大,梨花女大등에서 발생한 학내시위는그규모에서 수십명 혹은수백명만이 가담한 일부극소수 학생들의 데모였으나 그들이 내건 구호의 내용은 교권과 정권에대해 노골적으로 도전, 주동자들이 좌경화 또는 폭력혁명노선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있다.

이들이 내건 구호의 공통적인 성격은 『현정부는 패쇼집단』 또는 『반패쇼투쟁 선언』을 빼놓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데모의 성격을 북괴가 말하는 「폭력혁명에 의한 체제전복」과 유사하게 만들고 있으며 『숏정권물러가라』 『현정권 물러가라』는 등의 구호도 서슴지 않고있다.

특히 이들 구호는▲욕설에 의해 교권을 부정하고▲추곡가 대폭인상을 요구하면서 인플레억제를 주장한다든지 납득할수없는 논리로 정권을부정하고 주동자들이 파괴집단화 되고있다.

최근 나타난 주요대학시위의 구호내용은 다음과같다.

▲延世大(9월30일)‖『양키고·홈』『숏정권물러나라』『물러가라 양키,왜놈』

▲서울大(10월23일)‖『학호단박살내자』,『88올림픽유치는 국민을 수탈하여 국제적고립을 회피하려는 전법이다』『청탁배격운동은 패쇼집단의 명령계통을 수립하려는것』

▲西江大(9월18일)‖『우매한 군중들이여, 피의투쟁, 피의제사를 위하여!』『피의 신이여 피의제전, 축제를 위해』『서강인이여 전배하자 피를 마셔라』

▲高麗大(10월29일)‖『올림픽개최는 공산권불참과 적자로 손님밖에 얻지못할것이고 허무일 뿐이다』

▲成均館大(10월7일)‖『패쇼추구, 李奎浩는 자폭하라』『막대한 외화를 들이는 스포츠중계를 즉각중지하란』

▲外國語大·慶熙大·(9월29일) 梨大(10월27일)‖『올림픽 유치 반대한다』

尹갑부 被殺사건

高여인"고문"에 河형사"否認"

어제 3회公判 "옷벗기고 물먹였다" 주장도

尹景花씨 피살사건 제3회공판이 2일상오10시30분부터 하오5시까지 서울형사지법 대법정에서 합의14부 (재판장 金憲武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高淑鍾 피고인에대한보충심문과 증거조사가있었다.

이날 高피고인은 변호인金炯俸변호사의 보충심문에서 『지난 8월26일 검찰청에와서 2차심문을받을때 상오10시께 먼저 검찰심문조서를받고 점심을 먹은 뒤에 하오에 가족과 친구들을 만났다』고 말해 지난 2회공판에서의 「상오에 가족들을 면회하고 하오에 검찰의 2차심문을받았다」는 진술을 뒤집었다.

高피고인은 또 『검찰의 2차진술조서내용은 읽어보지도 못했으며 8월29일 龍山경찰서 河英雄형사등이 서울구치소로 찾아와『경찰에서의 자백을 번복하지말라고 협박했다』고 말하고『이튿날인 30일에는 서울지법 金基眼부장검사와 鄭相明검사가 찾아와『솔직히 말하라』고 했으나『고문이 괴로워 조서를못받겠다고 하자 검사들은 그냥 돌아갔다』고 말했다.

이어 증인심문에서 河英雄형사(구속중)는『高피고인을 수사할때 고문한 사실은 없다』고 증언하고『高피고인이 허리를다친것은 낙태수술을 12번이나 했기때문에디스크증세가 도져서 일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河형사는이어『사건은 내가 조작한것이 아니다. 사건당일인 지난7월22일의 행적에대해 高피고인이 알리바이를 못대고있을때 내가 高피고인의 아들에게 高피고인이 옷을 사준날짜가 7월28일인데 이를가리키위해 아들과대질 심문을 하겠느냐고 다그치자 그때비로소 高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것』이라고 진술하고『龍山서 지하실에서 高피고인의 현장검증을 위해 예행연습을 한일은없다』고 말했으며 또『지난 8월29일 하오3시 서울구치소로 高피고인을 만나러간것은 인간적인측면에서 만나러 간것이지 高피고인을 협박하기위해 간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高피고인이『나를 수사할때 河형사등 형사5명이 정책적이라면서 옷을 빨가벗기고 반지와 시계를 벗겨 놓은뒤 구둣발로 온몸을 마구짓밟고 물을 먹이는등 고문을해서 살려만달라고 애원했지않느냐』고 말하자 河형사는 말이 없었다.

이어 高피고인과 서울구치소 2층7방에 함께 구치됐던 金윤자양(24)은『高피고인이 8월27일 밤9시20분에 수갑을 찬채 감방에 들어오자말자『나는 사람을죽였다. 한사람을 죽였으면 편했는데 세사람이나 죽였다』고 말했으나 인간적으로 동정이가서 어깨와 허리등을 안마해줬다』고 증언하고『여자 혼자서 세사람을 죽일수는 없다는생각이 들었는데 이튿날 바로 高피고인이 경찰의 고문에 못이겨서 거짓자백을 했다』고 말했다.

절도죄로 기소돼 지난9월30일 집행유예로 석방된 金양은『高피고인을 감방에서 안마를 해줄때 가슴과어깨허리등에 시퍼렇게 멍이든자국을봤으며 高피고인 잠꼬대도 『때리지말라』는 소리를들었다』고 진술했다.

◇高여인과 河형사 「고문설」속에 진행된 尹景花씨 피살사건공판정。「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고있는 高淑鍾피고인의 뒤편 증언대 선 河英雄형사가 『그런일이없다』고 부인하는 장면이다。

祝祭방해 시위高大生 5명拘留 4명도

서울 冠岳경찰서는 2일 서울大 대학축제5일째인 지난달30일 페스티벌 공연장에서 행사를 방해한 문영모군 (산업공학과2년)、최상규군 (사회학과2년)、김복규군 (공대1년)、김선홍군(농대1년)、김수복군(공대1년)등 5명을 즉심에넘겨 각각 구류5일을 받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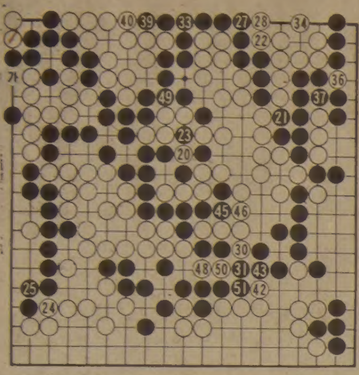
또 지난달29일 高麗大에서 있었던 반정부시위와 관련, 서울城北경찰서에 연행됐던 高大생 이재형군 (영문과2년)、이남희군 (사회학과2년)、진완대군(인문계1년)、이경곤군(인문계1년)등 4명이 즉심에 넘겨져 모두 구류15일을 받았다.

韓國해군艦2척 클랑에 친선방문

【콸라룸푸르-日베르나마‖聯】한국해군함 2척이 동남아국가들에 대한 친선방문차 1일 콸라룸푸르 30㎞서쪽의 클랑항에 도착했다.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5局 第11譜 220~251 (각5시간 덤5집반)



白(6段)姜 哲 民〈1敗〉
黑(4段)姜 勳〈1勝〉

이무렵 姜4단은 시간을 마냥 소비하여 어언 4시간을 돌파하게되었다。그러나 초읽기에 몰린 상대보다 여유가 있고 겸하여 黑대마가 일단패로된데 용기가 생겨서 미묵 무섭게 버티고있다。

姜6단은 무엇보다 1분바둑에 쫓기는것이 고통스러워 보기에도 안타까울 지경이었으나 이제와서는 어쩔수없다。

白20에서 여전히 패싸움인데 黑21에 대한 白22이하는 예정된 제자리삼 黑23에 패를 따낸것은 27、33의 패감을 본때문이거니와 여기서 白24는 귀중한 패감하나를 없애버려서 아까왔다。즉、25자리에、껴붙여야 패감이 하나더 생기기 때문에 가운데 패를 이길수 있었던것이다。

하기야 기록계가 거듭거듭『나머지 1분입니다。40초、50초、하나 둘…』

白、끝끝내 勝機逸失

하는 바람에 한수마다 엉겁결에 두는 식이다。그렇더라도 白30의 패쓰다음 32로 다시패를한것이 패착일줄이야。

원래 白30으로는 黑33자리에 두어 8점을 따내야 되었다。비록 黑이49자리에 두어 白4점을 잡고살아가더라도 선수를 잡고 좌상귀를 白「가」에 막아 잡아버리면 그것으로 白勝은 결정적이었다。

사실 姜6단은 그렇게 둘까말까하고 몇번이나 망설였다。그러다가 시간이 쫓기려는 직전에 패를따냈던것이다。시간이원수라고나 할까、좌우간 대세판단을 안한 때문에 승기를 놓친셈이다。

黑이 33을 패감으로 쓰게된것은 행운이다。결국 白은 48、50으로 겨우 黑2점을 잡는데 그쳤으니 이만저만 억울한것이 아니다。이다음 白은 어떻게 손해를 한회할 것인지。

29、32、35、38、41、44、47…패。26 【一凡】

블론디 딘·영作

本社特約·連載漫畫

"가끔 우리가 고층호화 아파트에 사는 꿈을 꿔요"

"나는 항상 우리가 방 셋짜리 조그만집에서사는 꿈을 꾸는데"

"우리가 이미 방 셋짜리 조그만집에 살고있는데도 당신은왜그런꿈을 꾸죠?"

"그러니까 잠에서 깨어나도 결코 실망하지 않지"

조규혁
종합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상점보험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모눈종이 위의 生 <243>

趙善作 作
金光培 畵

모눈종이 위의生⑩

내가 맨 먼저 만난 사람은 J씨였다。그것은 내가 그를 찾지 않고도 우연히 만난것처럼 굴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이었다。

아버지께서 계신 은행건물 측면 현관 앞에서 퇴근 무렵 나는 이틀동안 그를 기다렸었다。첫날은 실패했는데 그것은 그를 만나기전 먼저 아버지를 뵈었기 때문이었다。

아버지께서는 갑자기 나를 발견하시고『어, 웬일이냐。전화도 없이…』하시고는 당신을 퇴근시켜드리기위해 나왔던 자동차를 도로 보내시고 나를〈능금〉으로 데리고 가신 것이다。

두번째 날은 다행히도 J씨와 먼저 마주쳤다。물론나는 그의 눈에 잘될만한 곳에 서 있었고, 그와 눈이 마주치자 짐짓 당황하는 체해 보였다。아버지를 뵙기 위해 와서 있다가 또 당신과 마주치게 되었다는 식으로。그러나 J씨는 나보다 더 당황해 했고, 첫눈에 보기로도 오금이 달라붙는듯한 모습이었다。잠시 그는 그렇게 내 시선으로부터 도망쳐야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이는듯 싶었고, 할 수 없지 않느냐는 듯이 내 앞으로 걸어왔다。

『웬일로, 아 부친을 만나뵈러 오셨군요』라고, J씨는 이제 좀 침착해진 표정으로 말했다。나는 얼핏 그렇다고 대답할 수가 없었다。그렇게 대답하는 경우 J씨는 금방 달아날듯한 느낌이었다。그제사 나는 진실로 당황해져서 애매하게 웃어 보였다。

그런 내 마음속의 비밀을 눈치챈 J씨는 자신의 손목시계를 들어올려 보고 나서 마지못해『차나 한잔 하실까요?』하고 말했다。순간적으로 나는 J씨를 거절해 버린까도 싶었다。그러나 나는그런 굴욕의 느낌과는 달리 그를 뒤좇고 있었다。

J씨는 나를 곧 매우 붐비는 어떤 지하다방으로 데리고 갔다。음악도 시끄럽고 공기도 탁한 데다가 많은 편에 두 사람의 다른 손님들이 마주 앉아 있는 곳의 합석이었다。레지에게 코피두잔을 시킨 다음 J씨는 또 한번 손목시계를 보았다。

『오랜만입니다。서너 달 됐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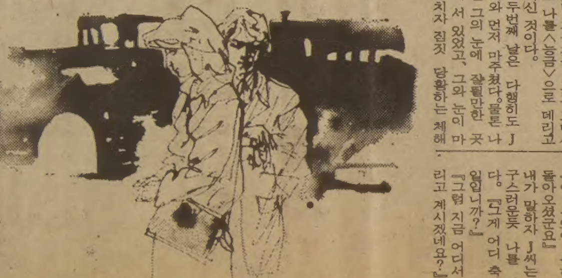
『네。바쁘신 일이 있으신 모양이군요』

『아니, 약간』하고 그는 또 손목시계가 있는 쪽의 소매를 조금 걷어 올리다가말했다。『지난달에 와이프가 돌아왔어요。딸애하고 연극을 보기로 해서…』

『아, 부인이…축하해요。돌아오셨군요』

내가 말하자 J씨는 좀 구스러운듯 나를 외면했다。『그게 어디 축하받을 일입니까?』

『그럼 지금 어디서 기다리고 계시겠네요?』



『네、저쪽 제과점에서…』

『괜찮습니다。좀늦으면 어떻겠읍니까?』

『아니、빨리 가보셔야죠。기다리실 텐데…』

내가 일어서자 J씨는 나를 올려다보며『코피 시켰잖아요?』하고 말했고、나는 곧 다시 앉았다。레지가 곧 코피를 가져왔고、나는 그에게 시간을 뺏지 않기 위해서 뜨거운 코피를 서둘러 마셨다。

J씨는 그런 나를 멀뚱이 건너다 보다가 말했다。

『그래 그동안 뭘하고 지냈읍니까? 아참, 안세호가 동생이라죠? 어디서 들었더라?〈아랑〉에서 들은 것 같군。맞아요?』

『네』

『그친구 노래에 난 완전히 빠졌어。가사를 써주고 싶을 정도요』

『그러세요?』

나는 조금 웃어 보였고、J씨는 좀 진지해진 표정으로

『정말입니다。언제 한번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했다。

태풍애그니스 災害 加서 구호금5萬弗

캐나다정부는 2일 태풍 애그니스號 災害복구를 위한 구호금 5만달러(캐나다貨·韓貨2천8백46만9천원)를 바우어 駐韓캐나다대사를통해 盧信永외무장관에게 전달했다.(사진)

캐나다 국제개발처(CIDA)자금으로 공여된 이구호금은 보사부를통해 이재민을 위한 보건·영양및 주택공급에 쓰여질 계획이라고 외무부가 밝혔다.

갑자기 달려든 곰을 미처 피하지 못해 참살밖으로 나온 곰의 주둥이에 오른쪽 발목을 물렸다.

혹시 서양인의 체형(体型)에맞춰 만든 모피제품을 구하려고 하시지는 않는지요?

1

1 BLACK GLAMA MINK LONG COAT : 검은 밍크로서는 세계 제일로 손꼽히는 밍크코트. 일반 시중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코트. 스킨 한장한장마다 Black Glama라는 마크가 찍혀 있음.

2 MAJESTIC DARK MINK JACKET : Black Glama와 쌍벽을 이루는 밍크. 제품 안쪽에 반드시 CANADA MAJESTIC MINK 라는 상표가 붙음. 이외에 Majestic Pastel Mink(옅은 밤색) Majestic Demi Buff(짙은 밤색) Majestic Sapphire Mink(잿빛) 등이 있음.

3 DEMI BUFF MINK STOLE : 역시 Majestic밍크로 스토울중에서는 최고급품.

4 밍크목도리(목도리 외에도 코트깃에 다는 여우 종류의 칼라가 있읍니다)

5 CANADIAN RED FOX JACKET : 여우 종류의 제품은 칼라 맷칭이 가장 중요. 양산(量産)하는 곳의 제품은 칼라매칭이 눈에 띄게 떨어짐.

캐나다, 특히 토론토와 몬트리얼에는 수많은 모피공장, 스토어가 있읍니다.

거의가 서양인의 몸에 맞게 디자인한 패턴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고 있읍니다. 이것이 우리한국여성에게 맞을수는 없읍니다. 제품 100% 를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는 당 공장은 오로지 동양 여성 만을 위해서 작품을 만들고 있읍니다.

●한벌의 밍크코트를 만드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고급 밍크스킨+ COLLAR MATCHING+CUTTING+ SEWING입니다.

30년 경험의 기술자들이 위의 것을 모두 완벽하게 처리, 최고의 제품을 만들고 있읍니다.

6 BLUE FOX JACKET : 역시 Red Fox와 마찬가지로 제조상어려운 것은 칼라맷칭. 특히 검은 빛을 띄우는 부분과 흰빛을 띄우는 부분의 맷칭이 뛰어난 기술을 요함.

☆오더 메이드 전문

록 키 모 피

315 ADELAIDE ST. W. 2nd Floor, TORONTO

TEL : 366-4497

월~금 : AM10 : 00~PM5 : 00
토 : AM10 : 00~PM2 : 00

※블랙 그라마(Black Glama)미국 오대호 주변의 밍크양식업자가 생산하는 Dark Mink중에서 최고급의 질을 Great Lakes Mink Association 에 제출하여 Black Glama라는 상표명으로 판매하고 있음. Dark Mink로서는 세계 제일로 군림함.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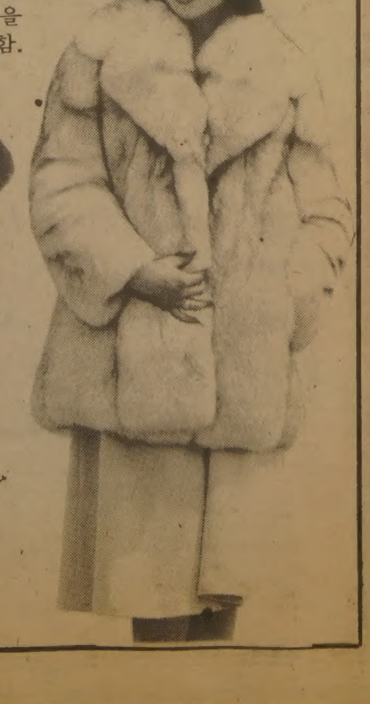
CANADA Majestic MINK REG'D*

※마제스틱(MAJESTIC) = 캐나다에서 산출되는 최고급 밍크.

3

4

5



6

인 사 말 씀

존경하는 실업인협회 회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장시간의 격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는 11월26일 실시될 실업인협회 총회에 즈음하여 아직도 여러가지 면에서 부족하고 연소한 본인이 주위에 저를 아껴 주시는 분들의 강력한 추천과 저자신 지난 4년간 본협회의 이사로서 협회라는 조직속에 깊숙히 관여한 경험을 통하여 이제는 보다 강력하고, 보다 실질적인 우리의 협회 발전이라는 지상목표에 대한 사명감과 의욕에서 감히 여러 훌륭하신 선배 회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저의 모든 젊음과 정력을 이곳에 바치고자 하는 강한 의지와 결심으로써 송구한 마음으로 이번 정 부회장 선거에 조기연, 김이열 두분과 한팀이 되어 입후보 하였읍니다.

존경하는 실업인협회 회원 여러분! 우리의 협회는 지난 수년간 유능하신 역대 회장단의 헌신과 노력으로 고율의 밀크리베이트며, 자체 BRAND의 빵 생산등 성공적인 업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현대와같이 고도의 자본주의가 발전된 경제사회에서는 과거의 업적만을 자만하여 이곳에 머무를 수는 없읍니다. 우리는 계속적인 연구와 조직적인 투쟁을 통하여 쉬지 않고 전진하여야만 하겠읍니다.

이점에서 볼때 지난 3년간 우리는 너무나 오랜 동면을 하였읍니다. 물론 본 협회 업무는 협회원 개개인의 최고 목표인 최대이윤의 확보와 공동체로서의 협회의 장기적 발전을 생각할 때 고려되어야할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읍니다만, 다행히 여러분의 성원으로 저희팀에앞으로 2년간 본협회 집행부의 임무가 주어진다면 저희들은 아래와 같은 사업에 역점을 두고 이의 성취를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과 투쟁을 아끼지 않겠읍니다.

1. 조직적인 기획 조사실의 운영

이제 협회는 연 15만불의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큰 단체로서 발전하였읍니다만 아직도 우리협회는 집행부 회장및 극히 소수의 분에 의한 단편적이고 즉흥적인 계획에 의하여 의사결정이 되고있는 실정인바, 저희들은 이곳 경제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인재율로 구성된기획조사실을 설치하고, 협회가 우리 회원에게 극대 이윤의 혜택을 드릴수있는 협상을 위한 계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단기및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따라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겠읍니다.

2. 협회재정의 공개화

본 협회는 이제 연 십오만달러에 육박하는 예산을 집행하는 명실상부한 대단체 입니다.

이와같은 대단체의 운영은 회원 각자가 공히 납득할 수 있는 재정의 공개화가 선행 됨으로써 만이 성공될 수 있으리라 확신하여 이의 공개를 약속 드립니다. 특히 현재 협회의 신용조합 기금에는 여러분의 밀크 리베트및 빵 리베트에서 모여진 10여만달러 이상, 여러분의귀중한 재산이 적립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자기구좌의 적립금이 얼마인지 아시는 회원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실 것입니다. 저희들은 매주 발간되는"실협뉴스"란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이를 공고 함으로써 회원상호간의 관심도를 높이고, 나아가서는 협회에 대한 참여의식을 고취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3. COMPLAI N 처리의 조직화

우리 회원들은 최저 1일 14시간이상 장시간 오픈하는 업으로 인하여 육체적인 피곤함 외에도 또다른 피곤함이 우리를 항상 괴롭히고있읍니다. 그것은 호시탐탐 적은 우리의 이윤을 송두리째 착취하려는각종 형태의 세일즈맨및 딜리버리맨들의 불손함과 횡포인 것입니다. 우리 회원의 전체적인BUYING POWER는 잠재적인 회원수를 합친다면 최저 주 3MILLION이상 으로서 온타리오 주 내에서는 벡커나 맥스밀크의 구매력을 훨씬능가하는 POWER를 우리들은 가지고 있읍니다. 회원 여러분 누구나가 주지하듯이 이제는 더 이상, 적어도 우리의 업계에서만은 소수민족이 설움을 받을 필요가 없읍니다. 이점에서 저희들은 협회내 불평상담처리부를 설치하고, 각종 공급회사및 도매상 경영실무진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여러분의 억울하고 분한 크고작은일들을 단결된 힘에 의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타파할 수 있도록노력 하겠읍니다.

4. 협동조합(구매공동조합)의 설립

이의 설립에는 복합적인 많은 문제점들이 있음에 틀림이 없읍니다. 그러나 그 설립의 필연성에는 회원 여러분 누구도 부정하시지 않을줄 알고 있읍니다. 저희들은 기존한인 도매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조언과 대화를 통하여 공존 내지는 통합을 기함으로써 우리회원 전체의 최대이윤 확보에 그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그러나 단시일 내에 체계잡힌 협동조합의 설립이 불가능 하다면, 특히 기존 도매상에서는 영리성의 문제로 인하여 취급키 힘든 소프트 드링크의 조합의 채널을통한 공급을 조속히 실시하겠 읍니다. 의의

(예) CAN POP의 경우 : 저희들 연구에 의하면 단일된 힘으로 대량 구입하고 주1회 각 회원들에게 배달하는 시스템을 이용한다면 현시점에서 연중 모든 종류의 캔팝을 케이스당 5달러 미만의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여러분은 지하실에 대량재고를 적재할 필요가 없읍니다.
BOTTLE POP의 경우 : 위탁생산에 의하면 벡커의 자체팝 43센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의한 K.B.A자체의 BRAND POP공급

5. 집중적인 선전, 장려 방안의 모색

현재 이곳 그로서리 업계에 있어서의 많은 FOOD CHAIN스토어의 대규모화및 신규확장 정책에 의하여 우리 회원들은 항상 큰 위협을 느끼며, 언제 어느때 우리의 인근에 체인 스토어 내지는 동일업종의 상점이 오픈될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지내고 있읍니다. 저희들은 이에대한 한 방안으로써 객관적으로 그 지원이 절실히 요청되는 회원의 상점에 대하여 SUPPLIER및WHOLESALER과의 협상에 의하여 적극적인 지원책을 연구하고 이의 성공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아끼지 않겠읍니다.

또한 일반 회원들에게는 협회 차원에서의 써플라이어및 홀세일러들과의 협상을 통하여 연중 그 순서를 바꾸어가며 품목별 세일을 실시 지원하도록 하겠읍니다.

6. 실협뉴스란의 효과적 운영

예산의 큰 비중을 할애하여 운영되는 본협회지는 결코 협회집행부의 이용지 일수는 없읍니다. 저희들은 실협란을 통하여 우리가 필요로하는 이곳 경제사회의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회원들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 전문인에 의한 지식을 소개하겠 읍니다.

7. 협회고문 변호사의 실질적인 활용

8. 회원취급 주종목에 대한 집중적 이윤 향상책 추구

A. 아이스 크림 리베이트 문제
B. 밀크의 크레딭및 반환문제(특히 실버욷경우)
C. 메트로 뉴스등 잡지회사에 대한 강력한 서비스 개선책
D. 선, 스타등과의 서비스및 크레딭문제협상

저희들은 이상의 문제들이 본 협회의 차원에서 조속히 처리되어야할 큰 과제로 생각하고,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겠읍니다.

끝으로 저희들 차선겸, 조기연, 김이열은 여러분의 성원으로 본 협회의 집행부로서의 기회가 저희에게 주어진다면 추호의 공명심이나사심없이 협회발전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세로 저희들의 모든 정력을 결코 아끼지 않을것을 약속 드리오며 인사의 말씀을 대신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981.11.5일

✵ 차 선 겸 (37세)

- 연세대학상대 경영학과 졸(68년)
- 부산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72년)
- 경영학 석사학위 수여(72년 문교부)
- 세무사 자격증 수여(72년 재무부)
- 재무부 근무(1969－1974)
- 캐나다 이민(74년)
- 한인장학재단 이사(79년 ～현)
- 토론토 코리안 와이즈맨즈클럽 회장(81년)
- 양로원건립추진위원회 위원장(81년)
- 실업인협회 이사(79년～현)
- 실업인협회 총무이사겸 협동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80년～현)

✵ 조기연(40세)

- 경희대학교 체육대 졸(63년)
- 중, 고등학교 교사(64년～73년)
- 캐나다 이민(73년)
- 재캐나다 사격협회 회장(80년)

✵ 김이열(41세)

- 부산대학교 상과대학 무역학과 졸(63년)
- 대한석유공사 근무(64년～66년)
- 주식회사 홍국상사 영업과장및 소장역임(66년～74년)
- 한국석유공업 규격협회 이사(74년)
- 토론토한인회 총무(79년)
- 양로원건립위 사무장(81년)

실업인협회 회장단 입후보팀

회장 : 차선겸　　부회장 : 조기연　　부회장 : 김이열